

연구보고 2017-33



KICC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

김동훈 이재희 이혜민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7-33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

김동훈 이재희 이혜민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정부의 다양한 출산·육아정책들이 가정과 사회, 보육과 유아교육 일선 현장에 서 신속하게 스며들고 건강한 육아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육아정책들이 적용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다. 미비한 보육·유아교육 환경이 육아정책의 적용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관행은 문화인 동시에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응은 국가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이자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로, 출산과 양육 문제는 이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다양한 육아정책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육아정책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육아정책과 출산·육아문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육아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향후 우리나라 육아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으로 예측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KICCE POLL)는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수행된 조사로, 2017년 1차년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수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KICCE POLL은 육아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국민 의식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최근의 출산·육아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떠한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충실히 발표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을 입안하고 전개해 나가는 정책관계자들에게는 좋은 시사점을 주고,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에게는 올바른 실행 방법을 제시하는 기초자료가 되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건강한 육아문화 창출에 실질적으로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조사는 정부, 연구진,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조를 통해서 가능했다. 이 분들의 참여와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조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국민과 조사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7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차 례

요약	1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 내용	15
3. 연구 방법	16
II. 육아정책 이슈 및 선행연구 분석	24
1. 육아관련 정부 주요 정책 방향	24
2. 언론기사 및 검색 키워드 분석	35
3. 여론조사 관련 선행연구 사례	52
III. KICCE 정기 여론조사 분석 결과	66
1. 조사대상 배경	66
2. 부모됨	68
3. 결혼 및 자녀 양육관	82
4. 육아 행복감	104
5. 육아정책	112
6. 소결	140
IV. KICCE 수시 여론조사 분석 결과	148
1. 조사대상 배경	148
2.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정책	149
3. 가정 내 양육 및 일·가정 양립 정책	155
4. 소결	164
V. 정책 제언	167
1. 육아문화 개선 과제	167
2. 육아정책 개선 과제	168
참고문헌	174

Abstract	179
부록	185
1. KICCE 육아정책 정기 여론조사 세부내용	187
2.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응답자별 응답여부	190
3. KICCE 육아정책 정기 여론조사 설문지	193
4. KICCE 육아정책 수시 여론조사 설문지(I)	207
5. KICCE 육아정책 수시 여론조사 설문지(II)	210
6. KICCE i-POL 사업추진 결과	213

표 차례

〈표 I-3-1〉 2017년 정기조사 표본틀	17
〈표 I-3-2〉 2017년 정기조사 목표 표본	18
〈표 I-3-3〉 2017년 정기조사 실제 표본	20
〈표 I-3-4〉 KICCE POLL 정기 조사 내용	21
〈표 I-3-5〉 KICCE POLL 수시 조사 1, 2 내용	22
〈표 II-1-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저출산 과제별 소관부처 및 육아정책 관련성	25
〈표 II-1-2〉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주요과제	27
〈표 II-1-3〉 문재인정부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현황	31
〈표 II-2-1〉 육아정책 관련 키워드 분석	36
〈표 II-2-2〉 저출산 보완 대책 주요 내용('16. 9. 발표)	38
〈표 II-2-3〉 맞춤형 보육 종일반 이용 기준	41
〈표 II-2-4〉 육아휴직 급여 지원 연도별 현황	44
〈표 II-2-5〉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기업별 현황	44
〈표 II-2-6〉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 현황('14. 11월부터 시행)	44
〈표 II-2-7〉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47
〈표 II-2-8〉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	48
〈표 II-2-9〉 사업장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현황('16.12.31일 기준) ·	51
〈표 II-3-1〉 KEDI POLL 조사 내용	54
〈표 II-3-2〉 KEDI POLL 조사 내용(2011-2016년도)	55
〈표 II-3-3〉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항목(2016년)	59
〈표 II-3-4〉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조사 내용	60
〈표 II-3-5〉 전국보육실태조사 조사 문항 중 정책 관련 문항	64
〈표 III-1-1〉 조사 대상자 특성	67
〈표 III-2-1〉 부모됨 각 문항 동의 정도 점수: 5점 평균	70
〈표 III-2-2〉 부모와 자녀의 상호 역할에 대한 생각	72
〈표 III-2-3〉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에 대한 생각	73
〈표 III-2-4〉 가정 내 부모의 역할에 대한 생각 동의 정도: 5점 평균	74

〈표 III-2- 5〉 이상적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 비율	75
〈표 III-2- 6〉 실제적 자녀양육 및 가사 분담 비율(영유아 자녀 있는 경우)	77
〈표 III-2- 7〉 자녀 양육시기별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78
〈표 III-2- 8〉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로서 본인이 좋은 부모 인식 여부: 5점 평균	79
〈표 III-2- 9〉 동의여부(나는 내 아이를 사랑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자녀를 갖기까지 시간을 더 둘 것이다) : 5점 평균	80
〈표 III-2-10〉 (자녀가 없는 경우) 좋은 부모가 될 것이라는 기대: 5점 평균	81
〈표 III-2-11〉 좋은 부모 역할을 위해 중요한 요소	82
〈표 III-3- 1〉 결혼에 대한 생각	83
〈표 III-3- 2〉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 - 1)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 : 4점 평균	84
〈표 III-3- 3〉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 - 2)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 4점 평균	85
〈표 III-3- 4〉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 - 3)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 4점 평균	86
〈표 III-3- 5〉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한 생각	87
〈표 III-3- 6〉 (성별 상관없는 경우, 아들, 딸) 이상 자녀 수에 대한 생각	88
〈표 III-3- 7〉 자녀존재의 필요성 여부	89
〈표 III-3- 8〉 자녀가 있어야 하는 주된 이유	91
〈표 III-3- 9〉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	92
〈표 III-3-10〉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 1)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 : 4점 평균	93
〈표 III-3-11〉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 2)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 4점 평균	94
〈표 III-3-12〉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 3)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 4점 평균	95
〈표 III-3-13〉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 4)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해야 한다 : 4점 평균	96
〈표 III-3-14〉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 5)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4점 평균	96

〈표 III-3-15〉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 6)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4점 평균	98
〈표 III-3-16〉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 1순위	99
〈표 III-3-17〉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 2순위	100
〈표 III-3-18〉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의 의미	101
〈표 III-3-19〉 자녀 성장 선호도 - 경제적 vs 열정 : 5점 평균	102
〈표 III-3-20〉 자녀 성장 선호도 - 친구 vs 권위 : 5점 평균	103
〈표 III-4 1〉 자녀 양육에서의 가장 큰 즐거움	105
〈표 III-4 2〉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 - 1)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4점 평균	105
〈표 III-4 3〉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 - 2)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 4점 평균	107
〈표 III-4 4〉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 - 3)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 4점 평균	108
〈표 III-4 5〉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 - 4)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 4점 평균	109
〈표 III-4 6〉 영유아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월 평균)	111
〈표 III-4 7〉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112
〈표 III-5 1〉 국가차원의 육아정책 설계에서의 우선순위	113
〈표 III-5 2〉 정부의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설계에서의 우선순위	114
〈표 III-5 3〉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시 강조해야 할 점(1+2순위)	116
〈표 III-5 4〉 유치원에서 교육시 강조해야 할 점(1+2순위)	117
〈표 III-5 5〉 어린이집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1+2순위)	118
〈표 III-5 6〉 유치원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1+2순위)	118
〈표 III-5 7〉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수준 : 5점 평균	119
〈표 III-5 8〉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사항(2가지 선택)	120
〈표 III-5 9〉 정부의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122
〈표 III-5-10〉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부의 우선 중점정책 요구수준	123
〈표 III-5-11〉 영유아 사교육의 이유(1+2순위)	124
〈표 III-5-12〉 사교육 과열 현상의 지속성에 대한 생각	124

〈표 III-5-13〉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	125
〈표 III-5-14〉 세금 추가 부담의사가 없는 이유	126
〈표 III-5-15〉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1+2+3순위)	127
〈표 III-5-16〉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 인지도, 도움정도, 향후 이용의향	127
〈표 III-5-17〉 0-5세 전계층 비용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 5점 평균	128
〈표 III-5-18〉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129
〈표 III-5-19〉 양육수당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129
〈표 III-5-20〉 정부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중요도	130
〈표 III-5-21〉 정부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정책효과	132
〈표 III-5-22〉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출산에 대한 영향력 :	
5점 평균	134
〈표 III-5-23〉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출산율 상승에 대한 생각 : 5점 평균	134
〈표 III-5-24〉 아동수당 지급 필요성	135
〈표 III-5-25〉 아동수당 지급 연령	136
〈표 III-5-26〉 아동수당 월 지급 금액	136
〈표 III-5-27〉 보육료·유아학비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생각	137
〈표 III-5-28〉 영유아 자녀를 키우기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성 수준 : 5점 평균	138
〈표 III-5-29〉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2가지 선택)	139
〈표 III-5-30〉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 생각 : 5점 평균	139
〈표 IV-1- 1〉 조사 대상자 특성	148
〈표 IV-2- 1〉 영유아의 가정 이외 기관 첫 이용 시기의 적절성	149
〈표 IV-2- 2〉 가구별 어린이집/유치원 적절 등원시각	150
〈표 IV-2- 3〉 가구별 어린이집/유치원 적절 하원시각	150
〈표 IV-2- 4〉 가구별 어린이집/유치원 적절 이용시간	151
〈표 IV-2- 5〉 보육료 전계층 지원이 자녀 어린이집 입소 시기에 미친 영향 정도	151
〈표 IV-2- 6〉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적절 지표-교사 1인당 영아 담당 기준 :	
5점 평균	152
〈표 IV-2- 7〉 국공립 시설 이용률 40% 확충 계획 찬반 정도	152
〈표 IV-2- 8〉 직장어린이집 확충 계획 찬반 정도	153
〈표 IV-2- 9〉 보육료·유아학비 가정 내 직접 지원 찬반여부	153
〈표 IV-2-10〉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평가 : 5점 평균	153

〈표 IV-2-11〉 어린이집 적절 기본이용시간 의견	154
〈표 IV-2-12〉 기본이용 시간 이외 추가적 비용 납부 의사	154
〈표 IV-2-13〉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수준 의견	154
〈표 IV-3- 1〉 배우자 이외 양육 지원자: 자녀 직접 돌보기	155
〈표 IV-3- 2〉 배우자 이외 양육 지원자: 경제적인 지원	156
〈표 IV-3- 3〉 배우자 이외 양육 지원자: 가사 지원 등	157
〈표 IV-3- 4〉 부모교육 의무화 찬반여부	157
〈표 IV-3- 5〉 양육지원센터 찬반여부	158
〈표 IV-3- 6〉 양육수당 지원 수준 의견	159
〈표 IV-3- 7〉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우선지원 의견	160
〈표 IV-3- 8〉 가정 내 양육을 위한 정부의 우선 지원사항 의견	161
〈표 IV-3- 9〉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양육 지원 적절성 : 5점 평균	162
〈표 IV-3-10〉 일·가정 양립정책 보완점	163
〈표 IV-3-11〉 일과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적절 근무시간	164

그림 차례

[그림 II-1-1] 문재인정부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30
[그림 II-2-1] 합계출산율 및 첫 자녀 출산 연령	38
[그림 II-2-2] '저출산' 연관 키워드	39
[그림 II-2-3] '누리과정' 연관 키워드	40
[그림 II-2-4] '맞춤형 보육' 연관 키워드	42
[그림 II-2-5]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43
[그림 II-2-6] '육아휴직' 연관 키워드	45
[그림 II-2-7] '사교육' 연관 키워드	46
[그림 II-2-8] 유보통합 3단계 계획	46
[그림 II-2-9] '유보통합' 연관 키워드	47
[그림 II-2-10]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49
[그림 II-2-11] '아동학대' 연관 키워드	50
[그림 II-2-12] '직장어린이집' 연관 키워드	51
[그림 II-2-13] '행복, 육아' 연관 키워드	52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6-1〉 2017 i-POL 모니터링단 구성 현황	213
〈부록 표 6-2〉 2017 i-POL 모니터링단 특성	215

부록 그림 차례

[부록 그림 6-1] 2017 i-POL 모니터링단 모집 공고	214
--	-----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이 제도·비용 지원 중심에서 인식·문화 개선이라는 장기적 접근으로 전환하였음.
- 육아문화는 단기간에 변하기 어려운 반면, 육아의 방법, 형태 등은 시대, 세대, 유형 등의 사회적 변인에 따라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다양한 변화 속에서 육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활동도 요구됨.
- 본 연구는 향후 5년 동안 여론조사를 통해 육아지원 정책에 따른 정책수요자의 만족도 및 인식과 체감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 및 예산을 조정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육아와 관련한 정부 정책 동향, 언론기사 및 검색키워드, 선행연구를 분석 등을 통해 현안을 확인하고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음.
- 여론조사를 설계하고 육아문화, 육아정책 관련 여론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여론조사를 정기와 수시로 진행하였음.
- 정책수요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i-POL)을 신규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육아관련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정책 과제 등을 제안하였음.

다. 연구 방법

- 문헌분석을 통해 육아정책 방향성 파악과 현안 주제 선정을 위해 관련 기본

계획, 언론기사 및 검색 키워드를 분석하였음.

- 정기여론조사(대국민 3,000명)와 수시여론조사(영유아 부모 500명)를 실시하였음.
 - 정기조사의 경우 부모됨, 양육관, 결혼관, 육아행복감, 유아교육·보육 정책, 정책만족도, 저출산 대응정책 등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음.
 - 수시조사의 경우 ①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정책, ② 가정 내 양육,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의견 및 실태조사로 구성하였음
- 부처 정책담당자 및 조사연구 전문가와의 협의회를 실시하였음.
- 부모 모니터링단(i-POL) 모집·운영, KICCE POLL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의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 및 여론조사 결과 공유를 도모하고,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였음.

2. 육아정책 이슈 및 선행연구 분석

가. 육아관련 정부 주요 정책 방향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종전의 기혼가구의 보육 부담 경감에서 청년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으로의 전환과 함께, 제도 도입·기반 조성파 비용 지원 위주에서 사각지대 해소, 실천, 문화 등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음.
 -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에서 정부정책 뿐만 아니라 민간·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하였음.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이 중 세부과제로 ‘행복한 육아문화 확산’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예비부부 및 부모교육, 주요 매체를 통한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대안적 육아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는 저출산 대응, 양육부담 완화, 일·

가정 양립, 복지, 보육·유아교육, 안전, 환경, 통일 등 다양한 주제와 연관되어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큰 틀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비율 40% 달성, 유아교육·보육 간/내 교사/프로그램/시설 격차 해소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함.

나. 언론기사 및 검색 키워드 분석

- 각종 신문 및 일간지에 '육아', '저출산', '유아교육', '보육',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검색되어 수집된 기사의 키워드를 분석하였음(2016.1.1.~2017.10.31.).
 - 육아정책 관련 키워드로는 저출산이 가장 많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감, 보육대란 등이 함께 키워드 빈도 상위권에 나타남.
 -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남성)육아휴직, 직장어린이집, 남성육아, 워킹맘 등도 주요 키워드였음.
 - 이외에도 2016년 이슈로서 맞춤형 보육과 더불어 지속적 사회적 관심사인 유보통합, 아동학대 및 안전, 보육교사, 황혼육아, 작은 육아, 사교육 등도 주요 키워드로 분석되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언론기사 무료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 서비스'를 통해 키워드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음.

다. 여론조사 관련 선행연구 사례

-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육아정책에 한정하여 일반 국민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음.
- 육아정책연구소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국민 의사소통 창구인 「KICCE i-POL 사업」을 통해,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육기관 등 현장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의견을 육아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음.
-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1999년부터 우리나라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태도와 국민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KEDI POLL」을 12년째 운영하고 있음.

- 통계청에서는 1977년부터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 조사에서는 교육 관련 실태 및 의견 등을 포함하여 조사해오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964년부터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수행을 통해, 결혼 및 출산행태와 가치관 및 태도 등을 파악하고 있음.
- 해외사례로는 1969년부터 시행된 미국의 PDK 여론조사가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교육제도인 k-12학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공공 교육이 직면한 대학입시, 취업준비, 학업성취 차이, 학습평가, 공공 교육에 대한 일반인식 등을 다루고 있음.
- 비영리 아동발달 연구기관인 Zero to Three와 아마존 CEO인 Bezos가 설립한 Bezos 가족재단과 공동으로 2015년 10월에 실시된 미국의 전국 부모 조사(National Parents Survey)가 있음.
 - 이 조사는 아동이 태어나서부터 5살까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으로, 자녀 양육에서 부모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부모됨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과 관점을 공유하며, 궁극적으로 양육 정책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3. KICCE 정기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

가. 부모됨

1) 부모됨의 인식 및 가치

-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비교적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라고 응답하였음(5점 평균에 3.53점).
 - 그러나 50~60대 이상의 중·노년층에 비해 10~20대의 젊은 응답자의 경우 부모됨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60대: 3.45점, 50대: 3.37점 vs 20대: 3.03점, 10대: 3.06점).
 - 한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문장에 대해서는 5점 평균에 3.45점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보임. 특히 10대의 경우 3.64점, 20대의 경우 3.61점으로, 부모로서 경제적 준비에 있어 중·노년층보다 높은 동의 정도를 보임.

- 또한 결혼하지 않는 경우에 부모됨에 있어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3.59점).
-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응답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점 평균에 3.53점), 특히 10~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출산 전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음.

2) 부부간 육아 및 가사 분담의 공정성

- 영유아 자녀가 있는 응답 대상자에게 실제적 자녀양육 및 가사분담 비율을 질문한 결과 자녀 양육의 경우 어머니 6.86 : 아버지 3.14, 가사의 경우 어머니 6.81 : 아버지 3.19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같은 대상자들이 응답한 이상적인 자녀 양육 분담 비율은 어머니 5.83 : 아버지 4.17, 가사 분담 비율은 어머니 5.84 : 아버지 4.16으로 실제와는 괴리가 있음.
- 특히 여성들이 지각하는 부부간 자녀 양육 분담 비율의 경우 어머니 7.25 : 아버지 2.75, 가사의 경우 7.26 : 아버지 2.64로 평균치보다 더욱 여성에게 치우침.

나. 결혼 및 자녀 양육관

- 결혼에 대해 남자의 경우 해야한다는 비율이 65%이상 높게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50%도 안 됨.
-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 해야한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향후 비혼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음.
- 아직까지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6.2% 수준에 머무름.
- 하지만 미혼인 경우나 연령이 어릴수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동의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녀출산을 위해 결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차츰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음.

- 응답자의 약 80%는 자녀가 있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미혼인 경우는 없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35%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없어도 무방하다는 응답이 많아 향후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
- 자녀 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조사한 결과,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자녀가 잘못할 때는 때를 들 수 있다,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을 혼자서 해야한다와 같이 자녀 양육의 엄격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의하는 수준이 떨어졌음.
-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양육비용에 부담이라고 응답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
- 자녀의 성장 선호도는 남자와 여자, 미혼과 기혼의 시각차가 존재하였음.
 -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열정보다는 경제적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친구같은 부모보다 권위적인 부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혼인 경우는 기혼인 경우보다 자녀가 열정적인 삶을 살길 원하고, 친구같은 부모가 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 육아행복감

- 자녀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는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90% 이상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응답하였음.
 - 다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1~200만원 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은 235.20만원이었음.
-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소재는 우선적으로 부모의 책임이고 국가가

지원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다만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양육에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저주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라. 육아정책

1)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역할

- 국가차원에서 육아정책 설계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남자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을, 여자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정부의 육아지원 재정지원 우선순위에서는 차별적 지원(48.8%)이 전계층 무상지원(42.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특히 낮은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무상지원이, 40대 이상에서는 차별적 지원이 많아 다른 양상을 보임.
 -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육아 재정지원이 차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 일정부분 소득에 따른 차별적 재정지원도 국가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정책 관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 우선순위에서는 공통으로 인성지도가 중요하다는 비율(1+2순위)이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은 안전한 보호, 유치원은 균형 있는 발달이 차순위로 나타나 약간 차이를 보였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택시 고려사항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였으며, 이어서 어린이집은 학부모 비용부담과 원장 및 교사가, 유치원은 프로그램과 학부모 비용부담이 기관 선택시 우선 고려되는 비율이 높았음.

3) 정부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지원 정책 인지정도

- 정부의 비용지원 정책인 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60% 이상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는 반대로 시간연 장형 보육료 지원(시간연장, 야간보육, 휴일보육 등), 시간제 보육료 지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은 모른다는 비율이 더 많았음.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서는 전체적으로 처벌 강화와 교육,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등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연령대에서는 처벌강화 비율이 높고, 높은 연령대에서는 교육실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세대간 정책우선순위에 차이를 보였음.
- 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수혜가능성이 높은 40대 미만에서는 추가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더 많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음.
 - 또한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찬반의견이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음.
-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으로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확충, 서비스 질 향상, 육아휴직제도나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한 우선순위(1+2+3순위) 비율이 높음.
 - 특히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해서는 도움정도와 향후 이용의향 수준이 매우 높아, 실질적 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갖추어져야 될 필요가 있음.

4) 저출산 정책 관련

-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중요도와 정책효과를 살펴본 결과,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임신·출산 지원 정책, 자녀돌봄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5점 중 4점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음.
 - 반면, 저출산 대응에 대한 실제 정책효과 측면에서는 보통수준(3점대 초반)으로 중요도에 비해 거는 기대치는 낮은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이나 아동수당 도입은 추가 출산이나 출산 계획에 미친 영향은 보통수준이나 그 이하로 나타나, 저출산 문제를 비용지원 정책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
- 아동수당의 지급 필요성에는 45.5%가 동의하였으나, 여전히 40.7%는 도입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향후 지급방식, 연령, 지급액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함.

-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42.2%는 영유아 자녀의 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일 정금액의 현금을 매월 지급하고, 부모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현금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을 선택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음.
- 우리사회는 영유아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고, 특히 범 죄발생, 빈부격차, 도덕성 부족, 경제적 위협 등이 중요 사회불안 요인으로 조사됨.
-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이었음.
 - 20-30대 핵심 수혜계층과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현실적 체감도는 다소 낮았음.

4. KICCE 수시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

가.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정책

-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정책과 관련한 수시 여론조사 결과, 우선 첫 기관 이용시기로 영유아 부모들은 대부분 만 2-3세로, 개월수로는 약 30개월이 적절하다고 보았음.
-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시간은 평균 8시간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유무에 따라 등하원시간과 적절이용시간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어린이집의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에 대한 현행 기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많다는 응답이 높았고, 현행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 기준은 작다는 응답이 많았음.
-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확충 계획은 90% 가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육료와 유아학비에 대한 부모 바우처방식과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서로 비슷하였으나, 현행방식 유지 의견이 약간 더 많았음.
- 영유아 부모들이 생각하는 어린이집의 적절 기본이용시간은 평균 9.23시간이었음.
 - 10시간 이상으로 현행 어린이집 종일제 12시간 이용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46.2%로 상당하였으며, 8시간 이하에 대한 의견도 46.2%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 특히 기본이용시간 이외의 추가 이용에 대해 부모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73.2%가 찬성하였음.

나. 가정 내 양육 및 일·가정 양립 정책

- 가정 내 양육과 일·가정 양립 정책 관련 수시 여론조사 결과, 먼저 자녀 돌봄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56.0%) 조부모에게 일정 부분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돌봄과 관련하여서는 20대의 경우에는 조부모에게 도움 받는 경우가 70%가 넘었음.
 - 경제적 지원과 가사지원에 있어서 20대의 경우에는 조부모 지원을 받는 비율이 40%가 넘게 나타남.
- 부모교육과 동단위로의 양육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취업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부모교육 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양육수당 지원 수준이 현재지원수준보다 높아야한다는 의견이 6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20대, 미취업, 비맞벌이 가구에서 높았음.
- 일·가정양립의 우선사항으로는 부모 육아휴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20대 연령에서 육아휴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반면, 40대는 수준 높은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특히 군(읍면지역)의 경우에 수준 높은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상대적으로 보육수요가 취약한 곳에 우수한 보육기관에 대한 수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일과 양육의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중 약 40%가 재직 중인 현 직장이 자녀를 키우기에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좋은 곳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5%에 불과함.
-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의견이 많았음.
 - 특히 일과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적절한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의 평균은 6.56시간으로 나타나 육아기에는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짧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5. 정책제언

가. 육아문화 개선 과제

- 저출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긍정적 가치를 전달하고 확산할 필요성이 있음.
- 출산 전 부모교육 의무화를 도입함과 동시에 교육 내용에 부모됨과 자녀 양육의 가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부모교육 참여 여건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등의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됨.
- 자녀양육 및 가사의 공평한 분담 의식 확산 노력이 필요함.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인정이 필요함.

나. 육아정책 개선 과제

- 영유아 보육·교육에 있어서의 국가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0·5세 전계층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유아학비 비용지원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보육과 유아교육에서의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부모가 가까운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저출산 심화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급체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용 수요와 공급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정부의 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지원 정책, 시간연 장형 보육료 지원(시간연장, 야간보육, 휴일보육 등), 시간제 보육료 지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다양한 비용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요구됨.
-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모와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가구특성에 따른 어린이집 적정 등하원시간과 적정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기본이용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하고, 가구 특성에 맞게 부모 자부담 등 비용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영유아수를 줄이고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가정내 양육 지원 내실화를 위한 양육지원센터의 동 단위 확대 및 양육수당이 현행보다 인상될 필요가 있음.
-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 양질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돌봄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여 10년 넘게 80조가 넘는 예산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삼식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은 문화적 요인인 가치관(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자녀양육비용, 경제적 환경,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 문제, 주거 환경, 생식 보건 수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가치관 중 특히 결혼관의 약화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경향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보육·교육비 및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로 측정된 자녀양육비용은 가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양육비 부담은 자녀 수 결정에도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주거불안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도 출산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무주택은 출산율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강하고, 주거비용 부담이 클수록 출산이 감소하고,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공급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은 가능한 선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만혼과 난임 역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유아교육 및 보육, 육아지원 정책으로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유아교육법),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기본계획(건강가정기본법) 등 여러 부처의 정책을 통해 0-5세 육아지원 분야(GDP 대비 1.01%)에 많은 투자를 하여 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대한민국정부, 2015: 20; 여성가족부, 2016: 10). 오히려 자녀의 양과 질의 대체 심화로 인해 자녀투자에 대한 효율성 차원에서 자녀수가 줄어들고, 청년세대는 최악의 실업난과 주거난 등으로 오히려 비혼, 만혼, 비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저출산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간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나 가정, 유아교육·보육 기관 등은 육아비용 부담 완화와 비용 지원에 관심이 더 많은 듯하다.

이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을 제도·비용 지원 중심에서 인식·문화 개선이라는 장기적 접근으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보육비용 경감에서 만혼·비혼 대책으로, 제도 도입과 비용지원 중심에서 장기적 접근으로서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문화의 전환으로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을 바뀌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소비주의적 육아문화와 인식, 자녀에 대한 투자로서 높은 교육열과 사교육 문화는 부모들에게는 육아를 통한 행복보다는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단순한 재정 지원 정책만으로는 이를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육아문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식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 등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육아문화는 단기간에 변화될 수 없는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인식개선과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16: 85). 이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 여론조사를 통해 육아에 대한 의식 조사와 함께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한다면, 중장기적 차원에서 육아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육아문화는 단기간에 변하기 어려운 반면, 육아의 방법, 형태 등의 방식은 시대, 세대, 유형 등의 사회적 변인에 따라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 속에서 육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활동도 요구된다. 육아정책은 모든 국민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함께 고민해야 하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육아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향후 육아정책의 투자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에 한정된 정부의 예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적합한 육아문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통하여 정책담당자와 정책수요자 간의 쌍방향 소통의 통로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한다면, 건강한 육아문화의 창출에 필요한 국민의 인식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부터 5개년에 걸쳐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가 연속과제로 수행되며 조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와 관련되는 현안 정책이나 가치관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정책 만족도나 효과성, 인식 및 태도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통하여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수시조사 형태로 실시하여 각 정책을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의견수렴 결과에 기초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향후 5년간의 여론조사를 통해 육아지원 정책에 따른 정책수요자의 만족도 및 인식과 체감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부차원에서 정책 및 예산을 조정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본 조사는 5개년도 과제로서, 1차년도에는 육아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식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2~4차년도에는 1차년도 조사설계를 토대로 육아정책 여론조사 및 국민 인식조사를 지속적·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육아정책 및 육아관련 여론과 인식의 추이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수요를 모니터링하고, 마지막 5차년도에는 1~4차년도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육아정책을 준비하는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 조사는 육아문화의 개선과 육아정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여론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육아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효율적 육아정책의 개발을 통해 정부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 분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오늘날의 육아문화와 육아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육아지원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 재설정과 나아가 건전한 육아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2. 연구 내용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와 관련한 정부 정책 동향, 언론기사 및 검색키워드, 선행연구를 분석 등을 통해 현안을 확인하고 관련 연구를 분석한다.

둘째, 여론조사를 설계하고 설문지를 구성한다. 다양한 변인의 사회계층에 대한 성별, 지역별, 연령별 등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상황에 따른 육아환경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설계를 한다. 이후 육아정책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현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육아정책 및 육아문화와 관련한 여론조사 문항을 개발한다. 또한 향후 5년간 실시되는 연구의 특성상 여론조사를 통해 인식 및 태도의 추세를 비교할 있도록 설문문항을 구성한다.

셋째, 육아정책 일반 및 당면현안 등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육아지원 정책은 저출산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재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지원 정책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기 여론조사를 통해 육아정책 전반 또는 주요 육아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의견 수렴 및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수시 여론조사를 통해서 육아정책 긴급 현안 및 이슈와 관련하여 해당 정책수요자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인식 또는 의견 수렴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정책수요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행복한 육아문화 형성을 위해 정책담당자와 정책수요자 간의 쌍방향 소통수단 및 통로로서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 모니터링단(i-POL)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섯째,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육아관련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정책과제 등을 제언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분석

육아정책 방향성 파악과 현안 주제 선정을 위해 관련 기본계획, 언론기사 및 검색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유아교육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의 주요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내 육아정책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여론형성의 핵심 주체인 언론에 보도된 기사(2016-2017년)와 일반 국민들의 육아 관심도를 검색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관련 선행연구를 KICCE i-POL사업,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사회통계조사(통계청),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나. 여론조사

1) 정기여론조사

가) 조사 절차

2017년 육아정책 여론조사는 전문조사업체 온라인 패널을 활용하여 실시되었다. 해당 패널은 총 1,266,76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성 42.1%, 여성 57.9%로 성비를 나타낸다. 이 중 13~19세 7.8%, 20~29세 37.4%, 30~39세 29.2%, 40~49세 17.2%, 50세 이상 8.4%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는 온라인 조사로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조사의 목표 조사 연령의 패널에게 조사 참여 안내 메일을 보냈다. 조사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하기 원하는 경우 목표 표본에 미달된 셀은 참여가 가능하며, 목표 표본이 이미 달성된 경우는 이미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조사 창이 닫히도록 설정하였다. 정기조사의 경우 2017년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었고, 수시조사의 경우 2017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다.

나) 표본 설계

2017년 정기조사 표본들은 <표 I-3-1>과 다. 해당 표는 2016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연령 및 성별로 제시한 결과로, 조사 모집단은 15세~74세 인구 40,225,441명이다.

<표 I-3-1> 2017년 정기조사 표본틀

단위: 명

전체		연령대					합계
		15~29	30~39	40~49	50~59	60~74	
서울 특별시	남	953,878	777,012	780,544	725,630	647,484	7,900,475
	여	957,305	768,981	793,407	772,681	723,553	
부산 광역시	남	334,216	237,511	263,379	283,667	273,071	2,801,686
	여	300,866	227,387	269,441	307,620	304,528	
대구 광역시	남	256,892	164,916	206,259	204,013	162,403	1,983,200
	여	217,744	161,333	214,094	210,461	185,085	
인천	남	286,685	224,206	248,376	245,674	169,317	2,315,319

전체		연령대					합계
		15~29	30~39	40~49	50~59	60~74	
광역시	여	263,588	211,993	244,800	241,575	179,105	1,188,690
광주광역시	남	160,907	108,336	128,651	112,946	85,086	
	여	150,405	106,615	128,305	113,250	94,189	1,231,202
대전광역시	남	178,333	111,699	128,453	117,439	89,391	
	여	154,707	107,988	129,509	117,899	95,784	928,664
울산광역시	남	124,247	91,851	100,210	103,305	66,449	
	여	95,679	82,557	101,300	96,870	66,196	9,792,970
경기도	남	1,219,994	958,361	1,114,062	992,656	682,579	
	여	1,118,434	925,002	1,094,778	951,437	735,667	1,195,526
강원도	남	155,717	92,420	121,759	132,411	116,716	
	여	122,521	85,644	113,255	128,065	127,018	1,237,725
충청북도	남	164,182	107,836	127,928	130,567	107,336	
	여	139,589	98,687	121,328	124,482	115,790	1,758,539
충청남도	남	229,426	174,869	192,066	175,903	142,784	
	여	200,702	155,241	170,432	162,794	154,322	1,410,662
전라북도	남	180,680	111,718	145,404	145,532	138,644	
	여	154,091	104,709	135,961	140,508	153,415	1,348,763
전라남도	남	153,242	106,639	141,667	151,312	146,526	
	여	125,905	97,318	124,107	139,590	162,457	2,068,749
경상북도	남	253,019	172,807	208,757	225,531	207,801	
	여	203,915	156,093	194,668	216,638	229,520	2,573,193
경상남도	남	310,450	237,702	282,565	276,141	219,650	
	여	253,000	217,473	270,050	265,120	241,042	470,078
제주특별자치도	남	55,999	42,035	55,078	48,862	38,801	
	여	50,014	40,667	50,809	46,035	41,778	40,225,441
합계	남	5,017,867	3,719,918	4,245,158	4,071,589	3,294,038	
	여	4,508,465	3,547,688	4,156,244	4,035,025	3,609,449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1603&conn_path=I3 (2017.11.29. 인출).

위의 <표 I-3-1>을 바탕으로 조사의 목표 표본을 설정하였다. 목표 표본 설정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별 인구통계로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우리 국민 전체를 조사 표본 전체 3,000 샘플에 대해 비례할당으로 설정하였다.

<표 I-3-2> 2017년 정기조사 목표 표본

전체		연령대					합계
		15~29	30~39	40~49	50~59	60~74	
서울특별시	남	70	57	59	54	52	593
	여	70	57	59	57	58	

단위: 명

전체		연령대					합계
		15~29	30~39	40~49	50~59	60~74	
부산광역시	남	24	17	20	21	22	208
	여	21	17	20	22	24	
대구광역시	남	19	12	15	15	13	146
	여	16	11	15	15	15	
인천광역시	남	22	16	18	18	14	174
	여	20	15	18	18	15	
광주광역시	남	11	7	9	8	6	82
	여	10	7	9	8	7	
대전광역시	남	12	8	9	9	7	89
	여	10	8	9	9	8	
울산광역시	남	9	6	7	8	5	67
	여	7	6	7	7	5	
경기도	남	93	71	84	76	56	746
	여	85	68	81	72	60	
강원도	남	11	7	9	10	10	90
	여	9	6	8	10	10	
충청북도	남	11	8	9	10	9	91
	여	10	7	9	9	9	
충청남도	남	14	11	13	12	12	118
	여	12	10	11	11	12	
전라북도	남	13	8	11	11	11	105
	여	11	8	10	10	12	
전라남도	남	12	8	11	12	12	106
	여	11	7	9	11	13	
경상북도	남	18	12	15	17	17	153
	여	15	11	14	16	18	
경상남도	남	23	17	21	21	18	195
	여	20	16	20	20	19	
제주특별 자치도	남	5	3	4	4	3	37
	여	4	3	4	4	3	
합계	남	367	268	314	306	267	3,000
	여	331	257	303	299	288	

다) 표본 배정

표본 설계를 통하여 2017년 육아정책 여론조사의 실제 표본은 다음과 같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목표 표본 수를 충족하지 못해 달라진 부분은 다음 음영 표시와 같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목표 표본 수와 달라진 이유는 온라인 조사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진행 중이어서, 50대 이상의 인구수가 많은데, 온라인으로 접근이 쉬운 연령층은 젊은 연령층이다.

따라서 패널의 가입 수가 20~30대가 현저히 많고, 서울, 경기, 인천 등의 패널 가입자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과 고 연령층에 대한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서, 목표 표본수와 상이하게 진행되었다.

〈표 1-3-3〉 2017년 정기조사 실제 표본

단위: 명

전체		연령대					합계
		15~29	30~39	40~49	50~59	60~74	
서울특별시	남	70	57	59	54	52	593
	여	70	57	59	57	58	
부산광역시	남	24	17	20	21	22	208
	여	21	17	20	26	20	
대구광역시	남	19	12	15	15	13	146
	여	16	11	15	20	10	
인천광역시	남	22	16	18	18	14	174
	여	20	15	18	18	15	
광주광역시	남	11	7	9	8	6	82
	여	10	7	9	8	7	
대전광역시	남	12	8	9	9	7	89
	여	10	8	9	9	8	
울산광역시	남	8	7	7	8	5	67
	여	7	6	7	7	5	
경기도	남	93	71	84	76	56	746
	여	85	68	81	72	60	
강원도	남	11	7	9	10	10	90
	여	9	6	8	12	8	
충청북도	남	11	8	9	10	9	91
	여	10	7	9	15	3	
충청남도	남	12	11	11	11	10	101
	여	10	5	9	15	7	
전라북도	남	13	8	11	11	11	105
	여	11	8	10	14	8	
전라남도	남	12	8	11	12	12	106
	여	11	7	13	18	2	
경상북도	남	18	12	15	17	17	153
	여	15	11	14	30	4	
경상남도	남	23	17	21	21	18	195
	여	20	16	20	28	11	
제주특별자치도	남	5	3	4	6	1	37
	여	4	3	6	4	1	
세종특별자치시	남	2	-	2	1	2	17
	여	2	5	2	-	1	
합계	남	366	269	314	308	265	3,000

전체	여	연령대					합계
		15~29	30~39	40~49	50~59	60~74	
		331	257	309	353	228	

주: 음영 표시는 목표 표본과 다르게 구성된 경우임.

라) 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은 응답자의 성별, 거주지, 연령, 자녀수, 학력, 가구소득, 직업 등 개인배경, 부모됨, 양육관, 결혼관, 육아행복감 등 육아문화와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3-4〉 KICCE POLL 정기 조사 내용

조사유형	영역	문항내용
정기조사	개인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 교육수준(본인, 배우자) 거주지역 - 맞벌이 여부 연령(본인, 자녀) - 한 달 평균 가구 총 소득 혼인 및 자녀 여부 - 직업(본인, 배우자) 자녀 수 및 자녀 연령 - 미취학자녀 이용 기관 등
	부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됨 인식 및 역할 - 부모역할의 실제
	양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에 대한 필요성 - 양육 태도 관련 질문 자녀 가치 - 자녀 양육 어려움 경험 이상 자녀 수 - 자녀 교육 관련 행태 성 구별에 대한 태도 - 자녀 교육관 부모자녀 관계
	결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 가치관 - 결혼과 출산 적정 자녀 수 - 자녀에 대한 필요성 양육 태도 - 자녀 양육 어려움 자녀 교육관
	육아 행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행복감 및 가치 - 육아의 경제적 가치 양육의 책임
	유아교육·보육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 교사 비용지원 정책 - 영유아 사교육 관련 의견 아동학대 관련 의견 - 세금 추가 부담 의사 육아지원 정책 희망 - 일·가정 양립 의견 무상보육·교육정책 만족도 - 저출산 정책 의견 추가 출산 - 아동수당 도입 의견 보육료 지불방식 - 안전한 사회 육아지원정책 전반적 만족도

주: 1) 정부 정책방향, 언론기사 및 검색 키워드,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영역 및 문항 내용을 도출하였음

2) 문항내용은 관련 선행연구(권미경 외(2016b, 2016c), 김은설 외(2016), 김은영 외(2016a, 2016b), 김정민 외(2014), 문무경 외(2016), 이미화 외(2013b), 이삼식 외(2015), 임소현 외(2015, 2016), 통계청(2016), ZERO TO THREE(2016)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2) 수시여론조사

가) 표본 배정

수시 여론조사 목표 표본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500명으로, 대상자가 현재 전국적으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패널 정보 중 기혼자 및 아이가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최대한 17개 시도에서 유효한 패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샘플링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패널수 자체가 서울 및 수도권, 5대 광역시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소도시 자체의 패널수 부족으로 적게 진행될 수밖에 없으나, 모니터링과 참여 독려를 통해 최대한 모집하고자 하였다.

나) 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 문항은 개인배경과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정책, 가정 내 양육,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의견 및 실태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표 1-3-5〉 KICCE POLL 수시 조사 1, 2 내용

조사유형	영역	문항내용
수시 조사	개인 배경	영유아 자녀 여부 - 맞벌이 여부 영유아 자녀와의 관계 - 영유아 자녀 연령 거주지역 - 영유아 자녀 이용기관 및 가정양육 여부 취업여부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정책 관련	적절한 기관 이용 시작 시기 - 직장어린이집 확대 계획 찬성여부 원하는 기관 이용 시간 - 기관 바우처 지급에 대한 의견 보육료 전계층 여부가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만족도 이용 시기에 미친 영향 - 적절한 기관 기본이용시간 의견 교사 1인당 적절한 영유아 수- 기본이용시간 외 추가 비용 부담 및 보육실 면적 의견 의사 국공립 기관 확대 계획 찬성여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수준 의견
	가정 내 양육	배우자 이외 자녀양육 참여자 - 양육수당 지원 수준 의견 부모교육 의무화 의견 - 가정 내 양육을 위한 정부의 우선 양육지원센터 도입 의견 정책
	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본인 직장 평가 우선 정책 - 영유아 가구에서 일·가정 양립을 일·가정 양립 정책 중 보완이 위해 적절한 근로시간 필요한 부분

주: 1) 정부 정책방향, 언론기사 및 검색 키워드,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영역 및 문항 내용을 도출하였음.

2) 권미경 외(2016c), 김은설 외(2016), 이미화 외(2013b)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수시조사 방법은 정기조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조사로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조사의 대상자 패널(영유아부모)에게 조사 참여 안내 메일을 보내, 조사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하기 원하는 경우에 한해 수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목표표본이 이미 달성된 경우는 이미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조사 창이 닫히도록 설정하였다.

다. 전문가 협의회 실시

여론조사 범위 및 내용의 설계와 적합성을 검토하고, 표집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육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처 정책담당자, 조사연구 전문가 중심의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라. KICCE POLL 홈페이지 구축·운영

홈페이지 구축·운영을 통해 주요 정책이슈와 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정책수요자의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를 마련하여 다각적인 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을 유도하였다. 먼저 KICCE POLL 홈페이지 구축·운영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 등 정책 수요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내 고객 친화적인(client-friendly) 온라인 제안 창구를 운영하여 일반국민 등 정책 수요자가 육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였다.

마. 부모 모니터링단(i-POLL) 모집·운영

육아정책의 가장 밀접한 수요자인 영유아부모 200명을 부모 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여, 향후 정부의 육아정책을 홍보하는 동시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부모 모니터링단 모집은 여론조사 시 참여여부를 물어 동의한 부모를 대상으로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 등을 수집한 후 개별 연락하여 모집하였다.

II. 육아정책 이슈 및 선행연구 분석

1. 육아관련 정부 주요 정책 방향

가. 저출산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4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이후 지난 10여년 간 정부는 국가책임보육 실현, 임신·출산 지원 강화, 일·가정양립 제도 확충 등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여 왔다(대한민국정부, 2015: 18). 특히 그동안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결혼·출산·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대응정책의 골간으로 하여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세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국회입법조사처, 2017: 15). 그러나 저출산 분야에 80.2조원(1차 19.7조, 2차 60.5조)의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은 그간의 정책적 대응이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국회입법조사처, 2017: 16).

이에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5: 37). 이를 위해 종전의 기혼가구의 보육 부담 경감에서 청년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으로의 전환과 함께, 제도 도입·기반 조성과 비용 지원 위주에서 사각지대 해소, 실천, 문화 등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5: 37). 또한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에서 정부정책 뿐만 아니라 민간·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5: 3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 과제와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1-1>과 같다.

〈표 II-1-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저출산 과제별 소관부처 및 육아정책 관련성

과제명	소관부처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고용부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고용부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고용부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고용부 외 4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고용부 외 1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교육부 외 2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고용부
○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청년·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	국토부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교육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국토부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국토부
□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임신·출산 사회책임시스템 구축	복지부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행복출산패키지)	복지부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복지부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복지부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복지부
여성건강 증진 강화	복지부
결혼·출산친화적 세제개선	기재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여가부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	법무부
포용적 가족관 형성	법무부 외 2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여가부 외 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여가부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복지부
○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아동이 행복한 사회	복지부 외 2
아동이 안전한 사회	복지부 외 1
□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 맞춤형 보육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복지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복지부 외 2

과제명	소관부처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교육부 외 1
○ 돌봄지원체계 강화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체계 강화	교육부
지역 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복지부 외 1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여가부
○ 교육개혁 추진	
적성·능력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교육부 외 1
공교육의 역량강화	교육부
사교육 부담 경감	교육부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교육부
□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 일·가정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일·가정양립 제도 이용권 보장	고용부
스마트 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고용부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여가부 외 1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고용부 외 1
○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강화	
중소기업 실천여건 확충	고용부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	고용부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고용부
○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	고용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고용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고용부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 검토	고용부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 민간·지역·정부 협력체계 강화	
사회 각 부문별 저출산 극복 운동 추진	복지부
국민 참여 통로 다각화	복지부
○ 홍보·인식개선 활성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	복지부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복지부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작은결혼식' 확산)	여가부
○ 중앙·지방의 추진기반 강화	
근거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제도 도입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 강화	복지부
지자체 인구정책 추진역량 강화	복지부

자료: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p. 194-199.

나. 육아문화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육아문화(the culture of child rearing)’는 아이를 기르는 것과 관련된 문화를 뜻하며, 아이를 기르는 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방식이면서 부모를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이 육아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질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 그들이 지닌 지식, 신념, 가치 및 태도를 포함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권미경·이정원·최효미·김혜진, 2016b: 25).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행복한 ‘육아문화’ 구축이 필연적이고, 이를 위해서 정부는 건강한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정부 가족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5. 12. 29).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과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을 거쳐 2016년,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II-1-2>와 같다.

<표 II-1-2>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주요과제

정책과제	
1.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1-1. 맞춤형 가족교육 지원
	1-2. 가족상담 활성화
	1-3. 가족여가활동 확대
2.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2-1. 맞벌이 가족 지원
	2-2. 한부모가족 지원
	2-3. 다문화가족 지원
	2-4. 취약·위기 가족 지원
3.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3-1.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3-2.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
	3-3. 가족돌봄 여건 조성
4.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 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4-1.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
	4-2.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4-3.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촉진
5.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5-1.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5-2. 임신부 배려문화 조성
	5-3. 행복한 육아문화 확산
	5-4.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6.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6-1. 가족정책 법·제도 정비
	6-2.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6-3. 새로운 가족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자료: 여성가족부(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p. 19.

<표 II-1-2>에서 볼 수 있듯이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이 중 세부과제로 ‘행복한 육아문화 확산’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예비부부 및 부모교육, 주요 매체를 통한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대안적 육아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여성가족부, 2016: 85).

육아문화 관련 연구는 양육에 대한 가치 및 전반적 문화 양상,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육아를 위한 소비 실태에 집중하고 있다. 육아문화 관련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미경·이정원·최효미·김혜진(2016c)의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 실태 및 육아 인식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대다수의 부모들은 육아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3.62점으로 가장 높이 평가하였고, 육아의 육체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 등에 대한 인식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권미경 외, 2016c: 73). 연구자는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서 영유아 부모의 양육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면적인 부모교육 기회의 확대, 육아정보 제공 방법의 다양화를 정책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가정 내 양육지원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아버지 양육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하였고, 사회와 더불어 함께 키우는 육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를 제안하였다(권미경 외, 2016c: 147-149).

또 다른 권미경 외(2016b)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긴다고 대체로 생각하고 있었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녀를 기르는 양육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다’라는 인식 정도가 높았으며, ‘자녀양육 비용으로 인해 부부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인식 정도가 높았다(권미경 외, 2016b: 169, 174). 또한 정부는 ‘적은 소비, 가치 있는 육아경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홍보해야 하며’, ‘육아비용을 중심으로, 합리적 소비를 안내하는 작은 육아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높은 인식 정도를 나타냈다(권미경 외, 2016b: 189). 이를 통해 연구자는 작은 육아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작은 육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기회 확대를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권미경 외, 2016b: 198-209).

다.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현황¹⁾

2017년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와 추진계획을 제시한 이정표이다. 계획에서는 이전의 국가중심의 민주주의에서 이제는 국민중심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인 국민에 의한 주권자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 또한 문재인정부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로 설정하였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국정전략별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중에서 특히 육아정책 관련하여서는 저출산 대응,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복지, 보육·유아교육, 안전, 환경, 통일 등 다양한 주제와 연관되어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육아정책과 관련 국정과제와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문재인정부 국가비전-목표-전략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문재인정부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에 따른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을 살펴보면 [그림 II-1-1]과 같다.

먼저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정전략으로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설정하였다. 둘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국정전략으로 내세웠다. 셋째, 육아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

1) 육아정책연구소(2017). 육아정책포럼 제53호(가을호) pp.28-33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회,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 국가를 국정전략으로 삼았다. 넷째, 국정목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한 국정전략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다. 마지막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국정전략으로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가 있다.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15.

[그림 II-1-1] 문재인정부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2) 육아정책관련 국정과제

<표 II-1-3>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특히 육아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 근절 및 안전(국정과제 14, 54),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국정과제 17), 4차산업혁명 선도(국정과제 33), 0-5세 아동수당 10만원 지급(국정과제 42) 및 의료비 부담 경감(국정과제 44),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30% 신혼부부우선 공급,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국정과제 48),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및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국정과제 48, 49), 취약계층 등 다양한 가족 지원(국정과제 51, 65), 교육자치 강화(국정과제 74, 76), 통일공감대 확산(국정과제 94) 등이 있다.

<표 II-1-3> 문재인정부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현황

국정목표	국정전략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주관부처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1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사회적 약자 보호) '17년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 수립 총력 대응, 치안지표**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 젠더폭력 근절(성·가정·여성보복 폭력),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 ** 가정폭력 현장대응률, 성폭력 미검률, 청소년보호지원율 등 각종 치안지표 개선	경찰청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복지부
	2-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역기능 대응)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미래부

국정목표	국정전략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주관부처
	는 4차 산업혁명	구축, 신정보격차 해소 계획 수립·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	
	3-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p>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18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p> <p>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수 '17년 43.7만개에서 '22년 80만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일자리 유형에 따라 차등)</p> <p>44.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 (가계부담 대폭경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 '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p> <p>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 공공성 강화) '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p>	<p>복지부</p> <p>복지부</p> <p>복지부</p> <p>복지부</p>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p>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 (보육·양육 지원 강화) '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0~5세, 월 10만원),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to4 더불어 돌봄) ○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 - '17년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 중점 추진</p> <p>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을 확대('17년 25% → '22년 40%) ○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18년), 전문교육과</p>	<p>복지부</p> <p>교육부</p>

국정목표	국정전략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주관부처
		<p>정 운영, 자격체계 개편 추진(교육부·복지부) * 추진방법 및 일정은 국가교육회의에서 협의·조정</p> <p>○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방안 병행 추진 - 부처 간(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등),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밖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 개발·확산(17년~)</p>	
		<p>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p> <p>○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초중고교 필수교과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문예체 교육 활성화</p>	교육부
		<p>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p> <p>○ (사회 취약계층 교육 지원) 특수교사·학교(급) 확대,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강화 추진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거점센터 지원(18년부터 6개 권역) -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18년)</p>	교육부
		<p>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p> <p>○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에서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가족 정책과 아동·청소년 업무 연계·통합 추진</p> <p>○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시설 퇴소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주거·자립지원 강화 - 시설보호에서 가정 내 보호로 정책 방향 전환, 통합 사례관리 시범운영</p>	여가부
		<p>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p> <p>○ (지식정보·융합 교육)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 및 선도 핵심교원 육성(21년, 1만명),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 제공(20년) 및 교육용 오픈마켓 구축·운영(18년~)</p> <p>○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 조성)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초·중등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유아·특수 등) 확충,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p> <p>○ (학교 노후시설 개선) '18년 학교시설 개선 종합계획 수립,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분필철관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낡은 학교환경 개선,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학교미세먼지대책 마련(18년)</p> <p>○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18년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p>	교육부

국정목표	국정전략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주관부처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치 마련('18년) - 유치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초등 생존수영 교육 연차적 확대 운영('17년 초등 3학년~5학년→ '20년 초등 전 학년)	
	3-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등록(∼'30년) 의무화 및 영업 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 승인제 도입('18년) ○ (생활주변 위해·불편 적극 해소) 층간소음·빛공해 등 생활불편 해소 및 지반침하·환경오염 물질, 방사선 등 생활환경안전 확보 ○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강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 구축(3천건),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생산(잔류물질 관리 강화 등), 수입(무검사 역류제 도입 등), 제조·유통(HACCP 의무적용 확산), 소비(식품표시 강화) 등 전 주기적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및 범정부적 기본 계획 수립 ○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복지 구현)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의 안전과 영양을 지원하고, 식품사고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식품안전 소비자 권리 강화	환경부· 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민감계층 등 보호 강화) 오염우심지역 특별관리, 노인·어린이 맞춤형 대책 추진 - '19년 배출원이 밀집한 충청·동남·광양만권 특별관리지역 지정	환경부
	3-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 (한부모가족 자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 단계적 인상·확대 - 자립의지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 지원 패키지* 도입 * 교육·취업과 돌봄(육아)·주거·현금지원 등을 사례관리사가 전담 관리 ○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등 제도 개선 ○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및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 도모 - 일반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실시 ○ (취약가족 지원) 취약·위기가족 등 지원 서비스 확대로 가족해체 예방	여가부
	3-5. 자유와 창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국정목표	국정전략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주관부처
	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 있는 삶 보장)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공휴일 민간 적용 및 1년 미만 근무 연차휴가 보장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 (육아·돌봄 지원 확대)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에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한 '10 to 4 더불어 돌봄', 질병·사고·노령 가족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제도 등 추진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4-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능 지방이양) '18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하여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급 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이양사무 발굴과 사무배분 사전협의제 도입 	행자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17년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19년) ○ (교육부 기능 개편) '17년에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 및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시도교육청 등) 구성 ○ (단위학교 자치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17년), 유치원 포함 초·중고 학교 학부모회 지원 확대 ○ (현장과의 소통·협력)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등 현장 소통 기회를 확산하고, 교육현장과의 교류 활성화 및 교육정책이력제 확대('17년) 	교육부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운영으로 통일교육의 주요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제고 	통일부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함.

2. 언론기사 및 검색 키워드 분석

본 절에서는 1절에서 제시한 육아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더해, 여론형성의 핵심 주체인 언론의 기사내용을 분석하고,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일반 국민들의 육아관련 관심도를 분석하였다.

가. 언론기사 키워드 분석

최근의 육아정책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각종 신문 및 일간지에 ‘육아’, ‘저출산’, ‘유아교육’, ‘보육’,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검색되어 수집된 기사의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의 육아정책 동향 게시판에 게시되고 있는 기사였으며, 이중 단순 행사 홍보, 부처 보도내용 전달 등의 기사를 제외한 1,674건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기사에서 주요 키워드를 설정하였으며, 키워드는 총 2,321개였다. 2,321개 키워드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상위 30개의 키워드는 다음의 <표 II-2-1> 같다.

<표 II-2-1> 육아정책 관련 키워드 분석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저출산	226	보육대란	33
어린이집	144	아동학대	32
누리과정	106	교육부	30
누리예산	103	교육감	30
맞춤형보육	97	보육료	26
유치원	82	보육정책	26
육아휴직	62	아동수당	26
사립유치원	61	직장어린이집	26
사교육	60	보건복지부	24
유보통합	57	워킹맘	23
국공립어린이집	49	황혼육아	22
남성육아휴직	48	작은 육아	21
교육청	44	무상보육	20
보육교사	42	안전	20
남성육아/아빠육아	42	육아	18

육아정책 관련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키워드는 저출산이다. 국가차원에서 10여년 전부터 육아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 추진되어 오면서 핵심 관련어가 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육아정책에 있어서 저출산이 핵심 목표 중 하나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또한 수년간 논란이 되어온 누리예산과 함께, 누리과정,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감, 보육대란 등이 함께 키워드 빈도 상위권에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남성)육아휴직, 직장어린이집, 남성육아,

워킹맘 등도 주요 키워드였으며, 영유아 자녀에 대한 투자와 양육비 부담 관련 키워드로 사교육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2016년 이슈로서 맞춤형 보육과 더불어 지속적 사회적 관심사인 유보통합, 아동학대 및 안전, 보육교사, 황혼육아, 작은 육아 등도 주요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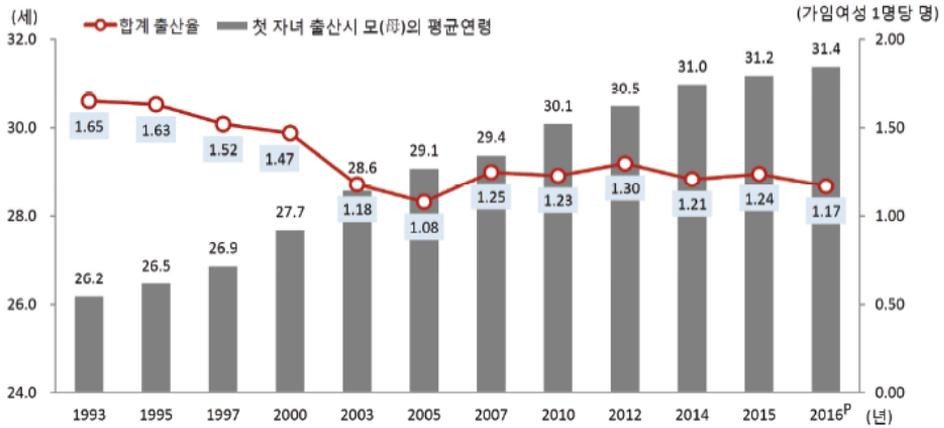
나. 검색 키워드 분석

다음으로 언론기사 검색을 통해 상위 빈도로 추출된 일부 키워드에 대하여 관련된 키워드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해당 이슈들은 2017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언론 및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내용으로 보아, 주요 현황과 화제가 된 시기 파악, 상대적 검색 관심도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분석을 위해 ‘빅카인즈 서비스²⁾’를 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빅카인즈 서비스’ 중 ‘시각화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여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관어 분석’은 검색어와 연관된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문서 내에서 핵심 단어를 추출하여 문서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기법)로 보여주는 형태로서, 각 키워드가 뉴스 내에서 많이 언급될수록 크게 나타난다.

1) 저출산

통계청은 2017년 3월, ‘2016 한국의 사회지표’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합계 출산율을 1.17명으로 발표하였다(통계청 보도자료, 2017. 3. 23). 합계출산율 1.17명은 2005년 1.08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통계청 보도자료, 2017. 3. 23). 실제로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 이후 지속적으로 반등세를 유지하여, 2012년 1.30명까지 높아졌으나, 2016년에 다시 1.1명대로 내려앉았다(그림 II-2-1 참조). 또한 첫 자녀 출산 연령이 2016년 31.4세로, 20년 전인 1997년 26.2세, 10년 전인 2006년 29.4세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빅카인즈 서비스’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수집한 뉴스로 구성된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뉴스 분석 서비스 시스템임(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1).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3. 23). “2016 한국의 사회지표”

[그림 II-2-1] 합계출산율 및 첫 자녀 출산 연령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정부는 2016년 9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함과 동시에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9월에 발표된 저출산 대응 정책은 다음 <표 II-2-2>와 같다.

<표 II-2-2> 저출산 보완 대책 주요 내용('16. 9. 발표)

보완대책 핵심과제	내용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시술비 지원금 인상 및 시술 횟수 추가 지원
둘째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으로 전환 추진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상한액을 ‘17.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근로자 평균임금 70%)으로 50만원 인상, 남성육아휴직 확산 가속화 -두 자녀 이상 근무지 전보 우대제 확산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연계, 영유아(0~6세) 두자녀 가구에 도 우선입소 확대 추진, -맞벌이 3자녀 가구의 경우 국공립 등 어린이집 입소 최우선권 부여(대기순서 등 무관), 맞벌이 아닌 3자녀 가구도 입소배점을 현재의 2배로 대폭 상향(100→200점)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기회 확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넓은 면적(50㎡ 이상) 3자녀 이상 가구 우선 배정, 3자녀 주택특별공급시 세 자녀 기준에 그간 인정되지 않았던 ‘태아’, ‘입양’ 포함

보완대책 핵심과제	내용
저출산 위기 극복 거버넌스 강화	-지자체 저출산 대응 평가체계 신설 및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 지자체 출산지도 개발 -가족문화,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경제계·종교계·시민사회 등 공동캠페인 대대적 확산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8. 24). “9월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 시급히 추진한다.”

또한 2017년 3월,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3. 6).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16~’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보완계획 수립을 위해 2017년 3월 24일,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출범시키기도 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3. 24).

2017년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8월,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민간 주도의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개편되고, 도전적 agenda 제시와 범부처 대책 조율을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전담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8. 14). 이를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개정안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설됨과 동시에 민간위원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독립 사무기구가 신설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8. 14).

본 연구를 위해 ‘저출산’을 검색한 결과, 연관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그림 II-2-2]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이 ‘저출산’은 ‘고령화’와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인구절벽’,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2-2] ‘저출산’ 연관 키워드

2) 누리과정/누리과정 예산/보육대란

2011년 9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교육과정을 통합한 ‘5세 누리과정’을 고시하였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 9. 5), 이듬해 누리과정을 3, 4세로 확대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1. 18).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는 의미와 동시에 유아학비·보육료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1. 18).

3, 4세 보육료·유아학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까지는 국고, 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하여 지원하였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1. 18). 그러나 2015년 11월,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상황으로 인하여 2016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정부와의 갈등이 깊어졌다(교육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1. 25). 그리고 이듬해 역시 일부 지자체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여 또 다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2. 5).

결국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4조를 2018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다(중앙일보, 2017. 5. 26).

본 연구에서 ‘누리과정’을 검색한 결과, 최근 관련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크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관련 키워드로 꼽혔다.

[그림 11-2-3] ‘누리과정’ 연관 키워드

3) 맞춤형 보육

정부는 2016년 7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종일반과 맞춤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4. 25). '맞춤형 보육'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종일반과 맞춤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말하며,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의 영아에게는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시간 종일반(7:30~19:30)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6시간 맞춤형(9:00~15:00) 서비스와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7: 309).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 이용대상자는 다음 <표 II-2-3>과 같다.

<표 II-2-3> 맞춤형 보육 종일반 이용 기준

대상		기준
부 모 취 업	임금근로자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육아휴직자는 제외)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매출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자
	농어업인	-농(어)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보유한 자
	무급가족종사자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로하는 자
부모 구직, 취업준비		-구직급여수급자, 정부지원 직업훈련 참여자 등
돌 봄 필 요 가 구	가족장애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가 장애가 있는 경우
	다자녀	-자녀 3명 이상 가구
	임신, 산후관리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모(母)가 임신 중인 경우, 모의 임신 전체 기간과 출산 후 1년까지 종일반 지원
	한부모 가정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편모, 편부, 조손가구
	가족 입원·간병	-아동의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가 장기입원(1개월 이상)한 경우
	부모 학업	-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자
	부모 장기부재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 일정기간 이상 부재한 경우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구	
기타	-기타 상기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일반 이용 필요한 경우	

주: 36개월 미만 2자녀 가구일 경우 다자녀로 인정(머니투데이, 2016. 6. 26)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4. 25).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맞춤형 보육은 도입 당시부터 집단 휴원까지 이어지는 등 일부 어린이집의 거센 반발과 전업주부와 취업모의 편 가르기라는 등의 갈등이 컸다. 결국 정부는 추가로 '맞춤형보육 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어

린이집에서 맞춤형 자격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허위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장 취업 등을 유도하는 등 종일반 편성을 위한 부정행위 사례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임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7. 10).

‘맞춤형 보육’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역시 ‘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종일반 충족을 위한 일자리 관련 내용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수급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도 관련 키워드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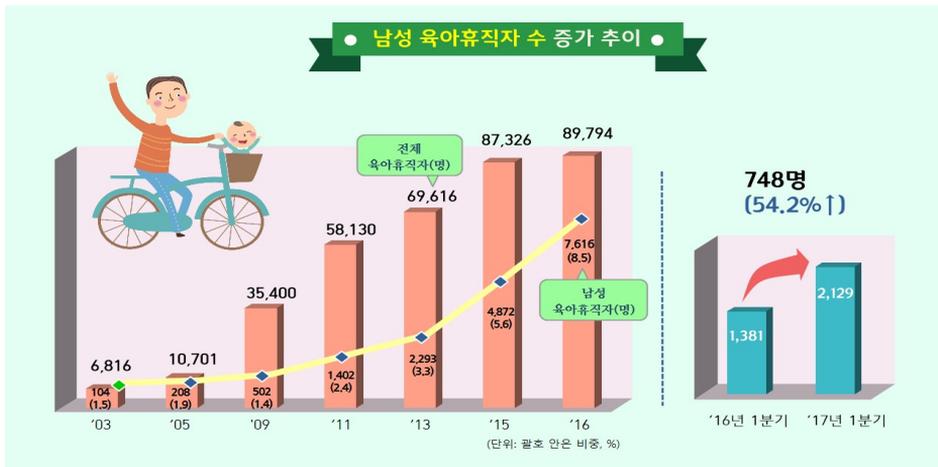
[그림 11-2-4] ‘맞춤형 보육’ 연관 키워드

4) 육아휴직

최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2002년 3,763명, 2005년 10,700명, 2008년 29,145명, 2011년 58,137명, 2013년 69,616명으로 증가한 점과 출산전후휴가자 수 대비 여성 육아휴직자 수의 비율이 2002년 16.6%에서 2008년 42.0%를 지나 2013년에는 74.3%에 이르러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사용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추세”(고용노동부, 2013; 안희란, 2015: 53, 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a: 32에서 재인용)이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정책적으로는 2014년 1월 14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어, 근로자의 육아휴직 가능 연령이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4. 1. 14). 이는 2010년 육

아휴직 대상 연령이 3세에서 6세 이후로 변경된 이후 처음 생겨난 연령 변화이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4. 1. 14). 또한 2014년 9월, ‘아빠의 달(보통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아빠가 나중에 하게 되므로 아빠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의미)’ 실시,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60%),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안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4. 9. 30).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 3월,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동기 대비 54.2% 증가하였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10.2%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7. 4. 20).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7. 4. 20). 아빠육아휴직, 전체 육아휴직자의 10% 돌파.

[그림 11-2-5]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한편 2017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7. 8. 21). 이를 통해 정부는 육아휴직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의 효과를 갖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육아휴직 급여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2-4〉 육아휴직 급여 지원 연도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인원	남성	비율
2010년	41,729	819	2.0
2011년	58,130	1,402	2.4
2012년	64,069	1,790	2.8
2013년	69,616	2,293	3.3
2014년	76,833	3,421	4.6
2015년	87,326	4,872	5.6
2016년	89,794	7,616	8.5
2017년 7월	52,435	6,109	11.7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7. 4. 20). 아빠육아휴직, 전체 육아휴직자의 10% 돌파.

〈표 II-2-5〉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기업별 현황

구분	합계	지원인원(명,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인원	비율	소계	비율
2010년	41,729	20,322	48.7	21,407	51.3
2011년	58,130	28,904	49.7	29,226	50.3
2012년	64,069	30,893	48.2	33,176	51.8
2013년	69,616	32,672	46.9	36,929	53.1
2014년	76,833	35,788	46.5	41,095	53.5
2015년	87,326	40,730	50.1	46,596	49.9
2016년	89,794	41,663	46.4	48,131	53.6
2017년 7월	52,435	24,926	47.5	27,509	52.5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7. 4. 20). 아빠육아휴직, 전체 육아휴직자의 10% 돌파.

〈표 II-2-6〉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 현황('14. 11월부터 시행)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전체	남성	전체	남성	전체	남성
지원인원(명)	1,345	1,171	2,703	2,396	2,404	2,124

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 첫째 아이 대상 육아휴직 시 150만원, 둘째 아이 대상 육아휴직 시 2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7. 4. 20). 아빠육아휴직, 전체 육아휴직자의 10% 돌파.

최근 '육아휴직'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출산휴가'가 관련 키워드로 꼽혔고,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80%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이 통과되며 '통상임금' 역시 높은 빈도로 인출되었다.



[그림 11-2-6] ‘육아휴직’ 연관 키워드

5) 사교육

사교육이란 용어가 우리나라 현대 교육사에 최초로 나타난 것은 1962년으로, 이는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공교육과 구별되는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다(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 2016b: 3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학령기 아동 뿐 아니라 영유아기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낸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치하여 운영하는 영어학원이나 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등의 반일제 이상 학원을 비롯하여 피아노, 미술, 발레, 수영 등의 시간제 학원, 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학습지 등 종류와 방법이 다양하다(김은영 외, 2016b: 15)

유아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은 널리 알려져 있다. 김정원과 이정아(2002)의 연구에 의하면 유치원 내 방과후 교육에 참여한 유아가 참여하지 않은 유아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유치원 원장들의 보고로 이루어진 우남희·백혜정·김현신(2005)의 연구에서도 조기 사교육을 받은 유아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주의산만 및 끈기 부족, 이기적 성향,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의식, 자율성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렇듯 아동에게 사회·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고 있는 사교육을 억제하고자 사교육 경감 정책을 꾸준히 집행 중이고, 이와 더불어 사교육비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대상으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영어유치원 등의 용어 사용을 금하고 있고,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유치

원의 특성화 프로그램 모두 오후 시간대에 참여를 희망하는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김은영 외, 2016b: 42).

사교육의 경우 ‘교육부’와 관련 정책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절대평가’ 등이 관련 키워드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다는 주로 대학 입시와 관련된 내용이 관련 키워드로 꼽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작용에 대한 내용도 관련되어 나타났다.



[그림 11-2-7] ‘사교육’ 연관 키워드

6) 유보통합

유아교육·보육 통합(이하 ‘유보통합’) 논의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2005년 이후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육아정책연구소(전 육아정책개발센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이미화 외, 2013a: 7). 유보통합의 목적은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0~5세 영유아의 발달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이미화 외, 2013a: 8). 2013년 5월 유보통합위원회가 출범되었고, 2014년 2월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발족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보통합에 대한 3단계 계획을 마련했다(그림 11-2-8 참조).

- ▲ (1단계) 정보공시, 평가체계, 재무회계규칙 등 품질개선 기반 구축·조정
- ▲ (2단계)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규제·운영환경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 ▲ (3단계) 교사, 재원, 관리부처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5. 9. 2).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2세 유치원 취원, '16년 시범사업 후 단계적 실시.

[그림 11-2-8] 유보통합 3단계 계획

이후 2015년 1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가 통합되고, 정보공시가 통합 되었으며(교육부 보도자료, 2015. 9. 2),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2세를 유치원에 취원시키는 등 통합의 과정이 이어져 왔다.

유보통합의 연관 키워드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외에도 유아교육과 교육부, 그리고 ‘이원화’ 및 ‘누리과정’ 등도 역시 관련된 키워드로 나타났다.



[그림 11-2-9] ‘유보통합’ 연관 키워드

7) 아동학대/보육교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다음 <표 11-2-7>과 같다.

<표 11-2-7>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료: 아동복지법 제17조 [법률 제13259호, 2015.3.27., 일부개정, 2015. 9. 28. 시행]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만 6세 이하 아동은 전체 피해 사례 중 28.5%에 해당하였다. 영유아기에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자기 방어 능력이 없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학대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 영유아 학대 비율은 더 높을 수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김은영·박원순·이재희·이혜민, 2016: 24에서 재인용).

〈표 11-2-8〉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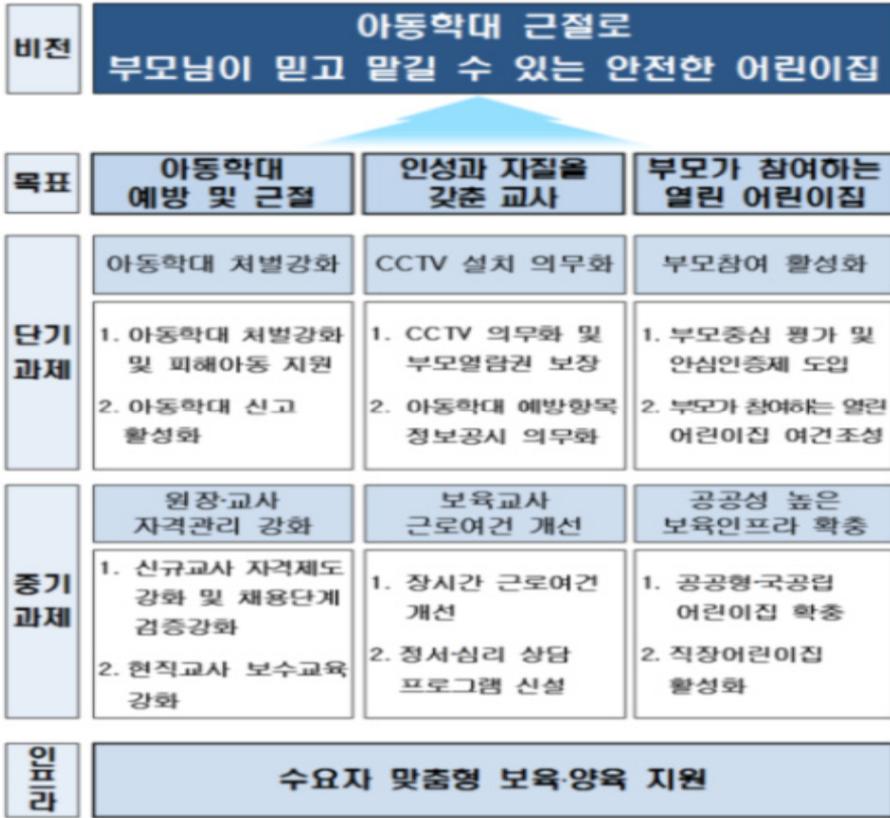
구분	1세 미만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7세	계
건수	344	312	457	543	570	485	628	2,123	2,289	2,600	1,364	11,715
(비율)	(2.9)	(2.7)	(3.9)	(4.6)	(4.9)	(4.1)	(5.4)	(18.1)	(19.5)	(22.2)	(11.6)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106.

<표 4.2>를 재구성함.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이 잇달아 벌어짐에 따라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실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2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 비율은 2.2%였으나, 2014년에는 3.9%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김은영 외, 2016a: 26에서 재인용).

특히 지난 2015년 1월,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해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1).



자료: 보건복지부(2015. 1.).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안. p. 3.

[그림 11-2-10]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이중 보건복지부는 특히 보육교사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우수한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목표로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 밝혔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 28). 또한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을 지원하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교사의 결혼·연가 등에 한해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확대하여 직무교육 시에도 파견할 계획이라 밝혔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 28).

‘아동학대’와 관련된 키워드로는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크게 보도됨에 따라 ‘어린이집’이 크게 나타났고, 이외에도 ‘특례법 위반 혐의’와 ‘징역형’ 등 실제 법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 등이 연관 키워드로 나타났다.



[그림 11-2-11] ‘아동학대’ 연관 키워드

8)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6: 6). 직장내 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노력은 10여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2. 12. 31), 이후 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을 통하여 관련 법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2017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현재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고,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7).

가장 최근 발표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은 전년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으며, 이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 노력과 더불어 2016년 1월 1일부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및 지자체의 이행명령 등 직접적 조치가 시행된 결과로 보여진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4. 28).

〈표 II-2-9〉 사업장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현황('16.12.31일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의무사업장 (A=B+C)	이행(B)			미이행(C)	
		계	설치	위탁		
합계	1,153	940	729	211	213	
	(100)	(81.5)	(63.2)	(18.3)	(18.5)	
국가기관	108	102	98	4	6	
	(100)	(94.4)	(90.7)	(3.7)	(5.6)	
지자체	143	131	105	26	12	
	(100)	(91.6)	(73.4)	(18.2)	(8.4)	
학교	국공립	22	17	8	9	5
		(100)	(77.3)	(36.4)	(40.9)	(22.7)
	사립	68	46	18	28	22
		(100)	(67.6)	(26.5)	(41.2)	(32.4)
대학 병원	국공립	17	14	11	3	3
		(100)	(82.4)	(64.7)	(17.6)	(17.6)
	사립	40	32	19	13	8
		(100)	(80.0)	(47.5)	(32.5)	(20.0)
기업	755	598	470	128	157	
	(100)	(79.2)	(62.3)	(17.0)	(20.8)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4. 28).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등 130개 사업장 명단 공표.

직장어린이집 관련 키워드로는 일부 지역 지자체와 실제 '직원들', 그리고 '중소기업', '산업단지' 등 기업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2-12] '직장어린이집' 연관 키워드

9) 기타(육아, 행복)

다음은 '육아'와 '행복'을 동시에 검색한 결과, '저출산'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보육사업 지원'이 높은 빈도로 출력되었다.



[그림 11-2-13] '행복, 육아' 연관 키워드

3. 여론조사 관련 선행연구 사례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육아정책에 한정하여 일반 국민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육아정책연구소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국민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이를 「KICCE i-POL 사업」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를 통하여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육기관 등 현장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의견을 육아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1999년부터 우리나라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태도와 국민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KEDI POLL」을 12년째 운영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1977년부터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 조사에서는 교육 관련 실태 및 의견 등을 포함하여 조사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육아정책 관련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수행해왔다. 선행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KICCE i-POL 사업

육아정책연구소는 정부의 육아정책정보를 부모와 현장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동시에 육아정책 연구과제 및 사업을 개발하는 과정에 다양한 관련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와 학부모 및 현장을 연계하는 양방향적인 의사소통 창구를 구축·운영하게 되었다(문무경·김은설·최혜선, 2007: 1). 본 사업은 KICCE i-POL이라는 이름으로 2007년부터 운영해왔으며, 사업 운영 시기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나 주요 사업은 육아 관련 정책정보 공유, 우수제안 제도 운영, i-POL 모니터링단 및 서포터즈 운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본 사업에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최신 육아정책정보를 정리하여 KICCE i-POL 홈페이지에 게시해왔다(이정림·장명림·김문정·한영숙, 2011: 36). 또한 KICCE i-POL 우수제안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본 제도는 2013년도까지는 i-POL 모니터링단만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접수 받으며 진행해왔으나, 2014년부터는 일반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i-POL 홈페이지에 과제제안/정책제안 게시판을 개설하여 상시 의견을 받는 것으로 확대되었다(육아정책연구소 전략기획센터, 2015: 3).

한편 본 사업에서는 사업 수행연도에 따라 간헐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2011년에는 i-POL 모니터링단 위원 중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이정림 외, 2011: 7~25). 설문에는 육아정책연구소 및 i-POL 사업,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의견 등이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정책 수요자들은 2011년 당시 육아정책에 대해 26.7%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73.3%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육아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지만 그 다음해인 2012년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5세 누리과정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3%가 기대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더불어 전체 응답자의 3/4 이상은 만 3, 4세 공통과정이 도입되기를 기대하였다. 아동지원사업 또는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에 바라는 점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게 한 결과, 다양한 집단에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보육·교육기관에서의 교사 질 제고 등을 공통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여론조사(KEDI POLL)은 지난 1999년부터 수행되어 왔으며, 2016년에는 11차 연구를 수행하였다(임소현·김홍주·한은정·황은희·정민지, 2016: 5). 본 조사는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가 주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하고, 최근의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임소현·김영혜·김홍주·조옥경·안영은, 2015: 18).

조사 모집단은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로 한다(김정민·양승실·이선호·김일혁·이슬아, 2014: 11). 1999년 1차 조사부터 2010년 5차 조사까지는 조사원 가구 방문 조사를, 2011년 6차 조사부터 2012년 7차 조사까지는 조사원 개별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고 2013년 8차 조사부터는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KEDI POLL의 조사내용은 다음의 <표 II-3-1>과 같다. 조사내용은 크게 응답자의 개인 배경, 교육 일반에 대한 고정문항과 교육현안에 관한 유동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정문항과 유동문항의 비율은 8대 2를 원칙으로 구성한다(임소현·김홍주·한은정·황은희·정민지, 2016: 12). 문항 개발 시 국내 주요 6대 신문에 게재된 교육정책과 관련한 기사를 분석하여 유동문항(신규문항)으로 포함시켰다.

<표 II-3-1> KEDI POLL 조사 내용

문항	내용	
개인배경	-성별 -거주지역 -연령 -자녀의 수(영·유아, 유/초/중/고, 대학/대학원, 직장인(자영업 포함)/기타 구분)	-교육수준 -맞벌이 여부 -한 달 평균 가구 총 소득 -직업(본인, 배우자)
고정문항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등에 대한 국민의 교육의식 및 태도가 조사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내용	
유동문항	최근 이슈로 등장하는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	

자료: 임소현 외(201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6), p. 12. 한국교육개발원.

6-11차 조사까지의 연도별 조사내용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II-3-2>와 같다. KEDI POLL의 경우 매 조사마다 기존문항과 현안중심의 신규문항을 추가하여 연도별로 조사내용에 변동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 실시한 KEDI POLL의 11차(2016년) 조사내용 중 신규문항은 11개이다.

<표 II-3-2> KEDI POLL 조사 내용(2011-2016년도)

(○: 기존문항, ●: 신규문항)

조사항목	조사내용	6차 2011년	7차 2012년	8차 2013년	9차 2014년	10차 2015년	11차 2016년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 의 질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	○	○	○	○	○
	초·중등학교에 대한 전반적 평가	○	○	○	○	○	○
	학교가 'A'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	○	○	○	○	○
	학교 선택시 고려사항	○	○	○	○	○	○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 문제		●	○			
	가장 좋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의견					●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의견	○	○	○	○	○	○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	
교사	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	○	○	○	○	○	○
	교사에 대한 신뢰도	●	○	○	○	○	○
	교사 월급 결정 기준	●	○	○			
	학업성적에 따른 교사 월급 반영 정도	●	○	○			
	자녀의 장래 직업으로 교사 희망 여부	●	○	○	○		
	교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	○	○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 의견					○	○	
교육과정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내용	○	○	○	○	○	○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목	○	○	○	○	○	○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
학생생활	교육벌에 대한 찬반의견	●	○	○	○	○	○
	학업·경쟁 스트레스 정도		●	○	○	○	○
	학교 폭력의 원인		●	○	○	○	○
	정부 및 학교의 학교폭력 해소 노력	○	○	○	○	○	○
	IT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	○	○	○	○	○
	학생의 성공 척도	●	○	○			
	학생의 학습수준(성적) 결정요인	●	○	○	○	○	○
	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		●	○	○	○	○
	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					●	○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의사	●	○	○	○		

조사항목	조사내용	6차 2011년	7차 2012년	8차 2013년	9차 2014년	10차 2015년	11차 2016년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의견	○	○	○	○	○	
	영어 공교육 시기	○	○	○	○		
	학칙 제·개정시 의견 반영의 우선주체					●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큰 교육 정책	○	○	○		○	○
	사교육의 근본 원인					●	
	EBS 수능연계(70% 이상) 정책 유지에 대한 의견					●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학교의 역할						●
	과정중심평가 강화에 대한 찬반의견						●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	○	○	○	○	○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	○	○	○	○	○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점수위주 입시제도 보완 효과	●	○	○			
	대학입시 중요 반영 항목	●	○	○	○	○	○
	대입에서의 수시 및 정시 모집인원 비율에 대한 의견						●
고교정책 및 대입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	●	○	○	○	○	○
	고등학교의 신입생 자체선발에 대한 찬반의견					●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
	일반고 내에서의 직업연계교육 확대 등 직업교육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
	대입에서의 수시 및 정시 모집인원 비율에 대한 의견						●
	무상급식 지원 범위	○	○	○	○	○	○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순위	○	○	○	○	○	○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찬반의견		●	○	○	○	
	국가재원투자 우선순위 (유아,고교,대학)		●	○	○	○	○
	바람직한 영유아 지원방식					●	
	지방교육재정의 축소·확대에 대한 의견					●	○
	대학교육의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	○	○	○	○	○
	대학교수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	○	○	○	○	○	○
	대학재정의 투명성	●	○	○	○	○	
대학교육	정부의 지방대학 우선 지원 정책			●		○	○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	
	대학등록금 인하방안에 대한 찬반의견	●	○	○			

조사항목	조사내용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교육관	자녀대학 입학시 등록금 부담 의향	●	○	○	○		
	자녀대학 졸업 후 구직성공 가능성	●	○	○	○		
	교수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	○
	대학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지표					●	○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	○	○	○	○	○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	○	○	○	○	○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수준	●	○	○	○		
	자녀의 마이스터고 진학에 대한 의견	●	○	○	○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한 의견	●	○	○	○	○	○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	○	○	○	○	○	
	사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	○	○	○	○	○	
	입시경쟁에 대한 미래 전망	●	○	○	○	○	
	대학 서열화에 대한 미래 전망	●	○	○	○	○	○
	학벌주의에 대한 미래 전망	●	○	○	○	○	○
	교육의 국가사회발전 기여 정도		●	○	○		
	시·도교육감 직선제 존폐			●	○	○	
	자녀 성장에 대한 바람				●	○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	○
	자녀교육의 성공에 대한 관점					○	○
	교육현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	○	
초등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각 정책의 시급함 정도				●			
중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각 정책의 시급함 정도				●			
고등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각 정책의 시급함 정도				●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				●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				●			
교육정책과 관련된 기본적 가치관				●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찬반의견				●	○	○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의 점수위주 입시제도 보완효과					●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의견 (중·고등학생 평가 과목 수의 적절성, 초등학교 평가 폐지에 대한 의견)					●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의견(인지					●		

조사항목	조사내용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여부, 국가 간 학업성취도 차이를 제대로 측정하는지, 한국 교육의 질 제고 기여에 대한 인식)						
	가정교육 역점 사항				●		
	교육현안 이해도와 동의 정도				●		
	현 정부의 교육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	○	○	○		○	
	현재 가장 잘 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	○	○
	유·보 통합에 대한 의견					●	
	9시 등교에 대한 찬반의견					●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미래 사회 변화						●
	정부의 교육개혁 6대 과제 중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의견						●
	자유학기제 확대에 대한 의견						●

주: 음영부분은 육아정책과 직접관련이 있거나, 향후 문항내용이 육아정책과 관련지어 논의될 수 있는 부분임.

자료: 임소현 외(201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6, pp. 24-26. 한국교육개발원.

다. 사회통계조사

통계청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통계청, 2014: 13).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는 사회지표체계 10개 부문 중 매년 5개 부문을 선정하여 부문별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2016. 11. 15.). 2016년 조사 부문은 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이었으며, 2017년에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을 조사할 예정이다(통계청 보도자료, 2016. 11. 15.).

조사 대상은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구에서 표본 추출하며, 만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는 가구에 직접 조사원이 방문하여 수행한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2016년 사회조사는 전국 25,233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6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통계청, 2016: 14).

2016년 조사 시 조사 항목은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 정도, 혼인상태 등의 기본사항 14개과 세부 조사항목 74개를 포함하며(통계청, 2016: 18-19),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 II-3-3>과 같다.

<표 II-3-3>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항목(2016년)

분야	조사항목	분야	조사항목
보건	1. 건강평가	교육	1. 학생 여부
	2. 건강관리		2. 재학생 여부
	3. 흡연		3.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4. 금연 시도		4. 학생의 기대하는 교육수준
	5. 금연이 어려운 이유		5. 학생의 기대 교육 목적
	6. 음주		6. 대학생 여부
	7. 절주·금주 시도		7.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8. 절주·금주가 어려운 이유		8. 교육 기회의 충족도
	9. 유병기간		9. 대학(교) 및 특성화고 졸업여부
	10. 치료방법		10. 현재 및 과거 취업 여부
	11. 의료 서비스 만족도		11.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12. 의료 서비스 불만족 이유		12. 학교교육의 효과
	13. 장애인 복지카드 소유 여부		13. 학생 자녀 유무
	14. 스트레스 정도		14.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15. 자살에 대한 충동		15.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 수준
	16. 자살 충동 이유		16.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 목적
안전	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17. 자녀 유학에 대한 견해
	2.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18. 자녀 유학 이유
	3. 사회의 안전 상태 변화(5년 전)		19. 교육비에 대한 인식
	4. 사회의 안전 상태 변화(5년 후)		20. 교육비 부담 요인
	5. 다른 사람들의 준법 수준	1. 부모 생존 여부	
	6. 자신의 준법 수준	2.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7. 공공질서 준수 수준	3. 부모와 동거자	
	8.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4. 부모 동거 여부	
	9.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5.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환경	1. 현재 체감 환경	6. 가족 중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2. 환경 상황 변화(5년 전)	7.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3. 환경 상황 변화(5년 후)	8. 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	
	4. 환경보호 비용 부담	9. 결혼에 대한 견해	
	5.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10. 이혼에 대한 견해	
	6. 환경오염 방지 노력	11. 재혼에 대한 견해	
	7. 요일제 참여 현황	12. 입양에 대한 견해	
	8. 자동차 운전 여부	13.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9. 친환경 운전 습관	14.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15. 가사 분담 실태		
	16. 가족 관계 만족도		
	17.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18. 청소년 고민 상담 대상		

분야	조사항목	분야	조사항목
			19. 분기가족
			20. 가족 분거 이유 및 기간

자료: 통계청(2016). 2016년 사회조사보고서. pp. 18~20.

2016년 조사 결과 중 교육 부문에 한정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전체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자녀의 유학을 원하고, 학부모의 65.3%은 자녀의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환경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통계청 보도자료, 2016. 11. 15.).

라.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964년부터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회변동과 정책환경 변동을 고려하여 조사 목적 및 항목의 범주가 변화해 왔다(김승권 외, 2012: 37~3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가임기(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행태와 함께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 또는 태도를 파악하며(이삼식 외, 2015: 12), 구체적인 조사 범주는 다음 <표 II-3-4>와 같다.

<표 II-3-4>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조사 내용

가구조사표	기혼여성 조사표	미혼남녀 조사표
- 가구원 및 비동거가구원 사항	- 결혼에 관한 사항 · 결혼에 관한 태도 · 본인의 결혼 실태 · 본인의 결혼비용	- 일반사항
- 가구일반특성	-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 · 임신·출산에 관한 사항 · 출산에 대한 태도 · 피임에 관한 사항	-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
	- 난임에 관한 사항	- 본인의 결혼에 관한 사항
	- 산전·산후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 수유에 관한 사항	-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
	-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 · 부부의 육아/가사 부담 · 부모지원	- 향후 출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친인척지원	- 출산관련 정책
	· 취학전 자녀의 보육 · 초등학교 재학자녀 보육	

가구조사표	기혼여성 조사표	미혼남녀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비 - 일-가정양립에 관한 사항 - 출산정책에 관한 사항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5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혼여성의 10% 정도, 미혼남성의 경우 18%, 미혼여성의 경우 30% 정도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이삼식 외, 2015: 4).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영아의 주간 돌봄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취업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가 절반 정도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이삼식 외, 2015: 241). 또한 기혼 여성의 2/5 정도가 결혼 전후 6개월 간 경력단절을 경험하였으며, 그 이유는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아,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15: 269).

한편 관련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혼여성과 미혼남녀 모두 국가나 직장의 결혼·출산 관련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이삼식 외, 2015: 6). 기혼여성은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등에 대한 정책 욕구가 높았고, 미혼남성은 신혼부부 주택 공급, 자녀보육교육비 지원 등에 대하여, 그리고 미혼여성은 다양한 보육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15: 458).

마. PDK 여론조사

PDK 여론 조사는 1969년도에 처음 조사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매년 실시해 오고 있고, 2017년도에 49번째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조사의 목적은 미국의 교육제도인 K-12학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공공 교육이 직면한 대학 입시, 취업준비, 학업성취 차이, 학습평가, 공공 교육에 대한 일반 인식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 다룬다(PDKPoll, 2017). 즉, PDK 여론조사는 교육정책에 대한 부모들의 현재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목적이다.

PDK 조사는 갤럽에서 진행해오다가 2016년도부터는 Langer Research

Associate가 이어 받아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화 조사(휴대폰, 일반전화)로 실시된다. 표본은 미국 50개주 대상으로 무선 표집되며, 이후 연령, 성별, 교육수준, 인종, 결혼상태 등을 통해 보정된다(Phi Delta Kappan, 2017). 2017년도 조사는 5월 4일부터 21일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총 1,588명의 성인이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636명의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였으며, 297명은 흑인, 289명은 흑인이었다(Phi Delta Kappan, 2017).

1969년부터 조사가 진행되어 현재까지 800개가 넘는 문항이 조사되어 왔으며 해마다 문항을 새로 개발하거나 이전에 활용했던 문항을 재사용하여 진행한다(임소현 외, 2016). 2017년도에는 개인배경을 제외한 문항 39개 문항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그 중 17개 문항이 2017년도 조사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문항이었다(Phi Delta Kappan, 2017).

즉, PDK 여론조사는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도 있지만 매년 교육정책 이슈에 따라 조사문항의 변동이 있다. 예를 들면 2013년도 조사에서는 학교 안전이나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조사하였지만, 2014년도 조사에서는 빠졌으며, 2014년도 조사에서는 교사 교육 및 자격제도, 교사 평가 및 성과급 제도 등이 추가로 조사되었다(임소현 외, 2016). 2017년도에는 고등학교 이후 삶에 대한 준비, 사립학교에 공공재정에 투입에 대한 의견, 공립학교에서의 다양성의 가치, 학교에서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학교 형평성 등이 중점적으로 조사되었다.

PDK 조사는 49년 동안 조사되어왔기 때문에 자료 활용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귀중한 종단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자료는 교육자들이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교육 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PDK Poll, 2017).

바. 전국 부모 조사(National Parents Survey)³⁾

전국 부모 조사는 비영리 아동발달 연구기관인 Zero to Three와 아마존 CEO 인 Bezos가 설립한 Bezos 가족재단과 공동으로 2페이지 수015년 10월에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밀레니엄과 X세대 부모들의 '부모됨(parenthood)'의 인식과 관점을 진단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Zero to Three, 2017).

3) 전국 부모 조사 내용은 Zero to Three (2016) Tuning in National Parent Survey를 중심으로 요약하였음.

조사는 크게 2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심층면접 단계로 사회적 관계 접근법으로 심층면접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대표(host) 부모를 인구통계학적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 후 대표 부모와 사회적 교류가 이뤄지는 사람들을 모아 면담을 진행하였다(Zero to Three, 2016). 총 10번의 부모와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설문 문항 개발하였다(Zero to Three, 2016).

두 번째 단계는 설문 조사 단계로 개발된 50 문항을 전국 표본 2,200명의 부모에게 실시하였다(Zero to Three, 2016). 히스패닉, 아프리카-아메리칸, 저소득 부모 등은 표본 확보를 위해 과표집을 실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Zero to Three, 2016).

부모 조사는 아동이 태어나서부터 5살까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조사 문항은 아동의 뇌발달과 아동의 초기경험이 장기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 양육 기술이 학습될 수 있는지, 자녀 양육할 때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이 자녀 양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이고 도움을 어떤 것에서 받고, 이러한 정보와 도움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부합하는지 여부, 배경이 다른 부모들이 얼마나 관점이 유사하고 보편적인 경험을 하는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Zero to Three, 2016).

이 조사의 목적은 자녀 양육에서 부모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부모됨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과 관점을 공유하며, 궁극적으로 양육 정책 개발하는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Zero to Three는 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훈육 딜레마(the discipline dilemma), 기대치 차이(expectation gap), 아빠됨 요인(the daddy factor) 등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Zero to Three, 2017).

사. 기타

이외에 전반적인 육아정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2004년부터 실시해 온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보육실태조사(2004년, 2009년, 2012년, 2015년 수행)는 전반적인 자녀 보육·교육 실태와 함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2015년 조사의 경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표본추출 틀로 활용하였고, 최종 조사 대상은 총 2,593가구의 3,560명의 0~5세 영유아 부모였다

(김은설 외, 2016: 35). 본 조사 역시 조사원이 직접 가구에 방문하여, 조사원 가구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문항 중 정책 관련 문항은 다음 <표 II-3-5>와 같다. 주로 현재 육아정책의 인지도 및 향후 이용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3-5> 전국보육실태조사 조사 문항 중 정책 관련 문항

구분	문항 내용
보육· 교육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여부 ·정부 비용지원 수혜 여부, 만족도 ·육아지원정책 선호도 ·육아에 대한 부모와 국가의 책임분담, 무상보육정책 만족도, 불만족 이유 ·보육료·교육비 및 양육수당에 대한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 ·공인어린이집 인지 여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탈, 입소관리시스템 인지 및 이용 여부,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인지 여부 ·시간제보육 인지 및 경험 여부, 아이돌보미 이용 여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설치 충분 여부 ·어린이집 관련 부모 활동 참여 및 도움, 앞으로 참여 의향 여부,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 참여 필요성 및 참여 의향 ·맞춤반 운영 방안 의견 및 이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출산: 추가출산 계획, 시기, 추가 출산자녀수, 미계획 시 이유, 정부정책에 따른 추가 출산 계획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4.

조사 결과 영유아 부모들에게서는 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지원, 양육수당 등의 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설 외, 2016: 387). 각 제도별 만족도는 0~2세 보육료와 3~5세 누리과정 지원이 각각 73.1%와 70.4%이며, 양육수당은 60.1%로 조사되었다(김은설 외, 2016: 393). 현행 영유아 대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들 중 가장 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3~5세 누리과정 지원', '0~2세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순으로 응답하였다(김은설 외, 2016: 394).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은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설 외, 2016: 400).

2013년에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논의될 시점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영유아 학부모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조사 당시 목표 표본은 1,500개로서 어린이집 재원 영아(0~2세) 부모 500명, 어린이집 재원 유아(3~5세) 부모 500명, 유치원 재원 유아 500명으로 표집되어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영유아 부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에 따른 단점으로 동일한 연령임에도 이용시간 및 비용 차이가 난다는 점을 29.8%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이미화·최윤경·유해미·이혜민, 2013b: 87).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가장 우선적으로 동일하게 되었으면 하는 항목으로 학부모들은 정부지원금액을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았다(이미화 외, 2013b: 103).

Ⅲ. KICCE 정기 여론조사 분석 결과

Ⅲ장에서는 KICCE 정기 여론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조사대상 배경, 부모됨 인식, 결혼 및 자녀양육관, 육아행복감, 육아정책 조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조사대상 배경

본 조사 응답자 3,000명의 개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 대상자 중 남성은 50.7%였고, 여성은 49.7%이다. 이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19.8%,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는 26.1%,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4.4%이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10대(15~19세) 3.3%, 20대 20%, 30대 17.5%, 40대 20.8%, 50대의 경우 22%, 60대 이상의 비율은 16.4%로, 본 정기조사는 조사 대상자 중 40대가 연령 중에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최종 학력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이 50.5%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졸업이 23.6%로 그 다음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전문대 졸업의 경우 13.6%이다. 대학원 석사 졸업의 경우 7.3%, 박사 졸업의 경우 1.5%이다. 한편 조사 대상자의 30.7%가 미혼이고, 64.1%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기혼 및 사실혼)이다. 이혼 및 별거,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2%의 비율을 나타냈다.

종사상 직업의 경우 학생, 주부, 퇴직자, 무직자를 포함한 기타 비율이 31.6%로 가장 높고, 사무 종사자가 29.6%로 그 다음이다. 종사상 지위의 경우 상용근로자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고, 무직이 27.4%로 가장 많다.

한편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 중 부부 간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율은 57.2%, 맞벌이가 아니라는 비율은 42.8%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미혼을 제외하고 자녀 유무를 질문한 결과 자녀가 있다는 비율은 93.2%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중에 0~만5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비율은 25.9%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1,936명에게 자녀 수를 질문한 결과, 자녀가 1명이라는 응답한 비율은 28.5%,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0%이다. 본 조사에서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평균 자녀 수는 1.84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 1,936명의 자녀인 3,568명의 취학 분류 특성

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영유아 중 가정양육하는 경우는 4.7%,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같은 영유아 기관에 재원 중인 경우는 13.2%이다. 초등학교 재원 비율은 12.1%, 중학교 6.6%, 고등학교 7.4%이며, 전문대학과 일반대학교 및 대학원을 재학 중인 경우는 18.6%로 나타났다. 자녀가 직장인인 경우는 27.4%, 출가 및 미취업 중인 상태는 8.9%이다.

본 조사에서 가구소득의 경우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인 435만원을 100%로 보고 분류하였는데, 가구소득 60% 미만인 경우가 36.1%으로 가장 많고, 가구소득 160% 이상 비율은 11.4%로 나타났다.

〈표 III-1-1〉 조사 대상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3,000)	100.0	지역규모		
성별			서울특별시	(593)	19.8
남성	(1,522)	50.7	광역시	(783)	26.1
여성	(1,478)	49.3	중소도시	(1,491)	49.7
학력			군(읍면지역)	(133)	4.4
무학	(5)	0.2	연령		
초등학교 졸업	(16)	0.5	10대(15~19세)	(98)	3.3
중학교 졸업	(81)	2.7	20대	(599)	20.0
고등학교 졸업	(708)	23.6	30대	(526)	17.5
전문대 졸업	(409)	13.6	40대	(623)	20.8
대학교 졸업	(1,516)	50.5	50대	(661)	22.0
대학원 석사	(219)	7.3	60대 이상	(493)	16.4
대학원 박사	(46)	1.5	혼인 여부		
종사상 직업			미혼	(922)	30.7
관리자	(242)	8.1	배우자 있음	(1,922)	64.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98)	13.3	배우자 없음	(156)	5.2
사무 종사자	(887)	29.6	종사상 지위		
서비스 종사자	(190)	6.3	고용주	(47)	1.6
판매 종사자	(81)	2.7	자영업자	(258)	8.6
농림어업 종사자	(14)	0.5	상용근로자	(1,548)	51.6
기능원 및 종사자	(92)	3.1	임시근로자	(160)	5.3
장치 등 종사자	(40)	1.3	일용근로자	(59)	2.0
단순 노무 종사자	(90)	3.0	무급가족종사자	(25)	0.8
군인	(17)	0.6	무직	(822)	27.4
기타	(949)	31.6	무응답, 모름	(81)	2.7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맞벌이 유무			자녀 취학 등 현상태 ¹⁾		
맞벌이	(1,099)	57.2	가정양육(영유아)	(169)	4.7
맞벌이 아님	(823)	42.8	영유아 기관	(470)	13.2
자녀 유무			초등학교	(431)	12.1
있음	(1,936)	93.2	중학교	(234)	6.6
없음	(142)	6.8	고등학교	(265)	7.4
영유아 자녀 유무			대학 이상	(663)	18.6
있음	(501)	25.9	직장인	(978)	27.4
없음	(1,435)	74.1	출가 및 미취업	(317)	8.9
총 자녀 수(있는 경우)			기타	(41)	1.1
1명	(553)	28.5	영유아 자녀 이용 기관 1		
2명	(1,161)	60.0	유치원	(128)	27.3
3명	(198)	10.2	어린이집	(338)	71.8
4명 이상	(24)	1.3	기타	(4)	0.8
(자녀 있는 경우) 평균	1.84명		영유아 자녀 이용 기관 2		
가구소득 ²⁾			국공립어린이집	(73)	15.5
60% 미만	(1,084)	36.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19)	4.0
60-80% 미만	(340)	11.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24)	5.1
80-100% 미만	(454)	15.1	민간어린이집	(170)	36.2
100-120% 미만	(440)	14.7	가정어린이집	(42)	8.9
120-140% 미만	(252)	8.4	직장어린이집	(10)	2.1
140-160% 미만	(88)	2.9	국공립유치원	(41)	8.7
160% 이상	(342)	11.4	사립유치원	(87)	18.5
			기타	(4)	0.9

주: 1) 자녀가 2명 이상인 응답자는 중복응답함에 따라 사례수 합계가 자녀 있음 응답자 1,936명보다 많음.

2)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본 조사 응답자의 자녀가 0~만5세인 경우 영유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영유아 중 36.2%가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사립유치원으로, 18.5%가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됨

2절에서는 조사대상에게 부모됨에 대한 인식과 부모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부모됨 인식

<표 III-2-1>은 부모됨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로, 조사대상에게 부모됨과 관련된 7가지의 문장을 제시하고 응답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우선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의 경우 5점 척도에서 3.27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을 보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보다 결혼한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에 부모 역할로서의 가치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 60% 미만 집단과 타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부모 역할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의 경우 3.53점으로, 본 문항에서 주어진 7개의 각 문장 중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앞선 문장과는 달리 젊은 연령층에서 더 많이 부모교육의 의무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한 경우보다 미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에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의 경우에도 5점 평균에서 3.45점으로 다소 높은 동의 비율을 나타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노년층보다는 10~30대의 젊은 연령에서 부모로서 경제적 준비에 대하여 더 높은 필요성을 나타냈다. 또한 결혼한 경우보다 미혼인 경우에,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평균 가구소득이 60% 미만인 경우에 경제적 준비에 있어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자녀가 영유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장의 경우에도 3.35점으로 보통 이상의 동의 정도를 나타냈는데, 20~30대의 젊은 층보다는 40대 이상의 연령에서 영유아 자녀는 부모가 직접 돌봐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는 문장의 경우 동의정도가 낮았으며(2.64점), 특히나 여성보다는 남성이, 젊은 연령보다는 중·노년층에서, 소득이 낮은 경우에 자녀 양육을 꼭 부

모가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나타냈다.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라는 문장의 경우에도 동의정도가 다소 낮았으며(2.92점), 남성보다는 여성이, 중·노년층보다는 20~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부모가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의 경우 평균 3.0점으로 나타났다. 20대 보다는 50대 이상의 중·노년층에서 이에 대한 동의 점수가 높았고, 미혼인 경우보다 기혼인 경우에,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에 대한 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 부모됨 각 문장 동의 정도 점수: 5점 평균

단위: 점

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자녀가 영유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
전체	3.27	3.53	3.45	3.35	2.64	2.92	3.00
성별 구분							
남자	3.32	3.43	3.40	3.35	2.57	3.01	2.98
여자	3.23	3.64	3.50	3.34	2.70	2.82	3.02
X ² (df)/t	3.90 ^{**}	-10.72 ^{***}	-4.51 ^{***}	0.71	-5.06 ^{***}	7.26 ^{***}	-1.09
연령							
15~19세	3.06	3.64	3.58	3.34	2.53	3.05	2.99
20대	3.03	3.61	3.63	3.30	2.58	2.74	2.91
30대	3.25	3.52	3.51	3.20	2.70	2.76	2.97
40대	3.33	3.50	3.45	3.36	2.66	2.90	2.95
50대	3.37	3.52	3.34	3.43	2.63	3.08	3.07
60대 이상	3.45	3.46	3.29	3.42	2.65	3.09	3.12
X ² (df)/F	29.87 ^{***}	5.94 ^{***}	27.29 ^{***}	11.85 ^{***}	2.39 [*]	25.27 ^{***}	5.49 ^{***}
혼인 여부							
미혼	2.95	3.59	3.59	3.30	2.57	2.71	2.83
배우자 있음	3.43	3.50	3.38	3.36	2.67	3.01	3.08
배우자 없음	3.29	3.52	3.43	3.46	2.65	3.05	2.99
X ² (df)/F	169.18 ^{***}	7.46 ^{**}	41.91 ^{***}	5.34 ^{**}	5.98 ^{**}	56.65 ^{***}	34.09 ^{***}
자녀 유무							
유	3.44	3.51	3.46	3.37	2.67	3.04	3.09
무	3.08	3.57	3.35	3.28	2.60	2.65	2.88

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자녀가 영유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
$X^2(df)/t$	6.15***	-2.73**	3.59***	1.79	1.10	5.87***	2.94**
가구소득 ¹⁾							
60% 미만	3.12	3.58	3.52	3.36	2.58	2.86	2.94
60-80% 미만	3.27	3.43	3.38	3.26	2.67	2.89	2.99
80-100% 미만	3.40	3.47	3.39	3.33	2.65	2.92	3.04
100-120% 미만	3.35	3.53	3.43	3.38	2.67	2.95	3.04
120-140% 미만	3.40	3.52	3.43	3.36	2.63	2.97	3.02
140-160% 미만	3.43	3.56	3.45	3.35	2.72	2.94	3.02
160% 이상	3.37	3.54	3.41	3.35	2.74	3.02	3.07
$X^2(df)/F$	17.38***	4.25***	4.72***	1.44	3.05**	2.72*	2.09

* $p < .05$, ** $p < .01$, *** $p < .001$

주: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표 III-2-2>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적 역할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도리 등 상호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은 부모의 역할을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녀의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8.8%가 부모의 역할을 뒤에서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했으며, 제시된 각 독립변수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생각의 경우,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가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보다는 '자녀를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는데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특히 연령에 따른 응답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10대의 경우 66.3%가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가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50대의 경우 27.2%만이 이에 응답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 학력이 높은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에 '자녀를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 부모와 자녀의 상호 역할에 대한 생각

단위: %(명)

구분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		자녀의 부모에 대한 생각		수
	부모는 자녀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는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자녀를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	
전체	68.8	31.2	36.3	63.7	(3,000)
연령					
15~19세	67.3	32.7	66.3	33.7	(98)
20대	71.5	28.5	48.7	51.3	(599)
30대	66.3	33.7	31.6	68.4	(526)
40대	67.1	32.9	32.6	67.4	(623)
50대	70.8	29.2	27.2	72.8	(661)
60대 이상	67.7	32.3	36.9	63.1	(493)
$X^2(df)$	5.86(5)		110.82(5)***		
혼인 여부					
미혼	70.3	29.7	53.9	46.1	(922)
배우자 있음	68.4	31.6	28.3	71.7	(1,922)
배우자 없음	64.7	35.3	30.8	69.2	(156)
$X^2(df)$	2.31(2)		179.55(2)***		
자녀 유무					
유	68.2	31.8	27.4	72.6	(1,936)
무	66.9	33.1	43.0	57.0	(142)
$X^2(df)$	0.10(1)		15.78(2)***		
학력					
고졸이하	69.9	30.1	42.0	58.0	(810)
전문대졸	66.3	33.7	33.0	67.0	(409)
대졸	68.6	31.4	35.6	64.4	(1,516)
대학원졸 이상	70.2	29.8	27.9	72.1	(265)
$X^2(df)$	1.93(3)		21.61(3)***		
가구소득 ¹⁾					
60% 미만	69.6	30.4	47.7	52.3	(1,084)
60-80% 미만	69.4	30.6	32.6	67.4	(340)
80-100% 미만	69.2	30.8	31.5	68.5	(454)
100-120% 미만	68.2	31.8	30.9	69.1	(440)
120-140% 미만	67.5	32.5	32.5	67.5	(252)
140-160% 미만	69.3	30.7	21.6	78.4	(88)
160% 이상	66.4	33.6	23.4	76.6	(342)
$X^2(df)$	1.69(6)		107.34(6)***		

*** $p < .001$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2-3>은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조사결과 ‘대학 졸업할 때까지’가 45.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응답이 약 21%를 차지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줘야 한다는 응답은 19.8%였으며, 평생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응답은 1.4%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및 자녀 유무, 취업 관련 변수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는데, 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때까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남성의 경우 그 이후 시기까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중 자녀가 없거나 취업한 경우에 더 이른 시기의 경제적 독립이 적절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타 집단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II-2-3>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에 대한 생각

단위: %(명)

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평생 동안	수
전체	19.8	45.1	20.9	8.3	4.5	1.4	(3,000)
성별 구분							
남자	19.2	42.4	21.6	9.7	5.3	1.9	(1,522)
여자	20.4	47.9	20.2	7.0	3.7	0.9	(1,478)
X ² (df)	22.75(5) ^{***}						
연령							
15~19세	33.7	39.8	15.3	5.1	4.1	2.0	(98)
20대	28.0	37.7	25.9	3.2	4.2	1.0	(599)
30대	28.5	48.3	12.4	5.9	2.9	2.1	(526)
40대	22.6	50.2	16.2	5.8	3.2	1.9	(623)
50대	8.8	49.0	25.1	12.4	4.1	0.6	(661)
60대 이상	8.7	40.0	25.6	15.6	8.7	1.4	(493)
X ² (df)	292.27(25) ^{***}						
자녀 유무							
유	14.3	47.3	20.6	10.9	5.2	1.7	(1,936)
무	34.5	42.3	17.6	2.8	2.8	-	(142)
X ² (df)	47.92(5) ^{***}						
취업 여부							
취업	21.0	46.4	18.7	8.4	4.0	1.4	(2,097)
미취업	16.5	42.8	25.4	8.5	5.2	1.5	(822)
X ² (df)	22.46(5) ^{***}						
가구소득 ¹⁾							
60% 미만	23.9	39.6	23.1	7.8	4.2	1.4	(1,084)

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평생 동안	수
60-80% 미만	22.9	43.2	20.0	7.6	5.3	0.9	(340)
80-100% 미만	19.2	48.9	18.5	6.6	5.7	1.1	(454)
100-120% 미만	16.8	47.3	19.5	11.1	4.1	1.1	(440)
120-140% 미만	15.9	55.6	17.1	6.3	3.6	1.6	(252)
140-160% 미만	11.4	53.4	17.0	14.8	1.1	2.3	(88)
160% 이상	13.2	46.8	24.0	9.1	4.7	2.3	(342)
X ² (df)							72.02(30) ^{***}

^{***} $p < .001$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2-4>는 가정 내에서 부모의 성역할 관련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어머니로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라는 조사문항의 경우 동의정도는 보통이하(2.87점)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50대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서, 그리고 미혼인 경우보다는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서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 동의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문항의 경우에도 다소 낮은 동의 정도(2.94점)를 나타냈다. 이 역시 독립변수 간 차이를 살펴보면 낮은 연령보다는 높은 연령층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미혼인 경우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2-4> 가정 내 부모의 역할에 대한 생각 동의 정도: 5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로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	아버지로서 남자가 할 일은 가정에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	수
전체	2.87	2.94	2.48	(3,000)
성별 구분				
남자	2.93	2.93	2.61	(1,522)
여자	2.81	2.94	2.35	(1,478)
X ² (df)/t	4.31 ^{***}	-0.52	8.96 ^{***}	
연령				
15~19세	2.48	2.68	2.17	(98)
20대	2.53	2.89	2.20	(599)
30대	2.71	2.94	2.32	(526)

구분	자녀 양육				가사				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자	5.83	1.09	4.17	1.09	5.87	1.18	4.13	1.18	(1,522)
여자	5.65	0.95	4.35	0.95	5.82	1.11	4.18	1.11	(1,478)
t	5.07***		-5.07***		1.37		-1.37		
연령									
15~19세	5.52	1.03	4.48	1.03	5.42	1.23	4.58	1.23	(98)
20대	5.43	0.86	4.57	0.86	5.38	0.99	4.62	0.99	(599)
30대	5.69	1.00	4.31	1.00	5.60	1.07	4.40	1.07	(526)
40대	5.80	1.03	4.20	1.03	5.98	1.13	4.02	1.13	(623)
50대	5.85	1.05	4.15	1.05	6.10	1.16	3.90	1.16	(661)
60대 이상	6.00	1.11	4.00	1.11	6.25	1.11	3.75	1.11	(493)
F	20.50***		20.50***		52.19***		52.19***		
맞벌이 유무									
맞벌이	5.77	1.04	4.23	1.04	5.87	1.12	4.13	1.12	(1,099)
맞벌이 아님	5.99	1.11	4.01	1.11	6.29	1.17	3.71	1.17	(823)
t	-4.42***		4.42***		-8.04***		8.04***		
영유아자녀유무									
유	5.83	1.07	4.17	1.07	5.84	1.18	4.16	1.18	(501)
무	5.88	1.09	4.12	1.09	6.15	1.15	3.85	1.15	(1,435)
t	-0.88		0.88		-5.29***		5.29***		
학력									
고졸이하	5.73	1.05	4.27	1.05	5.95	1.18	4.05	1.18	(810)
전문대졸	5.80	1.06	4.20	1.06	5.86	1.21	4.14	1.21	(409)
대졸	5.73	1.02	4.27	1.02	5.80	1.12	4.20	1.12	(1,516)
대학원졸 이상	5.72	0.97	4.28	0.97	5.78	1.12	4.22	1.12	(265)
F	0.52		0.52		3.47*		3.47*		
가구소득 ¹⁾									
60% 미만	5.63	0.97	4.37	0.97	5.65	1.12	4.35	1.12	(1,084)
60-80% 미만	5.84	1.13	4.16	1.13	6.02	1.11	3.98	1.11	(340)
80-100% 미만	5.81	1.06	4.19	1.06	6.01	1.18	3.99	1.18	(454)
100-120% 미만	5.82	1.02	4.18	1.02	5.98	1.14	4.02	1.14	(440)
120-140% 미만	5.88	1.10	4.12	1.10	5.96	1.14	4.04	1.14	(252)
140-160% 미만	5.53	0.97	4.47	0.97	5.67	1.00	4.33	1.00	(88)
160% 이상	5.73	0.99	4.27	0.99	5.85	1.17	4.15	1.17	(342)
F	4.77***		4.77***		9.85***		9.85***		

* $p < .05$, *** $p < .001$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실제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 비율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녀 양육의 경우 아버지 3.14 : 어머니 6.86, 가사의 경우 아버지 3.19 : 어머니 6.81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6 참조).

그러나 응답자 성별에 따라서 자녀양육 및 가사 분담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성 응답자보다 남성 응답자들은 자녀양육과 가사의 영역에서 부부간 역할이 비교적 동등하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가 지각하는 부부간 자녀 양육 분담 비율은 남편 2.75 : 본인 7.25인 것으로 나타났고(남성 응답자의 경우 아내 3.49 : 본인 6.51), 가사의 경우에도 남편 2.64 : 본인 7.36(남성 응답자의 경우 아내 3.70 : 남편 6.30)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양육과 가사에 있어 여성에 대한 의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6〉 실제적 자녀양육 및 가사 분담 비율(영유아 자녀 있는 경우)

단위: %(명)

구분	자녀 양육				가사				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86	1.51	3.14	1.51	6.81	1.75	3.19	1.75	(501)
성별 구분									
남자	6.51	1.14	3.49	1.14	6.30	1.65	3.70	1.65	(261)
여자	7.25	1.53	2.75	1.53	7.36	1.70	2.64	1.70	(240)
t	-5.70***		5.70***		-7.09***		7.09***		
맞벌이 유무									
맞벌이	6.65	1.45	3.35	1.45	6.40	1.71	3.60	1.71	(321)
맞벌이 아님	7.18	1.32	2.82	1.32	7.49	1.41	2.51	1.41	(165)
t	-4.07***		4.07***		-7.48***		7.48***		
학력									
고졸이하	7.35	1.62	2.65	1.62	7.45	1.88	2.55	1.88	(51)
전문대졸	6.96	1.83	3.04	1.83	7.10	1.83	2.90	1.83	(97)
대졸	6.80	1.40	3.20	1.40	6.70	1.70	3.30	1.70	(307)
대학원졸 이상	6.54	1.33	3.46	1.33	6.24	1.54	3.76	1.54	(46)
F	2.79*		2.79*		5.38**		5.38**		
가구소득 ¹⁾									
60% 미만	7.20	1.89	2.80	1.89	7.32	2.00	2.68	2.00	(66)
60-80% 미만	7.05	1.48	2.95	1.48	7.21	1.71	2.79	1.71	(73)
80-100% 미만	7.09	1.29	2.91	1.29	7.32	1.62	2.68	1.62	(98)
100-120% 미만	6.87	1.42	3.13	1.42	6.73	1.54	3.27	1.54	(93)
120-140% 미만	6.66	1.34	3.34	1.34	6.47	1.33	3.53	1.33	(58)
140-160% 미만	6.65	1.62	3.35	1.62	6.00	1.77	4.00	1.77	(26)
160% 이상	6.39	1.54	3.61	1.54	6.08	1.83	3.92	1.83	(87)
F	2.84 [†]		2.84 [†]		7.27***		7.27***		

* $p < .05$, ** $p < .01$, *** $p < .001$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2-7>은 자녀 양육시기별(영유아 자녀, 초등학교 자녀, 중·고등학교 자녀)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4 정도는 자녀가 영유아일 때는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되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15.9%였으며,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하였다.

한편 자녀가 초등학교인 경우 응답의 경향성이 달라지는데,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 둘 중 한명만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7.6%로 나타났다.

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경우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부모 둘 중 한 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 정도였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모든 자녀 양육시기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높은 연령층에서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인 경우 결혼한 경우보다 모든 자녀 양육시기에서 부모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7> 자녀 양육시기별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명)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수
영유아 자녀	74.7	15.9	0.9	8.5	(3,000)
초등학교 자녀	27.6	47.5	1.2	23.6	(3,000)
중고등학교 자녀	11.1	29.5	1.4	57.9	(3,000)

나. 좋은 부모

<표 III-2-8>은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게 부모로서 본인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 40.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3.6%였다. 5점 평균으로는 3.3점으로,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보통수

준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본인이 좋은 부모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본인을 좋은 부모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와 60대 이상에서 부모로서의 본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본인을 좋은 부모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I-2-8〉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로서 본인이 좋은 부모 인식 여부: 5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입	보통	그렇지 않은 편입	매우 그렇지 않음	수	평균
전체	4.4	36.0	46.0	12.4	1.2	(1,936)	3.30
성별 구분							
남자	5.5	36.8	45.2	11.1	1.4	(945)	3.34
여자	3.4	35.1	46.7	13.6	1.1	(991)	3.26
$X^2(df)/t$			8.05(4)				2.19*
연령							
20대	5.8	23.3	48.8	19.8	2.3	(86)	3.39
30대	4.5	42.9	40.8	10.7	1.0	(289)	3.34
40대	4.8	37.3	45.3	11.9	0.6	(477)	3.26
50대	3.3	33.9	49.6	11.9	1.3	(611)	3.29
60대 이상	5.3	35.3	44.6	13.1	1.7	(473)	3.33
$X^2(df)/F$			na				3.00*
혼인 여부							
배우자 있음	4.6	36.5	45.9	11.9	1.2	(1,805)	3.32
배우자 없음	2.3	28.2	47.3	19.8	2.3	(131)	3.08
$X^2(df)/t$			na				3.25**
학력							
고졸이하	2.5	27.7	50.2	18.2	1.4	(488)	3.11
전문대졸	3.8	31.1	48.9	14.8	1.5	(264)	3.21
대졸	5.1	39.9	43.8	10.0	1.2	(982)	3.38
대학원졸 이상	6.9	43.1	42.6	6.9	0.5	(202)	3.49
$X^2(df)/F$			55.80(12)***				17.64***
가구소득 ¹⁾							
60% 미만	5.0	30.6	47.8	14.5	2.1	(379)	3.22
60-80% 미만	1.7	31.8	51.9	11.6	3.0	(233)	3.18
80-100% 미만	5.3	31.0	48.6	14.2	0.8	(358)	3.26
100-120% 미만	3.4	38.4	45.1	12.0	1.1	(357)	3.31
120-140% 미만	6.6	40.3	41.2	11.5	0.4	(226)	3.41
140-160% 미만	2.5	42.5	40.0	15.0	-	(80)	3.33
160% 이상	5.0	43.9	42.2	8.6	0.3	(303)	3.45
$X^2(df)/F$			na				4.35***

* $p < .05$, ** $p < .01$, *** $p < .001$

주: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또한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게 자녀를 사랑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자녀를 갖기까지 시간을 더 둘 것인지 질문한 결과(표 III-2-9 참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4.6%로 절반가까이 되었으나, 반대로 '그렇다'도 37.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점 평균으로는 2.93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으로 봤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이와 같은 생각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으로 구분하였을 때에도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았다. 특히 20대 부모의 경우 자녀를 낳기까지 시간을 더 두겠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II-2-9〉 동의여부(나는 내 아이를 사랑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자녀를 갖기까지 시간을 더 둘 것이다) : 5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동의함	약간 동의함	보통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수	평균
전체	13.9	23.6	17.9	31.1	13.5	(1,936)	2.93
성별 구분							
남자	10.1	19.5	19.5	35.4	15.6	(945)	2.73
여자	17.6	27.5	16.4	26.9	11.5	(991)	3.13
$X^2(df)/t$			52.59(4) ^{***}				-6.91 ^{***}
연령							
20대	15.1	45.3	19.8	11.6	8.1	(86)	3.48
30대	14.2	28.0	17.6	26.0	14.2	(289)	3.02
40대	14.7	20.1	16.8	32.7	15.7	(477)	2.85
50대	14.4	23.4	15.5	34.4	12.3	(611)	2.93
60대 이상	12.1	20.7	22.0	31.9	13.3	(473)	2.86
$X^2(df)/F$			52.07(16) ^{***}				5.08 ^{***}
혼인 여부							
배우자 있음	13.2	23.5	18.0	31.6	13.7	(1,805)	2.91
배우자 없음	22.9	25.2	17.6	23.7	10.7	(131)	3.26
$X^2(df)/t$			na				-3.03 ^{**}
영유아자녀유무							
유	13.6	27.3	18.2	24.8	16.2	(501)	2.97
무	14.0	22.3	17.8	33.3	12.5	(1,435)	2.92
$X^2(df)/t$			16.45(4) ^{**}				0.83

** $p < .01$,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자녀가 없는 조사 대상자들에 본인이 향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질문한 결과(표 III-2-10 참조), 그렇다는 응답의 경우 39.4%,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2.9%로 나타났다. 5점 중 3.21점으로 보통수준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본인이 향후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0~20대의 젊은 연령에서 긍정적으로 본인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19세의 경우 절반 넘는 응답자가 본인이 좋은 부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I-2-10> (자녀가 없는 경우) 좋은 부모가 될 것이라는 기대: 5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임	보통	그렇지 않은 편임	매우 그렇지 않음	수	평균
전체	8.6	30.8	37.7	18.8	4.1	(1,064)	3.21
성별 구분							
남자	12.5	33.8	35.0	14.9	3.8	(577)	3.36
여자	3.9	27.3	40.9	23.4	4.5	(487)	3.03
X ² (df)/t			39.20(4) ^{***}				5.68 ^{***}
연령							
15~19세	18.4	35.7	32.7	12.2	1.0	(98)	3.58
20대	9.2	33.5	36.5	16.2	4.7	(513)	3.26
30대	7.2	28.7	38.4	21.5	4.2	(237)	3.13
40대	2.7	23.3	39.0	31.5	3.4	(146)	2.90
50대	8.0	28.0	46.0	10.0	8.0	(50)	3.18
60대 이상	5.0	25.0	55.0	15.0	-	(20)	3.20
X ² (df)/F			na				6.44 ^{***}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9.4	34.2	34.6	17.9	3.8	(234)	3.27
광역시	9.9	25.5	39.7	19.9	5.0	(282)	3.16
중소도시	7.8	33.1	37.7	18.4	3.0	(501)	3.24
군(읍면지역)	4.3	21.3	40.4	21.3	12.8	(47)	2.83
X ² (df)/F			19.87(12)				3.18 [*]

* $p < .05$, *** $p < .001$

<표 III-2-11>은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이다. 그 결과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 태도 및 습관 지도가 35.8%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 12.8%, 양육 지식의 경우 10.0%로 나타났다.

대상자 특성별로는 성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좋은 부모 역할을 위해서 남성의 경우 생활태도 및 습관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 정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비율로 좋은 부모 역할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2순위의 경우 생활태도 및 습관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순위와 다르게 경제적 지원이 26.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2순위의 경우 생활태도 및 습관지도와 정서적 지원이 비등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1〉 좋은 부모 역할을 위해 중요한 요소

단위: %(명)

구분	양육지식	정서적 지원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학업지도	경제적 지원	기타	수
전체(1순위)	10.0	40.7	35.8	0.5	12.8	0.2	(3,000)
성별 구분							
남자	10.4	33.4	40.3	0.8	14.8	0.3	(1,522)
여자	9.6	48.2	31.2	0.2	10.7	0.1	(1,478)
X ² (df)			74.01(5) ^{***}				
전체(2순위)	7.8	28.4	34.6	2.3	26.7	0.2	(3,000)
전체(1+2순위)	17.8	69.1	70.4	2.8	39.5	0.4	(3,000)

*** $p < .001$

3. 결혼 및 자녀 양육관

〈표 III-3-1〉은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반드시 해야한다가 13.6%, 하는 편이 좋다가 43.0%,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40.1%, 하지 않는게 낫다는 응답이 3.2%였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편이 좋다)이 56.6%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자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60대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취업한 경우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3-1〉 결혼에 대한 생각

단위: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게 낫다	수
전체	13.6	43.0	40.1	3.2	(3,000)
성별 구분					
남자	19.8	48.0	29.6	2.6	(1,522)
여자	7.2	37.9	50.9	3.9	(1,478)
X ² (df)		195.06(3) ^{***}			
연령					
15~19세	10.2	28.6	55.1	6.1	(98)
20대	8.7	41.2	43.9	6.2	(599)
30대	9.5	41.6	45.4	3.4	(526)
40대	9.6	40.1	47.8	2.4	(623)
50대	16.3	44.0	36.9	2.7	(661)
60대 이상	26.2	51.9	21.3	0.6	(493)
X ² (df)		198.57(15) ^{***}			
혼인 여부					
미혼	6.9	37.1	49.9	6.1	(922)
배우자 있음	17.2	46.4	34.5	1.9	(1,922)
배우자 없음	9.6	36.5	50.6	3.2	(156)
X ² (df)		139.09(6) ^{***}			
자녀 유무					
유	17.1	46.0	35.0	1.9	(1,936)
무	9.9	40.8	46.5	2.8	(142)
X ² (df)		10.40(3) [*]			
취업 여부					
취업	15.0	44.4	37.9	2.7	(2,097)
미취업	10.3	40.1	45.5	4.0	(822)
X ² (df)		23.79(3) ^{***}			

* $p < .05$,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3-2>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9.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44.6% 대체로 동의한다 23.3%,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2.9%였다. 동의 정도에 대한 점수는 평균 2.0점으로 나타나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동의하는 정도가 낮아졌으며, 미혼인 경우가 결혼을 경험했던 사람들보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또한 영유아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 - 1)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 : 4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수	평균
전체	29.2	44.6	23.3	2.9	(3,000)	2.00
성별 구분						
남자	29.7	43.4	23.7	3.2	(1,522)	2.00
여자	28.7	45.7	23.0	2.6	(1,478)	1.99
$X^2(df)/t$		2.38(3)				0.32
연령						
15~19세	17.3	37.8	39.8	5.1	(98)	2.33
20대	23.0	42.2	29.9	4.8	(599)	2.17
30대	25.9	42.0	28.5	3.6	(526)	2.10
40대	25.7	45.7	27.1	1.4	(623)	2.04
50대	34.0	48.0	15.6	2.4	(661)	1.86
60대 이상	40.6	45.4	12.2	1.8	(493)	1.75
$X^2(df)/F$		141.80(15) ^{***}				24.50 ^{***}
혼인 여부						
미혼	19.1	42.3	33.6	5.0	(922)	2.25
배우자 있음	34.1	45.4	18.5	1.9	(1,922)	1.88
배우자 없음	28.2	47.4	21.8	2.6	(156)	1.99
$X^2(df)/F$		131.30(6) ^{***}				66.71 ^{***}
영유아자녀유무						
유	29.9	40.7	27.1	2.2	(501)	2.02
무	35.6	47.1	15.4	1.9	(1,435)	1.84
$X^2(df)/t$		34.80(3) ^{***}				4.55 ^{***}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3-3>은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한다고 질문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3.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가 15.9%, 대체로 동의한다가 51.4%,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29.5%로 나타났고, 동의정도에 대한 점수는 3.07점으로 나타나 동의한다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나타났다. 또한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맞벌이가 아닌 경우가 맞벌인 경우보다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 - 2)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 4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수	평균
전체	3.2	15.9	51.4	29.5	(3,000)	3.07
성별 구분						
남자	2.6	13.3	51.4	32.7	(1,522)	3.14
여자	3.9	18.6	51.4	26.2	(1,478)	3.00
$X^2(df)/t$		27.85(3) ^{***}				5.21 ^{***}
연령						
15~19세	3.1	33.7	42.9	20.4	(98)	2.81
20대	6.0	21.5	49.9	22.5	(599)	2.89
30대	4.6	18.1	53.6	23.8	(526)	2.97
40대	1.6	17.7	54.7	26.0	(623)	3.05
50대	2.1	12.0	52.2	33.7	(661)	3.18
60대 이상	1.8	6.5	47.1	44.6	(493)	3.34
$X^2(df)/F$		164.77(15) ^{***}				27.79 ^{***}
혼인 여부						
미혼	5.6	24.3	50.2	19.8	(922)	2.84
배우자 있음	1.8	12.0	51.9	34.3	(1,922)	3.19
배우자 없음	5.8	14.7	51.9	27.6	(156)	3.01
$X^2(df)/F$		135.46(6) ^{***}				67.00 ^{***}
자녀 유무						
유	1.9	11.5	52.1	34.5	(1,936)	3.19
무	4.9	21.8	48.6	24.6	(142)	2.93
$X^2(df)/t$		21.28(3) ^{***}				4.21 ^{***}
맞벌이 유무						
맞벌이	2.0	13.9	51.9	32.2	(1,099)	3.14
맞벌이 아님	1.6	9.5	51.9	37.1	(823)	3.24
$X^2(df)/t$		11.42(3) [*]				-3.11 ^{**}

* $p < .05$, ** $p < .01$,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3-4>는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면 동의하는지에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1.4%였으며,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2.2%, 대체로 동의한다 42.5%,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13.8%였다. 동의 정도의 평균은 2.59점이었으며 대체로 동의한다와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결과의 합이 56.3%로 나와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다소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면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또한 배우자가 현재 있는 경우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취업한 경우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면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표 III-3-4>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 - 3)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 4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수	평균
전체	11.4	32.2	42.5	13.8	(3,000)	2.59
성별 구분						
남자	8.5	28.7	46.0	16.8	(1,522)	2.71
여자	14.4	35.9	38.9	10.8	(1,478)	2.46
$X^2(df)/t$		62.40(3) ^{***}				7.94 ^{***}
연령						
15~19세	29.6	45.9	20.4	4.1	(98)	1.99
20대	23.9	42.1	28.4	5.7	(599)	2.16
30대	15.8	37.6	38.4	8.2	(526)	2.39
40대	7.2	38.0	42.7	12.0	(623)	2.60
50대	4.8	25.1	51.1	18.9	(661)	2.84
60대 이상	2.2	14.0	56.6	27.2	(493)	3.09
$X^2(df)/F$		486.61(15) ^{***}				103.82 ^{***}
혼인 여부						
미혼	21.4	43.0	30.6	5.1	(922)	2.19
배우자 있음	6.6	27.5	48.2	17.8	(1,922)	2.77
배우자 없음	12.8	27.6	42.9	16.7	(156)	2.63
$X^2(df)/F$		286.20(6) ^{***}				153.57 ^{***}
자녀 유무						
유	6.0	26.1	49.2	18.6	(1,936)	2.80
무	20.4	45.8	28.9	4.9	(142)	2.18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수	평균
$X^2(df)/t$	82.97(3)***					8.85***
취업 여부						
취업	10.1	32.2	42.5	15.1	(2,097)	2.63
미취업	13.9	32.1	43.3	10.7	(822)	2.51
$X^2(df)/t$	15.84(3)**					3.33**

** $p < .01$,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3-5>는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이상적인 자녀수에 응답한 비율은 83.7%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6.3%였다. 응답한 경우의 평균 자녀 수는 2.25명이었다.

응답자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는 2.29명, 여자는 2.22명으로 남자의 이상적인 자녀 수가 근소하게 여자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08명으로 가장 적은 자녀 수로 응답하였으며, 60대 이상이 2.44명으로 가장 많은 자녀 수를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상적인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여부로 살펴보면, 미혼인 경우 2.14명,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29명, 배우자가 없는 경우 2.32명이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2.31명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2.03명보다 이상적인 자녀 수가 많았다.

<표 III-3-5>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한 생각

구분	응답 비율	잘 모르겠음 비율	수	응답 시 평균
전체	83.7	16.3	(3,000)	2.25
성별 구분				
남자	84.4	15.6	(1,522)	2.29
여자	82.9	17.1	(1,478)	2.22
t				2.46*
연령				
15~19세	77.6	22.4	(98)	2.22
20대	80.5	19.5	(599)	2.14
30대	79.8	20.2	(526)	2.08
40대	84.1	15.9	(623)	2.25
50대	87.0	13.0	(661)	2.33
60대 이상	87.8	12.2	(493)	2.44
F				15.13***
혼인 여부				

단위: %(명), 명

구분	응답 비율	잘 모르겠음 비율	수	응답 시 평균
미혼	77.7	22.3	(922)	2.14
배우자 있음	86.6	13.4	(1,922)	2.29
배우자 없음	82.7	17.3	(156)	2.32
F				12.00***
자녀 유무				
유	86.8	13.2	(1,936)	2.31
무	80.3	19.7	(142)	2.03
t				4.33***

* $p < .05$,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성별과 상관없이 이상적인 자녀 수를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III-3-6 참조), 평균 2.13명이었으며 아들을 낳아야한다고 응답한 경우 평균 1.16명이었으며, 딸을 낳아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평균 1.29명이 이상적인 자녀 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이 상관없는 경우 남자가 2.21명이 이상적인 자녀수라고 응답하여 여자 2.05보다 높았고, 아들을 낳아야한다고 응답하였을 때는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딸을 낳아야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자는 평균 1.22명의 딸이 이상적라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1.36명의 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별이 상관없는 경우, 아들 수, 딸 수에 대한 이상적인 자녀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성별이 상관없는 경우와 아들 수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상적인 딸의 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성별이 상관없는 경우, 이상적인 아들, 딸 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3-6〉 (성별 상관없는 경우, 아들, 딸) 이상 자녀 수에 대한 생각

단위: 명(명)

구분	성별 상관없는 경우		아들		딸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전체	2.13	(1,062)	1.16	(1,332)	1.29	(1,440)
성별 구분						
남자	2.21	(501)	1.18	(746)	1.22	(781)
여자	2.05	(561)	1.13	(586)	1.36	(659)
t		3.69***		1.86		-5.38***
연령						

구분	성별 상관없는 경우		아들		딸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15~19세	2.13	(23)	1.10	(50)	1.23	(53)
20대	2.06	(160)	1.07	(298)	1.20	(318)
30대	2.02	(191)	1.06	(197)	1.24	(226)
40대	2.12	(264)	1.17	(237)	1.32	(260)
50대	2.13	(254)	1.23	(296)	1.36	(321)
60대 이상	2.29	(170)	1.26	(254)	1.32	(262)
F	3.40**		10.23***		4.56***	
혼인 여부						
미혼	2.07	(274)	1.08	(405)	1.21	(438)
배우자 있음	2.14	(730)	1.19	(866)	1.32	(931)
배우자 없음	2.26	(58)	1.23	(61)	1.31	(71)
F	2.19		11.25***		7.70***	
자녀 유무						
유	2.15	(745)	1.20	(867)	1.33	(933)
무	1.98	(43)	1.10	(60)	1.16	(69)
t	1.69		2.07*		3.34**	

* $p < .05$, ** $p < .01$,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3-7>은 자녀 존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꼭 있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2.7%,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올 것이다가 45.6%, 없어도 무방하다는 응답이 19.2%,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5%였다.

성별 구분으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가 꼭 있어야 한다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연령별에서는 10대에서는 꼭 있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4.3%에 반해 60대 이상에서는 42.8%로 나타나 자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지각이 세대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인 경우는 꼭 있어야 한다는 비율(15.1%)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41.5%)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꼭 있어야 한다는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따라서 미취업인 경우가 취업한 경우보다 꼭 있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표 III-3-7> 자녀존재의 필요성 여부

단위: %(명)

구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올 것이다	없어도 무방함	모르겠음	수
전체	32.7	45.6	19.2	2.5	(3,000)

구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없어도 무방함	모르겠음	수
성별 구분					
남자	36.9	45.5	15.7	1.9	(1,522)
여자	28.3	45.8	22.8	3.0	(1,478)
$X^2(df)$	40.51(3) ^{***}				
연령					
15~19세	14.3	45.9	34.7	5.1	(98)
20대	20.9	44.7	30.6	3.8	(599)
30대	30.0	46.0	21.5	2.5	(526)
40대	35.0	42.1	19.9	3.0	(623)
50대	38.6	45.8	14.2	1.4	(661)
60대 이상	42.8	50.5	5.7	1.0	(493)
$X^2(df)$	189.95(15) ^{***}				
혼인 여부					
미혼	15.1	45.0	36.1	3.8	(922)
배우자 있음	41.5	45.7	11.1	1.7	(1,922)
배우자 없음	28.2	48.7	19.2	3.8	(156)
$X^2(df)$	350.25(6) ^{***}				
자녀 유무					
유	42.6	45.5	10.2	1.8	(1,936)
무	12.7	52.1	32.4	2.8	(142)
$X^2(df)$	87.01(3) ^{***}				
취업 여부					
취업	34.6	45.0	18.1	2.3	(2,097)
미취업	28.7	47.8	21.7	1.8	(822)
$X^2(df)$	11.98(3) ^{**}				

** $p < .01$,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3-8>은 꼭 자녀가 있어야 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44.2%, 가문(대)을 잇기 위해서가 3.7%순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응답이 가장 높았던 반면 여자는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취업한 경우에는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가 가장 높았으나 미취업인 경우에는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타 다른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자녀가 있어야 하는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배우자(또는 양가 부모)가 원하니까	노후생활을 위해서	가문(대)을 잇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기타	수
전체	2.0	2.3	3.7	0.4	46.8	44.2	0.7	(2,350)
성별 구분								
남자	2.2	1.9	5.8	0.4	43.1	46.2	0.5	(1,254)
여자	1.8	2.6	1.2	0.5	51.0	41.9	1.0	(1,096)
X ² (df)				48.64(6) ^{***}				
연령								
15~19세	3.4	3.4	3.4	-	57.6	27.1	5.1	(59)
20대	2.5	3.3	4.8	0.3	47.8	40.7	0.5	(393)
30대	3.3	1.5	2.5	0.8	54.0	37.0	1.0	(400)
40대	1.5	1.7	2.5	0.8	46.0	46.9	0.6	(480)
50대	1.3	1.6	3.9	-	43.5	49.1	0.5	(558)
60대 이상	1.7	3.3	4.6	0.4	42.8	46.7	0.4	(460)
X ² (df)				na				
취업 여부								
취업	2.3	2.2	3.7	0.5	44.8	45.8	0.7	(1,669)
미취업	1.3	2.4	3.5	-	51.8	40.2	0.8	(629)
X ² (df)				13.89(6) [*]				

* $p < .05$,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3-9>는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가 26.4%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20.7%,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17.0%,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13.4% 순이었다.

남자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가 가장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가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에 비해 20대 이하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자녀가 없

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대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9〉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전체	20.7	1.0	13.4	17.0	1.7	0.2	1.0	12.3	0.9	26.4	5.4	(576)
성별 구분												
남자	25.5	-	18.0	13.4	1.3	-	1.3	14.2	-	21.3	5.0	(239)
여자	17.2	1.8	10.1	19.6	2.1	0.3	0.9	11.0	1.5	30.0	5.6	(337)
X ² (df)	na											
연령												
15~19세	20.6	-	8.8	26.5	5.9	-	-	17.6	-	20.6	-	(34)
20대	23.5	0.5	15.8	21.9	1.6	-	1.6	11.5	-	18.6	4.9	(183)
30대	19.5	1.8	20.4	17.7	2.7	-	0.9	8.8	1.8	22.1	4.4	(113)
40대	22.6	-	6.5	11.3	0.8	0.8	-	12.9	2.4	37.1	5.6	(124)
50대	16.0	2.1	14.9	14.9	1.1	-	1.1	14.9	-	28.7	6.4	(94)
60대 이상	14.3	3.6	-	3.6	-	-	3.6	14.3	-	46.4	14.3	(28)
X ² (df)	na											

주: ①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②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③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④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⑤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⑥배우자가 아이를 싫어해서, ⑦유전병 등 질환 때문에, ⑧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많이 되어서, ⑨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불임 등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어서, ⑩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⑪기타

<표 III-3-10>은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3.4%, 대체로 동의한다 63.7%,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여부에 따르면 미혼인 경우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0〉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 1)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 : 4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수	평균
전체	1.2	13.4	63.7	21.7	(3,000)	3.06
성별 구분						
남자	1.4	13.8	63.3	21.5	(1,522)	3.05
여자	0.9	13.1	64.1	21.9	(1,478)	3.07
$X^2(df)/t$		2.00(3)				-0.95
연령						
15~19세	1.0	9.2	60.2	29.6	(98)	3.18
20대	1.7	9.7	57.8	30.9	(599)	3.18
30대	1.9	10.8	67.3	20.0	(526)	3.05
40대	0.8	14.1	66.9	18.1	(623)	3.02
50대	0.8	17.9	61.3	20.1	(661)	3.01
60대 이상	1.0	14.8	66.7	17.4	(493)	3.01
$X^2(df)/F$		68.35(15)***				7.14***
혼인 여부						
미혼	1.7	11.9	60.1	26.2	(922)	3.11
배우자 있음	0.8	13.9	65.5	19.7	(1,922)	3.04
배우자 없음	2.6	16.0	62.2	19.2	(156)	2.98
$X^2(df)/F$		25.12(6)***				4.84**
자녀 유무						
유	1.0	14.3	65.5	19.2	(1,936)	3.03
무	0.7	11.3	61.3	26.8	(142)	3.14
$X^2(df)/t$		5.22(3)				-2.06*

* $p < .05$,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3-11〉은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7%,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1.5%, 대체로 동의한다가 46.8%,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7.0%로 나타났다. 대체로 동의한다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이 53.8%로 나타나 근소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보다 동의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근소하게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한 경우가 미취업인 경우보다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1〉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 2)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 4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수	평균
전체	4.7	41.5	46.8	7.0	(3,000)	2.56
성별 구분						
남자	4.0	36.8	50.3	8.9	(1,522)	2.64
여자	5.3	46.3	43.3	5.0	(1,478)	2.48
X ² (df)/t		43.65(3) ^{***}				6.43 ^{***}
연령						
15~19세	10.2	43.9	34.7	11.2	(98)	2.47
20대	5.7	39.4	46.2	8.7	(599)	2.58
30대	4.9	43.7	44.5	6.8	(526)	2.53
40대	4.5	43.2	48.3	4.0	(623)	2.52
50대	3.8	40.4	50.1	5.7	(661)	2.58
60대 이상	3.4	40.6	46.2	9.7	(493)	2.62
X ² (df)/F		37.86(15) ^{**}				1.94
취업 여부						
취업	4.3	39.9	49.0	6.8	(2,097)	2.58
미취업	5.2	45.6	41.8	7.3	(822)	2.51
X ² (df)/t		12.35(3) ^{**}				2.50 [*]

* $p < .05$, ** $p < .01$,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3-12〉는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2.4%, 대체로 동의한다 60.4%,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12.9%로 나타났다. 대체로 동의한다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이 73.3%로 나타나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미혼인 경우에 비해, 영유아 자녀가 없는 경우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2〉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 3)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 4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수	평균
전체	4.3	22.4	60.4	12.9	(3,000)	2.82
성별 구분						
남자	4.3	21.5	59.1	15.2	(1,522)	2.85
여자	4.4	23.3	61.8	10.5	(1,478)	2.78
X ² (df)/t		14.88(3)**				2.63**
연령						
15~19세	11.2	23.5	50.0	15.3	(98)	2.69
20대	5.8	23.9	54.1	16.2	(599)	2.81
30대	4.2	27.6	56.7	11.6	(526)	2.76
40대	4.7	22.8	62.9	9.6	(623)	2.78
50대	2.9	21.0	61.7	14.4	(661)	2.88
60대 이상	2.8	16.0	69.4	11.8	(493)	2.90
X ² (df)/F		63.62(15)***				4.20**
혼인 여부						
미혼	6.2	25.4	55.0	13.4	(922)	2.76
배우자 있음	3.5	21.1	62.7	12.7	(1,922)	2.85
배우자 없음	3.8	20.5	64.1	11.5	(156)	2.83
X ² (df)/F		23.04(6)**				5.11**
영유아자녀유무						
유	4.8	25.3	56.9	13.0	(501)	2.78
무	3.2	19.4	64.7	12.8	(1,435)	2.87
X ² (df)/t		12.52(3)**				-2.43*

* $p < .05$, ** $p < .01$,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3-13〉은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해야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0.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가 6.7%, 대체로 동의한다가 70.8%,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22.1%로 나타났다. 대체로 동의한다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3〉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 4)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해야 한다 : 4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수	평균
전체	0.3	6.7	70.8	22.1	(3,000)	3.15
성별 구분						
남자	0.2	7.0	69.6	23.3	(1,522)	3.16
여자	0.4	6.5	72.1	21.0	(1,478)	3.14
$X^2(df)/t$		3.79(3)				1.16
연령						
15~19세	-	15.3	59.2	25.5	(98)	3.10
20대	0.2	8.5	69.8	21.5	(599)	3.13
30대	0.4	6.5	71.1	22.1	(526)	3.15
40대	0.2	5.0	74.3	20.5	(623)	3.15
50대	0.5	6.4	69.4	23.8	(661)	3.16
60대 이상	0.4	5.9	71.6	22.1	(493)	3.15
$X^2(df)/F$		na				0.50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3-14〉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9.9%, 대체로 동의한다 50.2%,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4.6%로 나타났다. 대체로 동의한다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이 54.8%로 나타나 근소하게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미혼인 경우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취업한 경우가 미취업인 경우보다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4〉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 5)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4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수	평균
전체	5.3	39.9	50.2	4.6	(3,000)	2.54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수	평균
성별 구분						
남자	3.9	37.1	53.2	5.8	(1,522)	2.61
여자	6.7	42.8	47.2	3.3	(1,478)	2.47
X ² (df)/t	33.53(3) ^{***}					5.75 ^{***}
연령						
15~19세	14.3	53.1	28.6	4.1	(98)	2.22
20대	13.2	54.3	29.0	3.5	(599)	2.23
30대	7.4	47.7	42.0	2.9	(526)	2.40
40대	2.2	37.9	56.3	3.5	(623)	2.61
50대	0.8	31.5	61.3	6.5	(661)	2.74
60대 이상	1.4	25.4	66.5	6.7	(493)	2.78
X ² (df)/F	356.14(15) ^{***}					67.62 ^{***}
혼인 여부						
미혼	10.8	52.9	33.2	3.0	(922)	2.28
배우자 있음	2.7	34.0	58.0	5.3	(1,922)	2.66
배우자 없음	4.5	35.3	55.1	5.1	(156)	2.61
X ² (df)/F	220.58(6) ^{***}					106.41 ^{***}
자녀 유무						
유	2.4	33.7	58.4	5.4	(1,936)	2.67
무	7.7	39.4	49.3	3.5	(142)	2.49
X ² (df)/t	17.48(3) ^{**}					3.06 ^{**}
취업 여부						
취업	4.3	39.3	51.6	4.7	(2,097)	2.57
미취업	7.1	41.1	47.7	4.1	(822)	2.49
X ² (df)/t	11.30(3) [*]					2.81 ^{**}

* $p < .05$, ** $p < .01$,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3-15>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5%,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8.9%, 대체로 동의한다 37.0%, 전적으로 동의한다 4.6%로 나타났다. 대체로 동의한다와 전적으로 동의한다의 합계는 41.6%로 나타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다른 연령대 보다 20~30대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5〉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 6)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4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수	평균
전체	9.5	48.9	37.0	4.6	(3,000)	2.37
성별 구분						
남자	11.6	50.0	33.7	4.7	(1,522)	2.32
여자	7.4	47.8	40.4	4.4	(1,478)	2.42
$X^2(df)/t$		23.81(3) ^{***}				-3.91 ^{***}
연령						
15~19세	14.3	39.8	39.8	6.1	(98)	2.38
20대	8.8	43.9	39.7	7.5	(599)	2.46
30대	7.8	49.4	37.8	4.9	(526)	2.40
40대	9.6	47.5	38.2	4.7	(623)	2.38
50대	9.8	53.1	34.2	2.9	(661)	2.30
60대 이상	10.5	52.5	34.5	2.4	(493)	2.29
$X^2(df)/F$		38.75(15) ^{**}				4.57 ^{***}
자녀 유무						
유	8.5	48.1	39.0	4.4	(1,936)	2.39
무	12.0	54.9	29.6	3.5	(142)	2.25
$X^2(df)/t$		6.41(3)				2.39 [*]

* $p < .05$, ** $p < .01$,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3-16>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1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이 32.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31.9%, 자녀의 심리적 안정 10.3%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는 자녀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여자는 자녀양육과 일의 병행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아 남자와 여자와의 양육 어려움에 있어서 시각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자녀 양육과 일에 병행은 2~30대에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인 경우는 자녀양육과 일의 병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맞벌이 아닌 경우는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이 올라갈수록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과 더불어 자녀의 학업/직업성취,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 대해 응답하는 비율이 근소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3-16〉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 1순위

단위: %(명)

구분	자녀 양육 과일의 병행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	자녀의 심리적 안정	자녀의 신체적 건강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배우자의 무관심, 부재	기타	수
전체	32.5	31.9	7.3	6.1	10.3	3.1	5.5	3.0	0.2	(3,000)
성별 구분										
남자	30.2	36.2	8.5	6.8	9.3	3.6	3.8	1.3	0.3	(1,522)
여자	34.8	27.5	6.2	5.3	11.4	2.6	7.2	4.7	0.2	(1,478)
X ² (df)				81.62(8)**						
연령										
15~19세	30.2	36.2	8.5	6.8	9.3	3.6	3.8	1.3	0.3	(98)
20대	34.8	27.5	6.2	5.3	11.4	2.6	7.2	4.7	0.2	(599)
30대	34.2	33.5	8.4	1.9	9.5	2.5	7.4	2.3	0.4	(526)
40대	29.9	32.9	7.5	5.6	12.0	1.9	6.1	3.7	0.3	(623)
50대	32.7	30.1	6.8	9.8	11.3	3.8	2.9	2.6	-	(661)
60대 이상	30.0	28.0	9.7	11.4	8.9	5.7	2.8	3.2	0.2	(493)
X ² (df)				165.30(40)						
맞벌이 유무										
맞벌이	36.8	26.9	7.5	7.9	10.8	2.8	4.6	2.5	0.1	(1,099)
맞벌이 아님	25.5	32.4	10.2	8.5	10.4	3.5	5.6	3.4	0.4	(823)
X ² (df)				32.33(8)**						
가구소득 ¹⁾										
60% 미만	32.1	36.0	5.9	3.9	9.9	3.7	5.1	3.5	-	(1,084)
60-80% 미만	32.1	35.0	6.2	4.4	8.2	5.3	6.2	2.6	-	(340)
80-100% 미만	28.9	34.6	9.0	7.9	8.4	2.2	5.1	3.3	0.7	(454)
100-120% 미만	29.5	30.5	10.0	6.1	13.2	1.4	5.7	3.0	0.7	(440)
120-140% 미만	36.9	24.2	7.1	6.3	11.9	4.0	7.9	1.6	-	(252)
140-160% 미만	40.9	33.0	4.5	9.1	5.7	1.1	2.3	3.4	-	(88)
160% 이상	37.4	19.9	8.2	11.1	12.9	2.6	5.3	2.3	0.3	(342)
X ² (df)				121.98(48)**						

* $p < .05$, ** $p < .01$, *** $p < .001$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3-17>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2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2순위는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19.4%,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 13.5%, 자녀의 심리적 안정 11.8%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모두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의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 남자는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11.0%로 여자의 응답비율 7.3%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3.9%로 남자의 응답비율 8.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30대는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10대에서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진 반면,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7〉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 2순위

단위: %(명)

구분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	자녀의 심리적 안정	자녀의 신체적 건강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배우자의 무관심, 부재	기타	수
전체	19.4	25.0	9.2	13.5	11.8	5.1	11.2	4.6	0.2	(3,000)
성별 구분										
남자	20.2	24.2	11.0	15.0	11.7	6.2	8.5	2.9	0.2	(1,522)
여자	18.5	25.7	7.3	12.0	12.0	4.0	13.9	6.4	0.2	(1,478)
$X^2(df)$				65.34(8)***						
연령										
15~19세	19.4	18.4	11.2	10.2	20.4	3.1	10.2	6.1	1.0	(98)
20대	24.4	28.2	6.8	4.3	10.9	6.0	15.2	3.7	0.5	(599)
30대	20.7	25.9	8.9	6.7	10.8	4.8	18.1	4.2	-	(526)
40대	18.3	25.5	9.0	14.3	10.8	5.3	12.8	4.0	-	(623)
50대	17.1	24.5	11.3	20.0	11.3	3.8	6.1	5.7	0.2	(661)
60대 이상	16.2	21.3	9.3	23.1	14.4	6.5	3.9	5.1	0.2	(493)
$X^2(df)$				239.28(40)***						
맞벌이 유무										
맞벌이	16.9	26.7	10.4	16.0	11.5	5.4	9.9	3.3	-	(1,099)
맞벌이 아님	15.9	21.4	9.2	19.6	12.5	5.6	11.1	4.5	0.2	(823)
$X^2(df)$				15.23(8)						
가구소득 ¹⁾										
60% 미만	22.4	25.6	9.0	8.9	12.4	5.5	10.5	5.2	0.5	(1,084)
60-80% 미만	20.0	25.6	6.8	11.5	10.9	6.2	13.2	5.9	-	(340)
80-100% 미만	18.9	24.4	8.4	15.6	13.2	3.7	11.2	4.2	0.2	(454)
100-120% 미만	17.5	25.2	9.3	18.0	8.4	4.5	12.0	5.0	-	(440)

구분	자녀 양육 과 일의 병행	양육 비용 에 대한 부담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자녀의 학업/ 직업적 성취	자녀 의 심리 적 안정	자녀 의 신체 적 건강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배우자 의 무관심, 부재	기타	수
120-140% 미만	13.9	25.4	12.7	17.9	13.1	5.6	9.1	2.4	-	(252)
140-160% 미만	19.3	23.9	6.8	17.0	8.0	5.7	17.0	2.3	-	(88)
160% 이상	16.1	22.8	11.1	17.5	13.7	5.0	9.9	3.8	-	(342)
X ² (df)	85.42(48)**									

** p < .01, *** p < .001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3-18>은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이 26.8%,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삶이 14.9%,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이 12.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응답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의 경우에는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20~30대의 경우에는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혼인 경우에는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I-3-18>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의 의미

단위: %(명)

구분	자녀가 명문대 학에 진학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 로 성장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	자녀가 좋은 배우자 를 만남	자녀가 경제적 으로 잘 삶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음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	기타	수
전체	6.1	26.8	12.7	2.1	14.9	32.6	4.5	0.3	(3000)
성별 구분									
남자	5.0	27.7	11.3	2.2	14.5	34.0	5.2	0.1	(1,522)

구분	자녀가 명문대학에 진학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남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삶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음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	기타	수
여자	7.2	25.8	14.1	2.0	15.4	31.2	3.8	0.4	(1,478)
X ² (df)	19.69(7)**								
연령									
15~19세	4.1	24.5	6.1	3.1	18.4	41.8	2.0	-	(98)
20대	4.3	34.9	9.5	2.3	15.2	29.0	4.3	0.3	(599)
30대	4.2	31.4	12.2	1.5	16.2	30.0	4.6	-	(526)
40대	9.3	20.7	13.6	1.8	16.7	34.2	3.5	0.2	(623)
50대	7.1	24.5	15.9	2.0	13.2	33.4	3.6	0.3	(661)
60대 이상	5.3	23.1	13.0	3.0	12.6	34.9	7.5	0.6	(493)
X ² (df)	99.32(35)***								
혼인 여부									
미혼	4.7	32.4	11.0	2.1	16.4	29.7	3.6	0.2	(922)
배우자 있음	6.8	24.3	13.6	2.2	14.3	33.6	5.0	0.3	(1,922)
배우자 없음	6.4	23.7	12.2	1.9	13.5	38.5	3.2	0.6	(156)
X ² (df)	35.05(14)**								

** p < .01,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3-19>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과 열정에 따라 사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경제 안정과 열정에 따라 사는 것의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6%였다. 열정에 따라 사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4+5), 경제적인 안정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2.4%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안정보다는 열정에 따라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9> 자녀 성장 선호도 - 경제적 vs 열정 : 5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1 (경제적)	2	3	4	5 (열정)	수	평균
전체	10.4	22.0	33.6	25.3	8.8	(3,000)	3.00
성별 구분							

구분	1 (경제적)	2	3	4	5 (열정)	수	평균
남자	9.8	21.0	31.2	27.9	10.1	(1,522)	3.07
여자	11.0	23.0	36.1	22.6	7.4	(1,478)	2.92
$X^2(df)/t$			22.23(4) ^{***}				3.72 ^{***}
연령							
15~19세	8.2	18.4	34.7	29.6	9.2	(98)	3.13
20대	8.2	20.4	36.4	26.2	8.8	(599)	3.07
30대	9.1	21.9	31.2	28.1	9.7	(526)	3.07
40대	10.0	21.8	32.3	25.7	10.3	(623)	3.04
50대	13.8	23.1	32.1	24.7	6.4	(661)	2.87
60대 이상	10.8	23.5	36.3	20.5	8.9	(493)	2.93
$X^2(df)/F$			31.81(20) [*]				3.71 ^{**}
혼인 여부							
미혼	7.4	20.2	34.2	28.6	9.7	(922)	3.13
배우자 있음	11.4	23.1	33.0	24.0	8.4	(1,922)	2.95
배우자 없음	14.7	19.2	37.2	20.5	8.3	(156)	2.88
$X^2(df)/F$			24.74(8) ^{**}				9.30 ^{***}
학력							
고졸이하	11.2	22.6	35.9	23.0	7.3	(810)	2.92
전문대졸	12.2	20.3	35.9	21.5	10.0	(409)	2.97
대졸	9.8	22.8	32.0	26.2	9.2	(1,516)	3.02
대학원졸 이상	8.3	18.1	32.1	32.8	8.7	(265)	3.15
$X^2(df)/F$			23.49(12) [*]				3.28 [*]

* $p < .05$, ** $p < .01$,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3-20>은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과 부모로서 자녀에게 권위를 보여주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중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3%,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9.4%(1+2),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인 5.3%(4+5)였다. 대부분이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20> 자녀 성장 선호도 - 친구 vs 권위 : 5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1 (친구)	2	3	4	5 (권위)	수	평균
전체	28.1	41.3	25.3	4.2	1.1	(3,000)	2.09
성별 구분							

구분	1 (친구)	2	3	4	5 (권위)	수	평균
남자	23.8	40.5	29.6	4.9	1.2	(1,522)	2.19
여자	32.5	42.1	20.9	3.5	1.0	(1,478)	1.99
$X^2(df)/t$			46.55(4) ^{***}				6.40 ^{***}
연령							
15~19세	32.7	41.8	20.4	3.1	2.0	(98)	2.00
20대	33.6	42.2	19.4	3.8	1.0	(599)	1.96
30대	30.0	45.2	20.3	3.4	1.0	(526)	2.00
40대	29.1	40.1	25.2	4.5	1.1	(623)	2.09
50대	26.9	40.7	28.0	3.3	1.1	(661)	2.11
60대 이상	18.7	38.1	35.3	6.7	1.2	(493)	2.34
$X^2(df)/F$			74.07(20) ^{***}				11.45 ^{***}
혼인 여부							
미혼	29.5	43.8	22.6	3.3	0.9	(922)	2.02
배우자 있음	26.6	40.8	26.9	4.4	1.2	(1,922)	2.13
배우자 없음	37.2	32.7	21.8	7.7	0.6	(156)	2.02
$X^2(df)/F$			24.26(8) ^{**}				5.01 ^{**}

** $p < .01$,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육아 행복감

4절에서는 육아행복감에 대한 대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표 III-4-1>은 자녀 양육에서의 가장 큰 즐거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자녀양육의 즐거움으로 자녀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 30.3%, 부모-자녀관계에서 애정과 지지 27.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과,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가 다소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는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4-1> 자녀 양육에서의 가장 큰 즐거움

단위: %(명)

구분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	자녀 돌봄과 지도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기타	수
전체	40.1	30.3	1.9	27.6	0.1	(3,000)
성별 구분						
남자	41.5	32.7	3.0	22.7	0.1	(1,522)
여자	38.6	27.9	0.9	32.6	0.1	(1,478)
X ² (df)			na			
연령						
15~19세	34.7	35.7	10.2	18.4	1.0	(98)
20대	28.5	43.2	2.8	25.4	-	(599)
30대	34.0	39.7	1.5	24.5	0.2	(526)
40대	37.4	29.7	1.6	31.3	-	(623)
50대	47.7	21.5	0.8	30.0	0.2	(661)
60대 이상	54.8	16.0	1.6	27.6	-	(493)
X ² (df)			na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4-2>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 중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한 비율은 1.0%였으며,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7.1%, 대체로 동의한다 66.7%,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25.2%였다. 대체로 동의한다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이 91.9%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인 경우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없을 때 보다 있는 경우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 - 1)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4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수	평균
전체	1.0	7.1	66.7	25.2	(3,000)	3.16
성별 구분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수	평균
남자	0.8	5.5	67.0	26.8	(1,522)	3.20
여자	1.2	8.9	66.4	23.5	(1,478)	3.12
$X^2(df)/t$	16.94(3)**					3.59***
연령						
15~19세	2.0	8.2	69.4	20.4	(98)	3.08
20대	2.0	11.2	67.1	19.7	(599)	3.05
30대	1.5	9.9	64.6	24.0	(526)	3.11
40대	0.3	7.9	67.4	24.4	(623)	3.16
50대	0.8	4.1	67.3	27.8	(661)	3.22
60대 이상	0.2	2.2	66.1	31.4	(493)	3.29
$X^2(df)/F$	78.72(15)***					12.36***
혼인 여부						
미혼	2.2	13.8	68.4	15.6	(922)	2.98
배우자 있음	0.5	4.3	65.8	29.4	(1,922)	3.24
배우자 없음	0.6	2.6	67.9	28.8	(156)	3.25
$X^2(df)/F$	150.11(6)***					70.88***
자녀 유무						
유	0.4	3.7	65.2	30.7	(1,936)	3.26
무	1.4	10.6	76.1	12.0	(142)	2.99
$X^2(df)/t$	35.65(3)***					5.94***

** $p < .01$,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4-3>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 중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에 응답한 비율이 2.2%였으며,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9.7%, 대체로 동의한다 56.9%,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21.2%였다. 대체로 동의한다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8.1%로 나타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육체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대로는 20-30대가 자녀를 키는데 있어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혼인 경우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를 키우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4-3>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 - 2)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 4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수	평균
전체	2.2	19.7	56.9	21.2	(3,000)	2.97
성별 구분						
남자	2.8	25.0	58.7	13.5	(1,522)	2.83
여자	1.6	14.2	55.1	29.2	(1,478)	3.12
$X^2(df)/t$		137.14(3) ^{***}				-11.45 ^{***}
연령						
15~19세	2.0	13.3	67.3	17.3	(98)	3.00
20대	1.0	9.0	55.3	34.7	(599)	3.24
30대	0.8	8.9	59.5	30.8	(526)	3.20
40대	1.9	17.5	62.4	18.1	(623)	2.97
50대	3.9	29.5	52.6	13.9	(661)	2.77
60대 이상	3.0	34.9	52.9	9.1	(493)	2.68
$X^2(df)/F$		317.28(15) ^{***}				62.40 ^{***}
혼인 여부						
미혼	1.2	10.0	57.4	31.5	(922)	3.19
배우자 있음	2.5	23.5	57.3	16.7	(1,922)	2.88
배우자 없음	3.8	30.1	49.4	16.7	(156)	2.79
$X^2(df)/F$		140.96(6) ^{***}				68.45 ^{***}
자녀 유무						
유	2.7	25.0	56.7	15.6	(1,936)	2.85
무	0.7	9.9	57.7	31.7	(142)	3.20
$X^2(df)/t$		35.30(3) ^{***}				-6.33 ^{***}
가구소득1)						
60% 미만	2.0	16.7	54.7	26.6	(1,084)	3.06
60-80% 미만	1.5	22.4	59.7	16.5	(340)	2.91
80-100% 미만	2.2	20.7	56.8	20.3	(454)	2.95
100-120% 미만	2.0	18.9	59.3	19.8	(440)	2.97
120-140% 미만	1.6	25.0	57.9	15.5	(252)	2.87
140-160% 미만	3.4	21.6	60.2	14.8	(88)	2.86
160% 이상	3.5	21.6	56.7	18.1	(342)	2.89
$X^2(df)/F$		43.82(18) ^{**}				5.10 ^{***}

** $p < .01$, *** $p < .001$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4-4>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 중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로 부담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2%였으며,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9.6%, 대체로 동의한다 52.9%,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13.3%였다. 대체로 동의한다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이 66.2%로 나타나 동의한다는 비율이 동의하지 않는다는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대로는 20~30대에서, 미혼인 경우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를 키우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4-4〉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 - 3)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 4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수	평균
전체	4.2	29.6	52.9	13.3	(3,000)	2.75
성별 구분						
남자	4.8	36.5	49.4	9.3	(1,522)	2.63
여자	3.6	22.5	56.5	17.5	(1,478)	2.88
$X^2(df)/t$		96.60(3) ^{***}				-9.31 ^{***}
연령						
15~19세	0.0	25.5	60.2	14.3	(98)	2.89
20대	2.8	14.4	58.3	24.5	(599)	3.05
30대	1.9	21.5	59.9	16.7	(526)	2.91
40대	3.0	28.4	56.3	12.2	(623)	2.78
50대	6.7	38.0	47.5	7.9	(661)	2.57
60대 이상	7.3	47.7	40.4	4.7	(493)	2.42
$X^2(df)/F$		298.90(15) ^{***}				58.63 ^{***}
혼인 여부						
미혼	1.8	17.0	59.4	21.7	(922)	3.01
배우자 있음	5.2	35.0	50.5	9.4	(1,922)	2.64
배우자 없음	6.4	37.2	44.2	12.2	(156)	2.62
$X^2(df)/F$		171.54(6) ^{***}				86.03 ^{***}
자녀 유무						
유	5.5	36.0	49.7	8.8	(1,936)	2.62
무	2.1	23.9	53.5	20.4	(142)	2.92
$X^2(df)/t$		27.12(3) ^{***}				-4.81 ^{***}
가구소득 ¹⁾						
60% 미만	3.9	23.9	55.1	17.2	(1,084)	2.86
60-80% 미만	3.2	31.8	52.1	12.9	(340)	2.75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수	평균
80-100% 미만	4.6	33.5	50.7	11.2	(454)	2.69
100-120% 미만	4.1	30.0	52.7	13.2	(440)	2.75
120-140% 미만	5.2	36.9	47.6	10.3	(252)	2.63
140-160% 미만	4.5	39.8	46.6	9.1	(88)	2.60
160% 이상	5.0	31.6	55.6	7.9	(342)	2.66
$X^2(df)/F$		53.02(18) ^{***}				6.89 ^{***}

*** $p < .001$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4-5>는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8%였으며,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4.3%, 대체로 동의한다 58.8%,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25.1%였다. 대체로 동의한다와 전적으로 동의한다에 응답한 비율의 합이 83.9%으로 나타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대로는 20~30대가, 미혼인 경우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5>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 - 4)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 4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수	평균
전체	1.8	14.3	58.8	25.1	(3,000)	3.07
성별 구분						
남자	2.3	17.1	60.4	20.2	(1,522)	2.98
여자	1.3	11.4	57.2	30.1	(1,478)	3.16
$X^2(df)/t$		52.22(3) ^{***}				-7.19 ^{***}
연령						
15~19세	1.0	13.3	63.3	22.4	(98)	3.07
20대	0.7	5.3	56.1	37.9	(599)	3.31
30대	0.8	10.1	62.5	26.6	(526)	3.15
40대	1.6	12.5	57.5	28.4	(623)	3.13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수	평균
50대	2.7	19.4	60.4	17.5	(661)	2.93
60대 이상	3.4	25.6	56.8	14.2	(493)	2.82
$X^2(df)/F$	199.56(15) ^{***}					39.42 ^{***}
혼인 여부						
미혼	1.0	6.7	57.2	35.1	(922)	3.26
배우자 있음	2.1	17.8	60.2	19.9	(1,922)	2.98
배우자 없음	3.2	16.7	51.3	28.8	(156)	3.06
$X^2(df)/F$	120.56(6) ^{***}					56.94 ^{***}
자녀 유무						
유	2.3	18.5	59.7	19.6	(1,936)	2.97
무	0.7	7.0	57.7	34.5	(142)	3.26
$X^2(df)/t$	25.70(3) ^{***}					-4.98 ^{***}
가구소득 ¹⁾						
60% 미만	1.5	10.3	57.4	30.8	(1,084)	3.18
60-80% 미만	0.6	16.5	59.7	23.2	(340)	3.06
80-100% 미만	2.2	13.9	58.8	25.1	(454)	3.07
100-120% 미만	2.5	14.3	61.1	22.0	(440)	3.03
120-140% 미만	2.0	19.4	59.1	19.4	(252)	2.96
140-160% 미만	-	25.0	55.7	19.3	(88)	2.94
160% 이상	2.9	19.0	59.9	18.1	(342)	2.93
$X^2(df)/F$	67.38(18) ^{***}					8.73 ^{***}

*** $p < .001$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4-6>은 영유아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월 평균 101~20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201~300만원이 26.5%, 1~100만원이 19.3% 순이었다. 평균은 235.33만원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가 응답한 평균은 239.59만원이었으며 남자는 231.20만원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응답한 평균은 258.74만원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평균 215.47만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를 낮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인 경우는 평균이 252.80만원이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219.35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228.28만원으로 미혼인 경우 자녀의 경제적 가치를 높게 보았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응답 평균은 247.73만원, 없는 경

우는 218.48만원으로 있는 경우가 더 높았다.

〈표 III-4-6〉 영유아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월 평균)

단위: %(명), 만원

구분	0원	1-100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1-600	601-700	701-800	901-1,000	수	평균
전체	0.3	19.3	37.5	26.5	8.2	6.3	0.5	0.0	0.1	1.2	(3,000)	235.33
성별 구분												
남자	0.3	20.9	37.8	23.9	8.8	6.6	0.4	0.1	0.1	1.1	(1,522)	231.20
여자	0.2	17.7	37.3	29.2	7.6	6.1	0.7	-	0.1	1.2	(1,478)	239.59
$X^2(df)/t$					na							-1.64
연령												
15~19세	-	16.3	33.7	25.5	13.3	7.1	1.0	-	1.0	2.0	(98)	258.74
20대	0.3	15.2	36.2	28.5	9.0	7.7	0.5	-	0.2	2.3	(599)	258.21
30대	0.4	16.7	33.5	30.2	8.9	8.2	1.1	0.2	-	0.8	(526)	249.15
40대	-	19.1	39.2	24.9	9.3	5.9	0.3	-	0.2	1.1	(623)	234.56
50대	0.2	21.9	40.5	25.6	5.9	5.0	0.2	-	-	0.8	(661)	215.67
60대 이상	0.6	24.3	38.1	23.7	7.1	4.9	0.6	-	-	0.6	(493)	215.47
$X^2(df)/F$					na							8.82***
혼인 여부												
미혼	0.4	16.6	36.9	26.8	9.0	6.9	0.9	0.1	0.2	2.2	(922)	252.80
배우자 있음	0.2	20.5	37.6	26.3	8.0	6.3	0.4	-	0.1	0.7	(1,922)	228.28
배우자 없음	-	20.5	40.4	28.2	6.4	3.2	-	-	-	1.3	(156)	219.35
$X^2(df)/F$					na							9.44***
영유아자녀유무												
유	0.2	16.4	32.7	31.7	10.4	7.6	0.4	-	-	0.6	(501)	247.73
무	0.2	22.4	39.4	24.6	7.2	5.2	0.3	-	0.1	0.7	(1,435)	218.48
$X^2(df)/t$					na							4.26***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4-7>은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한다는 응답이 76.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한다 14.6%,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진다가 7.6%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다만 비교적 낮은 연령대에서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나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7〉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단위: %(명)

구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	기타	수
전체	7.6	76.1	14.6	1.5	0.2	(3,000)
성별 구분						
남자	9.9	73.7	14.5	1.9	0.1	(1,522)
여자	5.3	78.6	14.7	1.1	0.3	(1,478)
X ² (df)	na					
연령						
15~19세	8.2	63.3	25.5	3.1	-	(98)
20대	5.3	72.8	19.0	2.3	0.5	(599)
30대	8.2	69.2	20.7	1.7	0.2	(526)
40대	5.0	76.9	16.1	1.9	0.2	(623)
50대	10.4	80.6	8.0	0.8	0.2	(661)
60대 이상	9.3	82.8	7.5	0.4	-	(493)
X ² (df)	na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육아정책

5절에서는 보육 및 유아교육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기관서비스, 교사 전문성, 비용지원정책, 사교육, 일·가정 양립 정책, 저출산 정책, 아동수당, 정책 만족도 등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역할

<표 III-5-1>은 국가차원에서 육아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23.2%가 많았으며, '아이의 행복'은 5.8%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이 여자(36.8%)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여자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남자(34.8%)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영유아 자녀 양육기와 경제활동 등과 관련성이 높은 20~30

대 연령에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10대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아이의 행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성인들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조부모일 가능성이 높은 60대 이상에서도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영유아 가정 중 맞벌이가 아닌 경우 일수록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등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비율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성을,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요구는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5-1〉 국가차원의 육아정책 설계에서의 우선순위

단위: %(명)

구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아이의 행복	기타	수
전체	31.2	23.2	39.7	5.8	0.1	(3,000)
성별 구분						
남자	27.7	24.0	42.4	5.7	0.1	(1,522)
여자	34.8	22.3	36.8	5.9	0.1	(1,478)
연령						
15~19세	22.4	32.7	32.7	12.2	-	(98)
20대	36.6	16.2	42.2	4.8	0.2	(599)
30대	32.7	19.6	43.7	4.0	-	(526)
40대	32.7	21.8	39.5	5.8	0.2	(623)
50대	27.8	27.7	37.8	6.7	-	(661)
60대 이상	27.6	29.2	36.3	6.5	0.4	(493)
영유아자녀유무						
유	28.3	21.4	45.1	5.0	0.2	(501)
무	29.8	26.8	36.7	6.5	0.1	(1,435)
맞벌이 유무						
맞벌이	31.7	25.1	37.5	5.6	0.1	(1,099)
맞벌이 아님	27.9	24.9	41.6	5.5	0.1	(823)
학력						
고졸이하	28.3	22.5	43.0	6.2	0.1	(810)
전문대졸	36.4	20.3	38.1	5.1	-	(409)
대졸	31.2	23.4	39.3	5.9	0.2	(1,516)
대학원졸 이상	32.5	28.7	34.0	4.9	-	(265)
가구소득 ¹⁾						
60% 미만	30.4	22.1	42.3	5.0	0.2	(1,084)
60-80% 미만	30.3	20.9	43.2	5.3	0.3	(340)

구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아이의 행복	기타	수
80-100% 미만	30.2	21.4	41.4	7.0	-	(454)
100-120% 미만	27.3	26.6	38.4	7.7	-	(440)
120-140% 미만	32.9	22.2	38.5	6.3	-	(252)
140-160% 미만	42.0	25.0	27.3	5.7	-	(88)
160% 이상	37.4	26.9	31.0	4.4	-	(342)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5-2>는 정부의 육아지원 재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그 결과 '국가 재정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48.8%, '0-5세 무상 보육·유아교육 이행'이 42.1%로 나타나, 무상지원보다는 차별적 지원이 우선순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 자녀양육 가능성이 높은 20대~30대와 10대 청소년에서 무상지원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에서는 차별적 지원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라 육아 재정지원 설계의 우선순위에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녀유무와 영유아 자녀유무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이 차별적 지원(51.3%)이 보편적 무상지원(39.9%)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영유아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지원(33.3%), 보편적 무상지원(62.1%)로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표 III-5-2> 정부의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설계에서의 우선순위

단위: %(명)

구분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	0-5세 무상 보육·유아교 육 이행	모르겠음	기타	수
전체	48.8	42.1	7.8	1.4	(3,000)
성별 구분					
남자	48.3	44.2	6.4	1.2	(1,522)
여자	49.3	40.0	9.2	1.6	(1,478)
X ² (df)		11.72(3)**			
연령					
15~19세	34.7	53.1	10.2	2.0	(98)

구분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	0-5세 무상 보육·유아교 육 이행	모르겠음	기타	수
20대	42.4	49.2	7.3	1.0	(599)
30대	38.4	54.4	6.3	1.0	(526)
40대	50.7	38.7	8.5	2.1	(623)
50대	59.2	31.2	8.2	1.5	(661)
60대 이상	54.0	37.1	7.9	1.0	(493)
$X^2(df)$		98.14(15) ^{***}			
자녀 유무					
유	51.3	39.9	7.1	1.7	(1,936)
무	40.8	53.5	4.9	0.7	(142)
$X^2(df)$		10.49(3) [*]			
영유아자녀유무					
유	33.3	62.1	3.4	1.2	(501)
무	57.6	32.2	8.4	1.8	(1,435)
$X^2(df)$		139.55(3) ^{***}			
학력					
고졸이하	47.5	38.8	12.6	1.1	(810)
전문대졸	45.2	44.5	8.8	1.5	(409)
대졸	50.5	42.5	5.7	1.3	(1,516)
대학원졸 이상	47.9	46.4	3.4	2.3	(265)
$X^2(df)$		48.16(9) ^{***}			
가구소득 ¹⁾					
60% 미만	46.5	42.3	10.2	1.0	(1,084)
60-80% 미만	49.1	42.4	6.2	2.4	(340)
80-100% 미만	49.6	41.6	7.9	0.9	(454)
100-120% 미만	50.5	43.6	5.0	0.9	(440)
120-140% 미만	51.6	39.7	7.5	1.2	(252)
140-160% 미만	48.9	46.6	3.4	1.1	(88)
160% 이상	50.3	40.6	6.1	2.9	(342)
$X^2(df)$		31.62(18) [*]			

* $p < .05$, ** $p < .01$, *** $p < .001$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정책 관련

<표 III-5-3>과 <표 III-5-4>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육·교육에 있어서 강조해야 할 점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먼저 어린이집의 경우(표 III-5-3 참조), 전체적으로(1+2순위) 인성지도(65.6%), 안전한 보호(44.5%), 균형있는 발달(34.9%), 자유놀이 중심 활동(24.7%), 급간식 등 건강관리(14.4%)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의 경우(표 III-5-4 참조), 전체적으로(1+2순위) 인성지도(79.1%), 균형있는 발달(39.6%), 안전한 보호(33.7%), 자유놀이 중심 활동(21.3%), 급간식 등 건강관리(11.3%)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인성지도에 우선순위가 가장 많았으며, 차순위로 어린이집은 안전한 보호를 유치원은 균형있는 발달을 꼽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외 강조사항인 쓰기, 읽기 등 인지교육이나, 자녀-부모 간 관계, 특별활동, 충분한 휴식 등은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연령대별, 혼인 여부, 영유아자녀유무, 맞벌이 유무에 따라서 비슷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III-5-3〉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시 강조해야 할 점(1+2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전체	34.9	65.6	44.5	24.7	14.4	4.2	8.1	1.3	1.9	0.1	0.1	(3,000)
성별 구분												
남자	36.8	64.5	40.8	24.6	14.6	5.2	9.7	1.1	2.2	0.1	.2	(1,522)
여자	32.9	66.8	48.3	24.8	14.2	3.2	6.4	1.5	1.7	0.1	-	(1,478)
연령												
15~19세	19.4	57.1	45.9	31.6	13.3	10.2	13.3	1.0	6.1	-	1.0	(98)
20대	34.9	61.6	45.7	24.9	14.7	5.7	7.3	2.8	2.0	-	0.2	(599)
30대	31.7	60.6	54.9	23.6	14.3	3.6	7.6	1.9	1.3	0.4	-	(526)
40대	38.2	70.0	39.6	25.8	12.2	4.7	7.4	0.3	1.8	-	-	(623)
50대	38.0	72.2	39.5	23.1	13.2	3.5	7.9	0.5	1.7	0.3	0.2	(661)
60대 이상	33.1	63.3	44.4	24.7	18.9	2.4	9.7	1.2	2.2	-	-	(493)
혼인 여부												
미혼	32.4	62.5	44.7	24.9	14.3	6.5	9.4	2.2	2.5	0.1	0.2	(922)
배우자 있음	36.3	66.8	44.2	24.9	14.6	3.0	7.4	0.9	1.6	0.2	0.1	(1,922)
배우자 없음	32.7	70.5	46.8	19.9	12.2	5.8	8.3	1.3	2.6	-	-	(156)
영유아자녀유무												
유	34.3	59.7	52.5	26.1	15.0	2.8	6.2	1.0	2.2	0.2	-	(501)
무	36.7	70.0	41.7	24.1	13.9	3.3	7.9	0.7	1.6	0.1	-	(1,435)
맞벌이 유무												
맞벌이	36.2	67.3	44.1	24.2	14.5	3.5	7.0	1.1	1.9	0.2	-	(1,099)
맞벌이 아님	36.3	66.0	44.3	25.9	14.8	2.4	8.0	0.6	1.2	0.1	0.1	(823)

주: 1) ①균형있는 발달, ②인성지도(정서 및 사회성 발달), ③안전한 보호, ④자유놀이 중심 활동, ⑤급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⑥쓰기·읽기를 강조한 인지교육, ⑦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⑧특별활동, ⑨충분한 휴식, ⑩기타, ⑪없음
 2)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5-4〉 유치원에서 교육시 강조해야 할 점(1+2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전체	39.6	79.1	33.7	21.3	11.3	3.2	9.1	1.2	1.1	0.2	0.1	(3,000)
성별 구분												
남자	42.5	77.7	30.2	20.4	11.7	3.9	10.6	1.4	1.1	0.1	0.2	(1,522)
여자	36.7	80.6	37.2	22.3	10.9	2.6	7.4	1.1	1.1	0.2	-	(1,478)
연령												
15~19세	26.5	75.5	39.8	21.4	7.1	12.2	9.2	2.0	4.1	-	1.0	(98)
20대	39.2	74.3	38.1	21.5	13.9	4.3	6.0	1.5	0.8	-	0.2	(599)
30대	36.1	74.9	42.4	18.1	11.4	4.0	8.9	2.7	1.1	0.4	-	(526)
40대	40.0	82.2	29.5	23.0	10.8	2.6	10.6	0.5	0.5	0.2	0.2	(623)
50대	42.5	83.5	28.4	23.3	8.6	1.5	10.1	0.8	0.9	0.3	-	(661)
60대 이상	42.2	80.5	30.0	19.7	13.2	2.4	9.5	0.8	1.6	-	-	(493)
혼인 여부												
미혼	36.3	77.2	37.5	20.0	11.6	4.4	9.1	1.5	1.5	0.1	0.3	(922)
배우자 있음	41.3	79.7	31.9	21.9	11.7	2.5	8.9	1.1	0.7	0.2	-	(1,922)
배우자 없음	39.1	83.3	32.1	21.8	5.1	5.1	10.3	0.6	2.6	-	-	(156)
영유아자녀유무												
유	38.5	73.5	37.9	21.8	12.0	5.2	7.2	2.2	1.4	0.4	-	(501)
무	41.6	82.4	29.8	22.2	10.7	1.8	9.9	0.7	0.8	0.1	-	(1,435)
맞벌이 유무												
맞벌이	41.7	79.1	31.9	21.5	11.8	2.8	8.9	1.3	0.7	0.3	-	(1,099)
맞벌이 아님	40.7	80.6	32.0	22.5	11.4	2.1	9.0	1.0	0.7	0.1	-	(823)

주: 1) ①균형있는 발달, ②인성지도(정서 및 사회성 발달), ③안전한 보호, ④자유놀이 중심 활동, ⑤급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⑥쓰기·읽기를 강조한 인지교육, ⑦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⑧특별활동, ⑨충분한 휴식, ⑩기타, ⑪없음
2)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5-5>와 <표 III-5-6>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먼저 어린이집의 경우(표 III-5-5 참조), 전체적으로(1+2순위) 집과의 거리 → 학부모 비용부담 → 원장 및 교사 → 프로그램 → 주변평판 → 운영시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핵심 수혜계층이라 할 수 있는 30대에서 집과의 거리, 운영시간, 주변의 평판, 원장 및 교사가 선택기준 우선순위가 높았다.

유치원의 경우(표 III-5-5 참조), 전체적으로(1+2순위) 집과의 거리 → 프로그램 → 학부모 비용부담 → 원장 및 교사 → 주변의 평판 → 운영시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비해 학교라는 개념이 강한 유치원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 이외에는 교육프로그램 등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가 어린이집에 비해

다소 높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I-5-5〉 어린이집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1+2순위)

단위: %(명)

구분	운영 시간	학부 모 비용 부담	집과 의 거리	국공 립 등 여부	주변 의 평판	차량 운행 여부	형제 재원 여부	원장 및 교사	프로 그램	기타	모르 겠음	수
전체	23.9	29.7	41.7	14.4	25.9	4.1	1.6	28.9	26.5	0.3	1.5	(3,000)
성별 구분												
남자	25.9	34.0	38.8	14.5	24.2	5.3	2.0	25.6	26.3	0.1	1.6	(1,522)
여자	21.9	25.2	44.7	14.3	27.5	2.9	1.2	32.3	26.6	0.5	1.5	(1,478)
연령												
15~19세	16.3	16.3	38.8	14.3	30.6	6.1	4.1	34.7	32.7	-	3.1	(98)
20대	25.7	26.7	34.2	12.7	28.9	5.5	2.7	35.4	22.4	0.5	2.7	(599)
30대	31.7	23.0	46.0	13.3	28.1	4.2	1.5	27.2	21.7	0.6	1.3	(526)
40대	20.2	32.3	42.2	15.6	28.3	3.0	1.1	25.8	29.2	0.3	1.0	(623)
50대	20.0	33.3	41.9	15.3	22.5	3.3	0.6	28.6	30.9	-	1.8	(661)
60대 이상	24.7	34.9	45.8	15.0	20.3	4.5	1.8	26.0	26.0	0.2	0.4	(493)
영유아자녀유무												
유	24.6	23.0	44.1	18.4	30.9	4.8	3.0	26.7	23.4	0.8	0.2	(501)
무	21.7	33.0	44.4	14.4	22.9	3.7	0.9	27.9	29.1	0.1	0.9	(1,435)
취업 여부												
취업	25.8	30.5	41.1	15.2	25.8	4.0	1.7	26.9	26.5	0.3	1.1	(2,097)
미취업	19.5	27.3	43.4	12.9	25.8	4.3	1.5	34.2	26.8	0.4	2.1	(822)
맞벌이 유무												
맞벌이	24.3	28.8	42.8	16.0	26.6	4.2	1.7	27.5	27.0	0.2	0.5	(1,099)
맞벌이 아님	21.7	31.6	46.1	14.0	24.2	3.5	1.1	28.1	27.2	0.1	1.2	(823)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5-6〉 유치원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1+2순위)

단위: %(명)

구분	운영 시간	학부 모 비용 부담	집과 의 거리	국공 립 등 여부	주변 의 평판	차량 운행 여부	형제 재원 여부	원장 및 교사	프로 그램	기타	모르 겠음	수
전체	18.8	32.5	39.1	17.7	23.2	4.2	1.3	26.5	33.3	0.4	1.6	(3,000)
성별 구분												
남자	20.2	36.9	37.6	18.5	22.1	4.9	1.6	23.3	31.3	0.3	1.6	(1,522)
여자	17.3	28.0	40.6	17.0	24.2	3.5	1.1	29.8	35.3	0.4	1.5	(1,478)
연령												
15~19세	12.2	14.3	38.8	15.3	34.7	10.2	2.0	32.7	34.7	1.0	2.0	(98)
20대	22.0	28.2	36.6	13.9	25.7	6.0	2.3	32.2	29.2	0.2	1.8	(599)

구분	운영 시간	학부 모 비용 부담	집과 의 거리	국공 립 등 여부	주변 의 평판	차량 운행 여부	형제 재원 여부	원장 및 교사	프로 그램	기타	모르 겠음	수
30대	23.6	27.2	39.9	20.2	28.5	3.6	1.5	23.0	27.6	0.8	2.1	(526)
40대	16.2	35.5	37.4	18.3	25.8	3.9	0.6	23.1	36.8	0.5	1.0	(623)
50대	16.8	34.9	40.1	18.3	17.7	3.3	0.6	27.5	36.9	0.2	1.8	(661)
60대 이상	16.8	40.2	42.0	18.9	16.0	2.8	1.6	24.7	34.7	0.2	1.0	(493)
영유아자녀유무												
유	18.6	29.9	37.3	21.6	30.9	5.0	1.8	23.0	29.5	0.8	0.8	(501)
무	16.3	36.6	40.8	17.6	18.9	3.4	1.0	25.7	37.2	0.1	1.2	(1,435)
맞벌이 유무												
맞벌이	20.4	32.8	39.7	19.1	23.3	4.1	1.3	24.5	32.9	0.4	0.8	(1,099)
맞벌이 아님	14.5	36.3	40.1	18.6	20.8	3.2	1.2	25.5	36.8	0.1	1.5	(823)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5-7>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신뢰수준은 보육교사는 3.02점, 유치원 교사는 3.20으로 보통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경우 20대와 자녀가 없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신뢰수준이 유의하게 다소 낮았으며, 유치원교사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모두 영유아 자녀 유무, 취업유무, 맞벌이 유무, 학력 및 가구소득에 따른 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5-7>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수준 : 5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수
전체	3.02	3.20	(3,000)
성별 구분			
남자	3.04	3.20	(1,522)
여자	2.99	3.20	(1,478)
$X^2(df)/t$	1.70	-0.08	
연령			
15~19세	3.22	3.32	(98)
20대	2.88	3.10	(599)
30대	3.01	3.21	(526)
40대	3.06	3.23	(623)
50대	3.03	3.21	(661)
60대 이상	3.08	3.25	(493)
$X^2(df)/F$	6.95***	4.15**	

구분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수
자녀 유무			
유	3.08	3.25	(1,936)
무	2.86	3.16	(142)
X ² (df)/t	3.44**	1.61**	

** p < .01,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5-8>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들이 갖추었으면 하는 사항(2가지 중복응답)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모두에게 '인성'과 '아이와의 상호작용'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영유아자녀유무별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20-30대와 영유아자녀가 있는 대상들은 40대 이상이나 영유아자녀가 없는 대상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동안 자녀의 행동, 안전, 발달, 교우관계 등 부모로서 잘 알지 못하는 정보로 인해 교사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5-8>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사항(2가지 선택)

단위: %(명)

구분	학력이 높은 교사	경력이 많은 교사	교육·보육	인성이 좋은 교사	부모와	아이와	기타	수
			내용에 대해 지식이 많은 교사		의사소통을 잘하는 교사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		
전체	0.7	5.7	20.6	80.4	13.9	78.7	-	(3,000)
성별 구분								
남자	0.9	6.6	22.9	80.0	15.2	74.3	-	(1,522)
여자	0.4	4.8	18.2	80.7	12.5	83.3	0.1	(1,478)
연령								
15~19세	-	4.1	19.4	79.6	18.4	78.6	-	(98)
20대	1.2	7.0	24.0	71.8	18.7	77.1	0.2	(599)
30대	1.1	5.9	19.6	78.1	17.9	77.4	-	(526)
40대	0.8	5.6	16.2	83.5	10.6	83.3	-	(623)
50대	0.2	4.8	18.9	87.4	10.0	78.7	-	(661)
60대 이상	0.2	5.7	25.4	79.9	12.4	76.5	-	(493)
영유아자녀유무								
유	1.4	8.8	17.2	76.2	18.8	77.6	-	(501)
무	0.3	5.2	20.5	84.8	10.0	79.2	-	(1,435)
유치원 교사	1.4	4.3	25.0	80.1	11.8	77.3	-	(3,000)
성별 구분								

구분	학력이 높은 교사	경력이 많은 교사	교육·보육		부모와	아이와	기타	수
			내용에 대해 지식이 많은 교사	인성이 좋은 교사	의사소통 을 잘하는 교사	상호작용 을 잘하는 교사		
남자	1.9	4.5	24.9	80.6	13.4	74.6	-	(1,522)
여자	0.9	4.1	25.1	79.6	10.2	80.1	0.1	(1,478)
연령								
15~19세	1.0	7.1	21.4	76.5	16.3	77.6	-	(98)
20대	2.0	4.0	27.5	71.1	16.4	78.8	0.2	(599)
30대	2.3	5.5	24.7	78.9	15.6	73.0	-	(526)
40대	1.4	4.2	24.4	81.4	8.8	79.8	-	(623)
50대	0.5	3.8	21.9	87.6	9.1	77.2	-	(661)
60대 이상	1.0	3.7	27.8	81.3	8.9	77.3	-	(493)
영유아자녀유무								
유	3.0	8.2	25.7	75.2	15.2	72.7	-	(501)
무	1.1	3.8	24.5	84.3	8.8	77.6	-	(1,435)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정부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지원 정책 인지정도

<표 III-5-9>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비용 지원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정부의 비용지원 정책으로는 ①0-2세 보육료 지원, ②3-5세 누리과정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③0-5세 전계층 양육수당 지원, ④시간연 장형 보육료 지원(시간연장, 야간보육, 휴일보육 등), ⑤시간제 보육료 지원, ⑥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6개 정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0-5세에 대한 보육료나 누리과정비, 양육수당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에서는 모른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로 30대 이상은 60%이상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에 대한 비용지원 정책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미혼인 경우에 모른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10-20대의 응답 결과는 어느정도 설명이 된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는 90% 이상이 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정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간연 장형 보육료 지원이나 시간제보육료 지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모른다는 비율이 더 많았으며, 성별, 연령에 따라서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 수

혜계층이라는 점에서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영유아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시간연 장형이나, 시간제 보육, 방과후과정 등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이 40% 수준에 이르러 정부의 영유아에 대한 비용지원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5-9〉 정부의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수
	안다	모른다											
전체	61.3	38.6	63.8	36.2	59.7	40.3	43.9	56.1	41.7	58.3	42.1	57.9	(3,000)
성별 구분													
남자	59.8	40.2	63.1	37.0	57.0	43.0	41.7	58.2	39.6	60.4	42.4	57.6	(1,522)
여자	63.0	37.0	64.7	35.3	62.5	37.5	46.0	53.9	43.9	56.1	41.7	58.3	(1,478)
연령													
15~19세	30.6	69.4	30.7	69.4	28.6	71.4	35.8	64.3	31.6	68.4	37.7	62.2	(98)
20대	39.9	60.1	41.9	58.1	35.9	64.1	33.9	66.1	28.2	71.8	27.2	72.8	(599)
30대	69.2	30.8	70.0	30.0	68.6	31.4	48.1	51.9	44.1	55.9	44.4	55.5	(526)
40대	70.2	29.9	75.6	24.4	70.5	29.5	48.4	51.5	45.9	54.1	48.0	52.0	(623)
50대	62.1	37.8	65.8	34.2	60.6	39.3	41.6	58.4	42.7	57.3	43.3	56.7	(661)
60대 이상	73.0	27.0	73.0	27.0	70.5	29.4	50.5	49.5	51.0	49.1	49.5	50.5	(493)
혼인 여부													
미혼	36.7	63.3	38.5	61.5	32.9	67.0	27.4	72.6	22.1	77.9	25.4	74.6	(922)
배우자 있음	73.0	27.0	76.0	24.0	72.3	27.7	51.8	48.2	51.1	48.9	50.2	49.9	(1,922)
배우자 없음	63.5	36.5	64.1	35.9	62.8	37.2	44.3	55.8	41.7	58.3	42.3	57.7	(156)
영유아자녀유무													
유	90.2	9.8	91.2	8.8	89.6	10.4	69.7	30.3	64.5	35.5	61.7	38.3	(501)
무	68.7	31.2	72.1	27.9	67.9	32.1	47.0	53.0	47.4	52.6	47.1	52.9	(1,435)
맞벌이 유무													
맞벌이	73.8	26.1	77.0	23.0	72.9	27.0	55.5	44.5	54.0	46.0	54.0	46.0	(1,099)
맞벌이 아님	71.9	28.1	74.6	25.4	71.4	28.6	46.7	53.2	47.2	52.7	45.0	55.0	(823)

주: 1) ①0-2세 보육료 지원, ②3-5세 누리과정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③0-5세 전계층 양육수당 지원, ④시간연 장형 보육료 지원(시간연장, 야간보육, 휴일보육 등), ⑤시간제 보육료 지원, ⑥유치원 방과후 과정

2)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5-10>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부가 우선 비중을 두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강화(25.8%),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19.4%),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17.5%), 아동학대 위험아동 조기발견 노력(12.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는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실시에 대한 요구비율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미혼인 경우에 처벌강화에 요구가 더 많

고,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처벌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5-10>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부의 우선 중점정책 요구수준

단위: %(명)

구분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영유아 학대 위험아 동 조기 발견 노력	아동 학대 신고 의무 자 확대	영유 아 학대 시 처벌 강화	아동 인권 존중 에 대한 홍보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지속 적인 교사, 부모 상담 지원	유치원 과 어린이 집 교사양 성과정 강화	기 타	수
전체	19.4	12.1	4.8	25.8	7.1	17.5	3.8	9.3	0.2	(3,000)
연령										
15~19세	12.2	20.4	7.1	34.7	3.1	10.2	3.1	8.2	1.0	(98)
20대	14.2	11.4	4.3	38.1	5.7	15.7	3.3	7.2	0.2	(599)
30대	13.5	12.5	5.5	29.1	7.0	21.1	3.4	7.6	0.2	(526)
40대	19.3	14.8	5.0	24.1	5.6	16.4	4.2	10.6	0.2	(623)
50대	24.2	8.9	4.7	20.7	9.2	18.8	4.4	8.9	0.2	(661)
60대 이상	27.2	11.8	4.1	14.8	8.5	16.8	3.7	12.8	0.4	(493)
X ² (df)				170.13(40)	***					
혼인 여부										
미혼	13.8	12.0	4.7	33.7	6.4	16.1	4.0	9.0	0.3	(922)
배우자 있음	21.8	12.1	5.1	22.5	7.1	18.2	3.9	9.1	0.2	(1,922)
배우자 없음	23.1	12.2	1.9	19.9	10.3	17.3	1.9	13.5	-	(156)
X ² (df)				67.27(16)	***					
영유아자녀유무										
유	15.4	13.2	5.2	30.1	5.4	22.0	3.0	5.8	-	(501)
무	23.8	11.8	4.6	19.4	8.3	16.7	4.1	11.0	0.3	(1,435)
X ² (df)				55.56(8)	***					
맞벌이 유무										
맞벌이	19.9	12.6	4.9	23.3	7.4	20.2	3.5	8.1	0.1	(1,099)
맞벌이 아님	24.3	11.4	5.3	21.5	6.8	15.4	4.4	10.4	0.4	(823)
X ² (df)				17.24(8)	*					

* $p < .05$,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5-11>은 영유아가 있는 부모들이 왜 사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반적으로(1+2순위)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뒤쳐질까 봐’(60.4%),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58.6%), ‘하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26.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중 79.2%가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대상 사교육 과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II-5-11〉 영유아 사교육의 이유(1+2순위)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아이들 이 하나까 뒤쳐질까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유치원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만으로는 부족해서	하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기타	수
전체	2.9	20.7	58.6	60.4	15.7	14.7	26.2	0.8	(3,000)
영유아자녀유무									
유무	7.4	24.4	58.3	48.5	20.0	13.2	27.9	0.4	(501)
무	2.0	20.6	61.1	58.7	15.5	15.8	25.6	0.7	(1,435)
맞벌이 유무									
맞벌이	3.3	22.5	58.7	55.9	17.0	13.6	28.5	0.5	(1,099)
맞벌이 아님	2.9	20.0	62.3	57.6	16.9	15.9	23.5	0.9	(823)
가구소득 ¹⁾									
60% 미만	2.9	20.0	57.5	65.3	14.0	15.8	23.5	1.0	(1,084)
60-80% 미만	3.5	22.9	54.1	55.6	17.1	14.1	31.5	1.2	(340)
80-100% 미만	1.8	16.1	57.5	63.2	20.5	13.0	27.1	0.9	(454)
100-120% 미만	3.2	24.5	60.5	57.5	14.8	13.9	25.5	0.2	(440)
120-140% 미만	3.2	23.0	62.3	54.0	14.7	14.3	27.8	0.8	(252)
140-160% 미만	5.7	20.5	63.6	46.6	18.2	13.6	31.8	-	(88)
160% 이상	2.3	20.5	61.4	58.2	14.3	15.8	26.9	0.6	(342)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5-12〉 사교육 과열 현상의 지속성에 대한 생각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수
전체	79.2	7.1	13.7	(3,000)

〈표 III-5-13〉은 영유아(0-5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세금 추가부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2.3%, 없다는 응답은 39.3%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8.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미만 연령층에서는 세금 추가부담 의향비율이 더 많이 나타났다.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반대양상이었다. 또한 영유아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세금을 대한 추가부담 의향이 더 많았고, 초등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맞

별이가 아닌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 가구소득이 적은 경우에 모두 추가부담에 부정적이었다.

〈표 III-5-13〉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수
전체	32.3	39.3	28.4	(3,000)
연령				
15~19세	40.8	18.4	40.8	(98)
20대	36.9	28.2	34.9	(599)
30대	38.6	35.4	26.0	(526)
40대	31.6	41.4	27.0	(623)
50대	23.3	50.1	26.6	(661)
60대 이상	31.2	44.0	24.7	(493)
$X^2(df)$		102.91(10) ^{***}		
영유아자녀유무				
유	45.5	33.7	20.8	(501)
무	26.8	48.2	25.0	(1,435)
$X^2(df)$		61.12(2) ^{***}		
맞벌이 유무				
맞벌이	34.9	43.9	21.1	(1,099)
맞벌이 아님	27.1	44.3	28.6	(823)
$X^2(df)$		19.92(2) ^{***}		
학력				
고졸이하	26.9	37.4	35.7	(810)
전문대졸	27.6	43.8	28.6	(409)
대졸	35.0	39.0	26.1	(1,516)
대학원졸 이상	40.8	40.0	19.2	(265)
$X^2(df)$		47.98(6) ^{***}		
가구소득 ¹⁾				
60% 미만	29.8	34.0	36.2	(1,084)
60-80% 미만	31.8	40.9	27.4	(340)
80-100% 미만	30.4	41.6	28.0	(454)
100-120% 미만	33.4	44.1	22.5	(440)
120-140% 미만	35.7	44.4	19.8	(252)
140-160% 미만	35.2	37.5	27.3	(88)
160% 이상	38.6	41.8	19.6	(342)
$X^2(df)$		65.95(12) ^{***}		

*** $p < .001$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5-14>는 <표 III-5-13>에서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먼저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38.1%)가 가장 많았고, ‘세금이 적절한 곳이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26.9%), ‘부담하는 세금자체가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15.1%),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므로 내고 싶지 않아서’(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여부에 따라서 기혼자는 ‘정부지출의 구조조정 선행’이 가장 많았고, 미혼자는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다.

<표 III-5-14> 세금 추가 부담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므로 내고 싶지 않아서	먼저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서	기타	수
전체	26.9	11.8	38.1	15.1	6.0	2.1	(1,179)
혼인 여부							
미혼	35.2	14.6	26.2	13.1	7.5	3.4	(267)
배우자 있음	23.9	11.3	41.6	15.9	5.5	1.7	(848)
배우자 없음	31.3	6.3	40.6	12.5	6.3	3.1	(64)
X ² (df)			32.27(10) ^{***}				
학력							
고졸이하	30.0	8.9	38.0	16.5	4.3	2.3	(303)
전문대졸	27.9	8.9	41.3	16.8	3.9	1.1	(179)
대졸	25.4	12.7	36.9	14.4	8.3	2.4	(591)
대학원졸 이상	24.5	19.8	39.6	12.3	1.9	1.9	(106)
X ² (df)			25.73(15) [*]				

* p < .01, *** p < .001

<표 III-5-15>는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1+2+3순위)으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질 향상,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시 소득 보장, 유연근무제 확대, 시간연 장형 보육,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15>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1+2+3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전체	56.4	15.8	20.5	49.9	32.0	22.2	49.7	8.2	35.5	0.9	3.0	(3,000)
연령												
15~19세	31.6	26.5	21.4	48.0	23.5	20.4	61.2	22.4	31.6	1.0	4.1	(98)
20대	47.2	19.7	22.9	43.7	28.4	18.7	62.3	10.0	39.6	0.5	2.3	(599)
30대	62.4	22.1	19.4	46.8	32.9	18.6	52.1	4.9	33.3	0.8	2.3	(526)
40대	55.2	17.2	16.9	55.1	33.5	23.1	47.8	7.9	35.6	1.4	2.1	(623)
50대	57.8	8.9	18.5	51.4	33.3	26.2	44.8	7.9	37.2	0.9	4.4	(661)
60대 이상	65.9	9.7	26.0	52.3	33.7	23.9	38.3	7.7	31.4	0.6	3.4	(493)
혼인 여부												
미혼	48.2	16.5	18.9	45.6	29.7	18.5	61.5	9.9	41.5	0.3	3.1	(922)
배우자 있음	60.1	15.7	21.3	51.7	33.2	23.8	45.0	7.3	32.9	1.1	2.7	(1,922)
배우자 없음	60.3	12.8	20.5	53.2	31.4	23.7	37.8	9.6	32.7	0.6	5.8	(156)
영유아자녀유무												
유	60.5	31.1	25.1	51.5	32.1	20.4	44.1	7.0	24.8	1.6	0.6	(501)
무	60.1	9.9	19.6	52.8	32.8	25.4	43.7	8.0	35.8	1.0	3.7	(1,435)

주: 1) ①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②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단가 인상, ③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인상, ④ 보육·교육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⑤ 시간연 장형(시간연장보육,야간보육) 보육,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⑥ 아이돌봄 지원 확대, ⑦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 ⑧ 육아정보·상담 제공, ⑨ 유연근무제 확대(시차출근제, 단시간근로 등), ⑩ 기타, ⑪ 잘 모르겠음.

2)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5-16>은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여부, 도움정도, 향후 이용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89.7%, 94.8%로 높은 인지비율을 보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비율이 낮았다. 도움정도 및 향후 이용의향은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5-16>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 인지여부, 도움정도, 향후 이용의향

단위: %, 점(명)

구분	인지여부			도움정도		향후 이용의향		
	알고 있음	모름	수	평균	수	이용 희망	희망하지 않음	수
출산전후 휴가	89.7	10.3	(3,000)	4.08	(2,691)	92.5	7.5	(2,691)
육아휴직	94.8	5.2	(3,000)	4.15	(2,843)	90.9	9.1	(2,84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3.0	57.0	(3,000)	3.86	(1,289)	88.8	11.2	(1,289)

구분	인지여부			도움정도		향후 이용의향		
	알고 있음	모름	수	평균	수	이용 희망	희망하지 않음	수
유연근무제	52.4	47.6	(3,000)	3.83	(1,572)	88.7	11.3	(1,572)
직장어린이집	75.6	24.4	(3,000)	4.09	(2,267)	88.0	12.0	(2,267)

<표 III-5-17>은 0-5세 전연령에 대해 연령별로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 전 연령, 전계층 비용 지원정책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조사결과 3.36점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였고, 남자가 여자보다, 40대 미만 연령층에서의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래 결혼가능성이 있는 미혼의 경우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영유아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보육료·유아학비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표 III-5-17> 0-5세 전계층 비용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 5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다.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다	
	평균	수	평균	수
전체	3.36	(3,000)	3.31	(3,000)
성별 구분				
남자	3.50	(1,522)	3.45	(1,522)
여자	3.22	(1,478)	3.17	(1,478)
t	6.75***		6.66***	
연령				
15~19세	3.64	(98)	3.57	(98)
20대	3.55	(599)	3.52	(599)
30대	3.61	(526)	3.56	(526)
40대	3.33	(623)	3.30	(623)
50대	3.05	(661)	3.00	(661)
60대 이상	3.26	(493)	3.17	(493)
F	19.85***		21.08***	
혼인 여부				
미혼	3.48	(922)	3.44	(922)
배우자 있음	3.33	(1,922)	3.27	(1,922)
배우자 없음	3.04	(156)	3.03	(156)
F	11.07***		11.58***	
영유아자녀유무				
유	3.76	(501)	3.69	(501)
무	3.14	(1,435)	3.08	(1,435)

구분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다.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다	
	평균	수	평균	수
t	10.72 ^{***}		9.94 ^{***}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5-18>은 전계층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나타낸다. 이유로는 ‘소득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77.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세금 부담 가중 우려’(13.6%), ‘여전한 부모 부담’(4.1%), ‘재정 지원 불안정’(3.6%) 순이었다.

<표 III-5-19>는 전계층 양육수당 지원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한 표이다. 보육료·유아학비와 같이 ‘소득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79.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세금 부담 가중 우려’(14.0%), ‘여전한 부모 부담’(3.4%) 등의 순이었다.

<표 III-5-18>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소득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	세금 부담 가중 우려	비용 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	재정 지원 불안정	기타	수
전체	77.7	13.6	4.1	3.6	1.0	(727)

<표 III-5-19> 양육수당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소득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	세금 부담 가중 우려	비용 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	부모 취업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보육료·유 아학비에 비해 비용이 적어서	기타	수
전체	79.8	14.0	3.4	1.7	0.1	0.9	(769)

라.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표 III-5-20>은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중요도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 주거정책, 임신·출산 지원 정책, 자녀돌봄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모두 5점만점 중 4점 이상으로 나타나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의 중요성과 관련하여서는 10-20대와 50대 이상 중장년 층에서 4점 이상이었고, 30-40대는 4점 이하였다. 또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취업인 경우, 맞벌이가 아닌 경우의 정책중요도 평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경우, 연령별로는 10-30대와 60대에 평균이 4.26-4.28로 높았으며, 40-50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영유아자녀가 있는 경우에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중요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외 성별, 혼인여부, 취업여부, 맞벌이 유무, 학력,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녀돌봄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정책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외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학력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고 여기고 있었다.

<표 III-5-20> 정부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중요도

단위: 점(명)

구분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임신·출산 지원 정책	자녀돌봄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수
전체	4.09	4.22	4.18	4.22	(3,000)
성별 구분					
남자	4.08	4.22	4.13	4.17	(1,522)
여자	4.09	4.21	4.22	4.28	(1,478)
X ² (df)/t	-0.47	0.25	-3.25**	-3.94***	
연령					
15~19세	4.24	4.26	4.16	4.34	(98)
20대	4.17	4.28	4.19	4.34	(599)
30대	3.98	4.27	4.23	4.28	(526)
40대	3.99	4.13	4.15	4.17	(623)
50대	4.12	4.15	4.12	4.12	(661)

구분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임신·출산 지원 정책	자녀돌봄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수
60대 이상	4.16	4.28	4.22	4.19	(493)
X ² (df)/F	6.71***	4.44***	1.71	7.20***	
혼인 여부					
미혼	4.14	4.22	4.15	4.27	(922)
배우자 있음	4.06	4.22	4.19	4.20	(1,922)
배우자 없음	4.12	4.12	4.13	4.24	(156)
X ² (df)/F	3.21*	1.22	1.38	3.36*	
자녀 유무					
유	4.07	4.20	4.18	4.19	(1,936)
무	4.04	4.35	4.27	4.31	(142)
X ² (df)/t	0.32	-2.13*	-1.27	-1.82	
영유아자녀유무					
유	3.90	4.29	4.26	4.31	(501)
무	4.12	4.17	4.16	4.15	(1,435)
X ² (df)/t	-5.09***	2.84**	0.32	3.94***	
취업 여부					
취업	4.06	4.23	4.18	4.22	(2,097)
미취업	4.18	4.21	4.19	4.25	(822)
X ² (df)/t	-3.58***	0.43	-0.32	-1.04	
맞벌이 유무					
맞벌이	4.01	4.20	4.18	4.19	(1,099)
맞벌이 아님	4.12	4.25	4.22	4.20	(823)
X ² (df)/t	-2.80**	-1.46	-1.22	-0.45	
학력					
고졸이하	4.11	4.17	4.11	4.15	(810)
전문대졸	4.05	4.20	4.16	4.18	(409)
대졸	4.08	4.24	4.20	4.25	(1,516)
대학원졸 이상	4.11	4.24	4.26	4.30	(265)
X ² (df)/F	0.67	1.68	3.90**	4.57**	
가구소득1)					
60% 미만	4.16	4.23	4.15	4.25	(1,084)
60-80% 미만	4.02	4.14	4.11	4.18	(340)
80-100% 미만	4.05	4.25	4.25	4.22	(454)
100-120% 미만	4.07	4.25	4.21	4.20	(440)
120-140% 미만	4.05	4.18	4.13	4.14	(252)
140-160% 미만	4.08	4.14	4.17	4.27	(88)
160% 이상	4.04	4.20	4.21	4.23	(342)
X ² (df)/F	2.32*	1.27	1.85	1.17	

* $p < .05$, ** $p < .01$, *** $p < .001$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5-21>은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 주거정책, 임신·출산 지원 정책, 자녀돌봄지원 정책,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모두 5점중 3.21-3.38점 수준으로 정책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효과는 낮다고 보고 있었다.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의 정책효과와 관련하여서는 10대가 3.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3.00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녀가 영유아가 아니거나, 미취업인 경우에 이들 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임신·출산 지원 정책효과의 경우, 연령별로는 60대와 10대가 각각 3.62점, 3.53점으로 높았으며, 20-40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녀가 영유아자녀인 경우에 오히려 정책효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외 성별, 취업여부, 맞벌이 유무, 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녀돌봄지원 정책효과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10대와 50-60대가 높고, 20-30대가 낮은 양상이었다. 또한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에 정책효과 인식도가 낮았다. 이외 성별, 취업여부, 맞벌이 유무, 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50-60대 연령대가, 자녀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에 정책효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외 성별, 취업여부, 맞벌이 유무, 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5-21> 정부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정책효과

단위: 점(명)

구분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임신·출산 지원 정책	자녀돌봄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수
전체	3.21	3.32	3.38	3.26	(3,000)
성별 구분					
남자	3.19	3.30	3.35	3.22	(1,522)
여자	3.22	3.33	3.41	3.30	(1,478)
$X^2(df)/t$	-0.78	-0.82	-1.75	-2.11*	
연령					
15~19세	3.55	3.44	3.53	3.37	(98)
20대	3.11	3.16	3.19	3.11	(599)
30대	3.00	3.14	3.19	3.01	(526)
40대	3.13	3.22	3.30	3.18	(623)
50대	3.33	3.44	3.54	3.43	(661)

구분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임신·출산 지원 정책	자녀돌봄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수
60대 이상	3.41	3.62	3.68	3.58	(493)
$X^2(df)/F$	16.20***	19.71***	25.36***	24.79***	
혼인 여부					
미혼	3.14	3.19	3.25	3.13	(922)
배우자 있음	3.24	3.38	3.44	3.32	(1,922)
배우자 없음	3.22	3.36	3.45	3.33	(156)
$X^2(df)/F$	3.35*	11.16***	13.79***	11.02***	
자녀 유무					
유	3.25	3.39	3.46	3.34	(1,936)
무	3.06	3.15	3.16	3.04	(142)
$X^2(df)/t$	2.43*	2.71**	3.80***	3.45**	
영유아자녀유무					
유	3.04	3.26	3.27	3.10	(501)
무	3.32	3.44	3.53	3.43	(1,435)
$X^2(df)/t$	-3.58***	-3.42**	-5.05***	-6.24***	
취업 여부					
취업	3.18	3.31	3.38	3.26	(2,097)
미취업	3.27	3.34	3.40	3.28	(822)
$X^2(df)/t$	-2.35*	-0.67	-0.60	-0.64	
맞벌이 유무					
맞벌이	3.20	3.35	3.41	3.30	(1,099)
맞벌이 아님	3.28	3.41	3.48	3.34	(823)
$X^2(df)/t$	-1.82	-1.49	-1.51	-0.73	
학력					
고졸이하	3.32	3.39	3.45	3.34	(810)
전문대졸	3.13	3.31	3.34	3.24	(409)
대졸	3.18	3.28	3.37	3.23	(1,516)
대학원졸 이상	3.15	3.28	3.34	3.23	(265)
$X^2(df)/F$	5.54**	2.26	1.84	2.29	

* $p < .05$, ** $p < .01$,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5-22>는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 지원 정책이 추가 출산이나 출산 계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5점 중 3.03점 수준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3점 미만이었고, 60대 이상은 3.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표 III-5-22〉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출산에 대한 영향력 : 5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평균	수
전체	3.03	(3,000)
연령		
15~19세	3.13	(98)
20대	3.05	(599)
30대	2.94	(526)
40대	2.90	(623)
50대	3.00	(661)
60대 이상	3.26	(493)
X ² (df)	7.74***	
자녀 유무	0.21	
유	3.05	(1,936)
무	2.77	(142)
X ² (df)	2.99**	
학력		
고졸이하	3.10	(810)
전문대졸	2.92	(409)
대졸	3.01	(1,516)
대학원졸 이상	3.04	(265)
X ² (df)	2.86*	

* $p < .05$, ** $p < .01$,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5-23>은 아동수당 도입시 출산율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대한 조사 결과로, 전체적으로 아동수당의 출산율 상승에 대한 영향력에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표 III-5-23〉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출산율 상승에 대한 생각 : 5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보통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수	평균
전체	4.0	24.0	32.2	30.4	9.4	(3,000)	2.83

<표 III-5-24>는 아동수당 지급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45.5%는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지급할 필요가 없다'가 13.8%, '잘 모르겠다'도 40.7%에 해당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30대가, 그리고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에 아동수당 지급 필요성에 더 많이 공감하였다.

〈표 III-5-24〉 아동수당 지급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잘 모르겠음	수
전체	45.5	13.8	40.7	(3,000)
성별 구분				
남자	52.1	12.2	35.7	(1,522)
여자	38.7	15.6	45.7	(1,478)
X ² (df)		54.31(2) ^{***}		
연령				
15~19세	44.9	8.2	46.9	(98)
20대	46.9	7.8	45.2	(599)
30대	52.5	10.8	36.7	(526)
40대	46.7	16.1	37.2	(623)
50대	34.6	20.7	44.6	(661)
60대 이상	49.5	13.4	37.1	(493)
X ² (df)		83.09(10) ^{***}		
영유아자녀유무				
유	63.9	11.0	25.1	(501)
무	41.4	18.9	39.7	(1,435)
X ² (df)		75.47(2) ^{***}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5-25>와 <표 III-5-26>은 아동수당 적정 지급 연령과 적정 금액에 대한 생각을 나타낸 표이다. 아동수당 적정 지급연령 평균은 6.7세였으며, 초등 2학년 수준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9.3% 수준이었다.

아동수당 적정 지급액 수준은 월 38.5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구간별로는 11-20만원이 28.6%로 가장 많았으며, 21-30만원 26.7%, 41-50만원 18.6%, 1-10만원 12.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에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분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101 이상	수	평균
유	16.1	32.2	26.7	1.4	16.7	0.4	0.7	0.7	-	3.4	1.8	(914)	33.20
무	4.7	23.4	32.8	1.6	21.9	-	-	-	-	14.1	1.6	(64)	45.11
X ² (df)/t							na						-2.57*
영유아자녀유무													
유	9.7	29.1	28.8	1.6	23.1	0.3	0.9	0.3	-	3.1	3.1	(320)	37.55
무	19.5	33.8	25.6	1.3	13.3	0.5	0.5	0.8	-	3.5	1.0	(594)	30.86
X ² (df)/t							na						2.74**

* p < .05, ** p < .01,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5-27>은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현재처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부모에게 현금 직접지원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8.2%,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8.0%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부모에게 직접 현금지원과 시설 직접 지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5-27> 보육료·유아학비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생각

단위: %(명)

구분	지금 그대로 유지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	정부는 부모에게 일정금액의 현금을 매월 지급하고 부모가 선택	기타	수
전체	28.0	28.2	42.2	1.6	(3,000)
연령					
15~19세	25.5	28.6	43.9	2.0	(98)
20대	28.7	30.1	39.7	1.5	(599)
30대	22.4	32.3	44.3	1.0	(526)
40대	28.1	30.3	40.1	1.4	(623)
50대	29.0	27.7	40.5	2.7	(661)
60대 이상	31.8	19.7	47.3	1.2	(493)
X ² (df)					39.34(15)**
영유아자녀유무					
유	24.2	31.1	44.5	0.2	(501)
무	29.9	26.8	41.4	1.9	(1,435)
X ² (df)					14.90(3)**
취업 여부					
취업	27.1	29.9	41.6	1.4	(2,097)
미취업	29.7	24.7	43.7	1.9	(822)

구분	지금 그대로 유지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	정부는 부모에게 일정금액의 현금을 매월 지급하고 부모가 선택	기타	수
$X^2(df)$	8.52(3)*				
학력					
고졸이하	32.5	22.7	42.1	2.7	(810)
전문대졸	25.9	32.8	40.3	1.0	(409)
대졸	26.5	30.1	42.1	1.4	(1,516)
대학원졸 이상	26.0	27.5	45.7	0.8	(265)
$X^2(df)$	31.47(9)***				

* $p < .05$, ** $p < .01$,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5-28>은 우리 사회가 영유아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 사회인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우리사회가 영유아 자녀양육에 있어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5점 중 2.75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대가 낮을 수록, 자녀가 영유아자녀인 경우에 더욱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III-5-28> 영유아 자녀를 키우기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성 수준 : 5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수	평균
전체	1.8	18.6	39.7	32.7	7.1	(3,000)	2.75
성별 구분							
남자	2.6	21.6	43.0	28.0	4.9	(1,522)	2.89
여자	1.1	15.6	36.4	37.5	9.4	(1,478)	2.62
$X^2(df)/t$	72.97(4)***						8.40***
연령							
15~19세	1.0	17.3	40.8	36.7	4.1	(98)	2.74
20대	2.2	13.9	35.6	38.1	10.4	(599)	2.59
30대	0.6	14.1	38.2	34.6	12.5	(526)	2.56
40대	1.4	18.5	40.3	33.2	6.6	(623)	2.75
50대	2.1	23.9	43.6	26.5	3.9	(661)	2.94
60대 이상	3.0	22.7	40.4	30.8	3.0	(493)	2.92
$X^2(df)/F$	110.80(20)***						18.23***
영유아자녀유무							
유	1.6	13.8	37.1	36.5	11.0	(501)	2.58
무	2.4	23.3	41.5	28.4	4.4	(1,435)	2.91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수	평균
$\chi^2(df)/t$	53.78(4) ^{***}						-6.90 ^{***}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I-5-29>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사회불안 요인으로 범죄발생 64.2%, 빈부격차, 40.7%, 도덕성 부족 35.6%, 경제적 위협 20.7%, 환경오염 12.3%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29>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2가지 선택)

단위: %(명)

구분	국가 안보	자연 재해	환경 오염	인재 인력	경제 적 위협	자원	도덕 성부 족	신종 질병	범죄 발생	빈부 격차	기타	수
전체	10.7	0.8	12.3	10.6	20.7	0.6	35.6	2.9	64.2	40.7	0.9	(1,194)

<표 III-5-30>은 영유아 육아지원 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5점중 3.08점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수준이 보통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 핵심연령대에서의 만족수준이 더 낮았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만족수준이 낮았으며, 맞벌이보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 만족수준이 더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II-5-30>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 생각 : 5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잘하고 있음	약간 잘하고 있음	보통임	약간 잘못하 고 있음	매우 잘못하 고 있음	수	평균
전체	2.6	24.5	55.2	13.5	4.2	(3,000)	3.08
연령							
15~19세	1.0	19.4	65.3	11.2	3.1	(98)	3.04
20대	1.7	18.0	56.4	19.4	4.5	(599)	2.93
30대	1.5	20.3	57.0	16.3	4.8	(526)	2.98
40대	1.8	23.8	57.1	12.7	4.7	(623)	3.05
50대	3.5	26.5	54.3	11.8	3.9	(661)	3.14

구분	매우 잘하고 있음	약간 잘하고 있음	보통임	약간 잘못하 고 있음	매우 잘못하 고 있음	수	평균
60대 이상	4.9	36.1	48.5	7.1	3.4	(493)	3.32
$X^2(df)/F$	106.42(20) ^{***}						15.88 ^{***}
혼인 여부							
미혼	1.4	18.0	61.7	15.0	3.9	(922)	2.98
배우자 있음	3.1	27.0	52.5	13.2	4.3	(1,922)	3.11
배우자 없음	3.2	32.1	50.0	9.0	5.8	(156)	3.18
$X^2(df)/F$	46.88(8) ^{***}						6.46 ^{***}
자녀 유무							
유	3.3	28.3	51.5	12.6	4.4	(1,936)	3.13
무	0.7	14.8	63.4	16.9	4.2	(142)	2.91
$X^2(df)/t$	17.15(4) ^{**}						3.60 ^{***}
영유아자녀유무							
유	2.8	26.9	48.5	15.6	6.2	(501)	3.05
무	3.4	28.8	52.5	11.5	3.8	(1,435)	3.17
$X^2(df)/t$	11.93(4) [*]						-2.74 ^{**}
맞벌이 유무							
맞벌이	2.7	27.0	50.8	14.6	4.8	(1,099)	3.08
맞벌이 아님	3.5	27.0	54.8	11.2	3.5	(823)	3.16
$X^2(df)/t$	8.59(4)						-2.00 [*]

* $p < .05$, ** $p < .01$,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소결

가. 부모됨

1) 부모됨의 인식 및 가치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비교적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라고 응답하였다(5점 평균에 3.27점). 그러나 50~60대 이상의 중·노년층에 비해 10~20대의 젊은 응답자의 경우 부모됨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0대: 3.45점, 50대: 3.37점 vs 20대: 3.03점, 10대: 3.06점).

한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문장에 대해서는 5점 평균에 3.45점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특히 10대의 경우

3.64점, 20대의 경우 3.61점으로, 부모로서 경제적 준비에 있어 중·노년층보다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또한 결혼하지 않는 경우에 부모됨에 있어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59점). 이는 최효미 등(2016)의 연구에서 미혼남녀 1,073명이 출산 및 양육조건 1순위로 경제적인 안정을 답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연구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볼 때 특히 젊은 연령층은 부모됨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며, 동시에 일반 국민들은 부모됨의 가치에 있어 경제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젊은 연령층의 가족 형성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이미지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젊은 층의 인식이 최근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심화되는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긍정적 가치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문무경 외(2016)의 지적대로 경제력 이외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

다행히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응답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점 평균에 3.53점), 특히 10~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출산 전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다. 이는 이미화 외(2015)의 연구에서도 부모교육 제도화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출산 전 부모교육 의무화를 도입함과 동시에 교육 내용에 부모됨과 자녀 양육의 가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잠재적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군대 및 각종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부모교육에서 전반적인 콘텐츠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 부부간 육아 및 가사 분담의 공평성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응답 대상자에게 실제적 자녀양육 및 가사분담 비율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자녀 양육의 경우 어머니 6.86 : 아버지 3.14, 가사의 경우 어머니 6.81 : 아버지 3.19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같은 대상자들이 응답한 이상적인 자녀 양육 분담 비율은 어머니 5.74 : 아버지 4.26, 가사 분담 비율은 어머니 5.85 : 아버지 4.16으로 실제와는 괴리가 있다. 특히 여성들이 지각하는 부부간 자녀 양육 분담 비율의 경우 어머니 7.25 : 아버지 2.75, 가사의 경우 7.26 : 아버지 2.64로 평균치보다 더욱 여성에게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통계청 조사에서 '가사분담은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3.5%인 반면, 실제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남자 17.8%, 여자 17.7%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분석한 신윤정(2015)의 연구에서도 1999부터 2009년의 10년 사이 남성의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 시간은 각각 하루 7분씩 증가하였지만,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204분으로 남성의 7.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삼식(2007)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족 내에서 성별분업 체계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관은 여전히 강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근로 문화 개선과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늘어나며 가정 내 남성의 가사 및 자녀양육 참여 향상을 유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사와 자녀양육은 가족 내에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나. 결혼 및 자녀 양육관

본 연구에서는 결혼 가치관, 결혼과 출산, 적정 자녀 수, 자녀에 대한 필요성, 양육의 어려움, 교육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결혼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해야한다는 비율이 65% 이상 높게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5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2015년도에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이삼식 외, 2015)에서 나온 결과보다도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 해야한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향후 비혼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취업하지 않은 경우가 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아직까지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6.2%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미혼인 경우나 연령이 어릴수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동의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녀출산을 위해 결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차츰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이상적인 자녀수는 평균 2.25명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도에 실시한 전

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이삼식 외, 2015)의 결과 동일한 결과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상적인 자녀 수가 많았다. 또한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한 생각에서 딸이 1.29명으로 아들 1.16명보다 높아 과거와는 달리 여아 출산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응답자의 약 80%는 자녀가 있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미혼인 경우는 없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35%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없어도 무방하다는 응답이 많아 향후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로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였고, 특히 여자일 때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녀 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조사한 결과, 양육의 관점이 세대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 있다,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을 혼자서 해야한다와 같이 자녀 양육의 엄격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대해서는 20~30대 연령대가 가장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양육비용에 부담이라고 응답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다만, 여기서도 세대간의 시각차가 존재하였는데 1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중요시하였고, 60대 이상에서는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결과와 유관하게 우리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의 의미에서도 10대의 경우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30대 연령대에서는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장 선호도는 남자와 여자, 미혼과 기혼의 시각차가 존재하였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열정보다는 경제적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친구같은 부모보다 권위적인 부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인 경우는 기혼인 경우보다 자녀가 열정적인 삶을 살길 원하고 친구같은 부모가 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육아행복감

육아행복감에서는 자녀양육의 즐거움, 가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자녀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는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무경 외(2016)에서 조사했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였다. 문무경 외 연구에서는 본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 특성에 관계없이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이 높게 나왔다. 다만 20~30대의 경우에는 문무경 외 연구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90% 이상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1~200만원 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은 235.20만원이었다. 권미경 외(2015b)의 연구에서 227.88만원이라고 나온 것에 비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인 경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소재는 우선적으로 부모의 책임이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다만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양육에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저주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요구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라. 육아정책

1)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역할

국가차원에서 육아정책 설계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남자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을, 여자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직까지 실제 자녀양육에 있어 모의 역할이 크다는 점

에서, 향후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질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육아지원 재정지원 우선순위에서는 차별적 지원(48.8%)이 전계층 무상지원(42.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는 무상지원이, 40대 이상에서는 차별적 지원이 많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정책의 핵심수요층인 영유아 가정은 여전히 보편적 무상지원에 대한 정책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나, 영유아 가정 이외의 다른 국민들의 차별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다면 국가차원에서 한정된 재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육아 재정 지원이 차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 일정부분 소득에 따른 차별적 재정지원도 국가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정책 관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 우선순위에서는 공통으로 인성지도가 중요하다는 비율(1+2순위)이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은 안전한 보호, 유치원은 균형있는 발달이 차순위로 나타나 약간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계속 대두 되면서 돌봄 중심의 어린이집에는 인성교육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유치원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학교라는 교육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 균형있는 발달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택시 고려사항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였으며, 이어서 어린이집은 학부모 비용부담과 원장 및 교사가, 유치원은 프로그램과 학부모 비용부담이 기관 선택시 우선 고려되는 비율이 많았다. 현 정부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에서의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부모가 가까운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정부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지원 정책 인지정도

정부의 비용지원 정책인 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60% 이상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시간연 장형 보육료 지원(시간연장, 야간 보육, 휴일보육 등), 시간제 보육료 지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은 모른다는 비

율이 더 많았다. 특히 직접적 수혜층인 영유아 부모인 경우에도 40% 이상이 이러한 제도를 모른다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국민 홍보와 적극적 이용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서는 전체적으로 처벌강화와 교육,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등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연령대에서는 처벌강화 비율이 많고, 높은 연령대에서는 교육실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세대간 정책우선순위에 차이를 보였다.

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수혜가능성이 높은 40대 미만에서는 추가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더 많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또한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증세에 있어서는 세대별 갈등과 직접수혜여부에 따라 갈등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추가 세금 부담의사가 없다는 응답한 이유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전제와 세금 용처에 대한 불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으로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확충, 서비스 질 향상, 육아휴직제도나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한 우선순위(1+2+3순위) 비율이 높았다. 현 정부에서의 국가 책무성과 공공성 확대, 일·가정 양립정책 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해서는 도움정도와 향후 이용의향 수준이 매우 높아, 실질적 이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갖추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4) 저출산 정책 관련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중요도와 정책효과를 살펴본 결과,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임신·출산 지원 정책, 자녀돌봄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5점중 4점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반면, 저출산 대응에 대한 실제 정책효과 측면에서는 보통수준(3점대 초반)으로 중요도에 비해 거는 기대치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적 중요도에 불구하고 재정의 한계와 정책 혜택을 받는 집단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긍정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핵심수혜계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와 30대에서의 정책효과 기대치가 낮음

은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 수립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이나 아동수당 도입은 추가 출산이나 출산 계획에 미친 영향은 보통수준이나 그 이하로 나타나, 저출산 문제를 비용지원 정책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8년 하반기 도입예정인 아동수당은 최근 기존의 보편적 지급에서 가구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선별적 지원으로의 방향 전환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아동수당의 지급 필요성에는 45.5%가 동의하였으나, 여전히 40.7%는 도입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향후 지급방식, 연령, 지급액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42.2%는 영유아 자녀의 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일정금액의 현금을 매월 지급하고, 부모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현금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을 선택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는 부모의 선택권과 어린이집·유치원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도입된 바우처 형태의 지원에 대한 정책적 효과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는 영유아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고, 특히 범죄발생, 빈부격차, 도덕성 부족, 경제적 위험 등이 중요 사회불안 요인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2,30대 핵심 수혜계층과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현실적 체감도는 다소 낮았다.

IV. KICCE 수시 여론조사 분석 결과

IV장에서는 KICCE 수시 여론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조사대상 배경,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정책, 가정 내 양육 및 일-가정 양립 정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1. 조사대상 배경

수시조사 응답자 500명의 개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 대상자 중 어머니는 37.0%, 아버지는 63.0%로 아버지 사례가 더 많았다. 영유아 자녀가 1명이라는 응답한 비율은 69.0%,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0%, 3명 이상은 2.0%로 약 70%가 한자녀 가구였다.

응답자 연령별로 구분하면 20대 11.4%, 30대 65.6%, 40대 이상이 23.0%로 대부분 30대였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27.8%,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는 30.0%,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이 42.2%이다. 한편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율은 59.2%, 맞벌이가 아니라는 비율은 40.8%로 나타났다.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은 어린이집인 46.8%, 유치원이 22.9%, 가정보육을 포함하여 기관 미이용이 2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조사 대상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500)	100.0	응답자 연령		
응답자			20대	(57)	11.4
어머니	(185)	37.0	30대	(328)	65.6
아버지	(315)	63.0	40대	(115)	23.0
총 영유아 자녀 수			지역규모		
1명	(345)	69.0	서울특별시	(139)	27.8
2명	(145)	29.0	광역시	(150)	30.0
3명	(10)	2.0	중소도시	(194)	38.8
(영유아 있는 경우) 평균			군(읍면지역)	(17)	3.4
맞벌이 유무			영유아 자녀 이용 기관 ^{가)}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맞벌이	(296)	59.2	어린이집	(311)	46.8
맞벌이 아님	(204)	40.8	유치원	(152)	22.9
본인 취업 여부			반일제 이상 기관	(5)	0.8
취업 중	(434)	86.8	이용안함(가정보육)	(188)	28.3
미취업 중	(66)	13.2	기타	(9)	1.4

주: 자녀가 2명 이상인 응답자는 중복응답함에 따라 사례수 합계가 자녀 있음 응답자 500명보다 많음.

2.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정책

2절에서는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정책과 관련하여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표 IV-2-1>은 가정 이외의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대한 첫 이용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적절한 첫 기관 이용시기로는 평균 29.6개월 이후부터로 나타났으며, 구간으로는 24-36개월 미만(만 2세)이 34.2%로 가장 많았고, 36-48개월 미만이 30.0%로 다음 순이었다. 보육연령으로 보면 1세와 2세의 비중이 64.2%로 상당히 높았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관에 대한 첫 이용시기가 비맞벌이 가구 응답자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앞당겨진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1> 영유아의 가정 이외 기관 첫 이용 시기의 적절성

구분	단위: %(명), 개월						수	평균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36개월 미만	36개월~ 48개월 미만	48개월~ 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전체	4.0	17.8	34.2	30.0	9.8	4.2	(500)	29.61
맞벌이 유무								
맞벌이	5.4	21.6	35.1	25.7	8.4	3.7	(296)	27.85
맞벌이 아님	2.0	12.3	32.8	36.3	11.8	4.9	(204)	32.16
$X^2(df)/t$			14.04(15)					-3.73**

** $p < .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V-2-2>와 <표 IV-2-3>은 영유아 자녀의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등)을 등하원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등원은 08:31~09:00이 33.0%로 가

장 많았으며, 10:01 이후가 22.8%로 다음으로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63.8%가 9시 이전에 등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가 아닌 가구의 경우 36.3%가 10시 이후에 등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표 IV-2-2〉 가구별 어린이집/유치원 적절 등원시각

단위: %(명)

구 분	7:30 이전	7:31 ~8:00	8:01 ~8:30	8:31 ~9:00	9:01 ~09:30	9:31 ~10:00	10:01 이후	수
전체	3.8	15.8	11.2	33.0	12.4	1.0	22.8	(500)
취업 여부								
취업	4.1	17.5	12.4	33.9	11.8	0.9	19.4	(434)
미취업	1.5	4.5	3.0	27.3	16.7	1.5	45.5	(66)
X ² (df)				na				
맞벌이 유무								
맞벌이	6.1	21.3	15.2	31.1	11.8	1.0	13.5	(296)
맞벌이 아님	0.5	7.8	5.4	35.8	13.2	1.0	36.3	(204)
X ² (df)				na				

하원은 전체적으로 16:01~17:00이 24.4%로 가장 많았으며, 15:01~16:00이 21.8%, 17:01~18:00이 19.8%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적절한 하원시간으로는 15:01~18:00이 66.0%로 대다수였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18시 이후 하원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24.3%로 비맞벌이 가구(8.4%)보다 더 많았고, 적절 하원시간 또한 비맞벌이 가구보다는 늦은 시간대가 많았다.

〈표 IV-2-3〉 가구별 어린이집/유치원 적절 하원시각

단위: %(명)

구 분	14:00 이전	14:01 ~15:00	15:01 ~16:00	16:01 ~17:00	17:01 ~18:00	18:01 ~19:00	19:01 이후	수
전체	5.2	11.0	21.8	24.4	19.8	13.6	4.2	(500)
취업 여부								
취업	4.8	9.9	20.7	24.7	20.0	15.0	4.8	(434)
미취업	7.6	18.2	28.8	22.7	18.2	4.5	-	(66)
X ² (df)				50.99(6) ^{***}				
맞벌이 유무								
맞벌이	4.7	5.7	16.2	26.0	23.0	18.2	6.1	(296)
맞벌이 아님	5.9	18.6	29.9	22.1	15.2	6.9	1.5	(204)
X ² (df)				na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V-2-4>는 등하원 시간을 기초로 적절 이용시간을 도출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 1일 8시간 이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평균(7.84시간)을 나타냈다. 취업 상태에 있는 응답자는 평균 8시간, 미취업 응답자는 6.75시간이었으며, 맞벌이가구인 경우는 8.41시간, 비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7.01시간이 평균적으로 적절 이용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V-2-4> 가구별 어린이집/유치원 적절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5~6 시간	6~7 시간	7~8 시간	8~9 시간	9~10 시간	10시간 이상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6	30.8	21.6	13.2	10.8	13.0	(500)	7.84	2.04
취업 여부									
취업	9.4	28.6	21.7	14.3	11.1	15.0	(434)	8.00	2.03
미취업	18.2	45.5	21.2	6.1	9.1	-	(66)	6.75	1.71
$X^2(df)/t$			22.46(5) ^{***}					4.77 ^{***}	
맞벌이 유무									
맞벌이	7.8	19.6	22.6	16.9	14.2	18.9	(296)	8.41	2.04
맞벌이 아님	14.7	47.1	20.1	7.8	5.9	4.4	(204)	7.01	1.72
$X^2(df)/t$			70.18(5) ^{***}					8.28 ^{***}	

*** $p < .001$

주: 독립변수에 따라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V-2-5>는 정부의 보육료 전계층 지원이 영유아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시기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61.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정부의 전계층 보육료 지원이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의 이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표 IV-2-5> 보육료 전계층 지원이 자녀 어린이집 입소 시기에 미친 영향 정도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수
전체	61.2	24.0	14.8	(500)

<표 IV-2-6>은 자녀가 생활하는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영유아수와 보육실 면적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0세 아동의 경우 교사 1인당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교사 1인당 영아 담당 기준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은 33.2%, 교사당 영아 비율이 많다는 의견은 40.6%, 적다는 비율은 26.2%로 나타나 교사당 영아 비율이 많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3세 아동의 경우 교사 1인당 15명, 4·5세는 20명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교사1인당 유아 담당 기준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은 13.6%, 교사당 유아 비율이 많다는 의견은 57.2%, 적다는 비율은 29.2%로 나타나, 영아와 마찬가지로 교사당 유아 비율이 많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영유아 1인당 보육실 확보기준은 2.64㎡(0.8평) 수준인 현재 어린이집 보육실 크기 기준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24.8%, 크다는 의견이 5.4%, 작다는 의견이 69.8%로 대부분이 보육실 크기가 작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6〉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적절 지표-교사 1인당 영아 담당 기준 : 5점 평균

구 분	단위: %(명), 점					수	평균
	매우 적다/작다	약간 적다/작다	적절 하다	약간 많다/크다	매우 많다/크다		
교사1인당 영아 담당기준	8.2	18.0	33.2	32.4	8.2	(500)	3.14
교사1인당 유아 담당기준	14.0	15.2	13.6	32.0	25.2	(500)	3.39
현재 영유아 수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실 크기	21.2	48.6	24.8	4.2	1.2	(500)	2.16

〈표 IV-2-7〉은 국공립 시설 이용률 40%에 대한 찬반의견 조사결과이다. 응답자의 85.2%가 찬성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반대 5.6%, 잘 모르겠음이 9.2%로 나타났다.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문제인 정부 임기 말까지 40%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이 찬성하였다.

〈표 IV-2-7〉 국공립 시설 이용률 40% 확충 계획 찬반 정도

구 분	단위: %(명)			수
	찬성	반대	잘 모르겠음	
전체	85.2	5.6	9.2	(500)

〈표 IV-2-8〉은 직장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대한 찬반의견 조사결과이다. 응답자 중 89.4%가 찬성하였고, 반대 5.0%, 잘 모르겠음이 5.6%로 나타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확충과 지원확대를 추진하겠다는 현정부의 정책에 대부분 찬성하였다.

〈표 IV-2-8〉 직장어린이집 확충 계획 찬반 정도

				단위: %(명)
구 분	찬성	반대	잘 모르겠음	수
전체	89.4	5.0	5.6	(500)

〈표 IV-2-9〉는 보육료·유아학비의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직접 지원으로의 정책전환에 대한 찬반여부 조사결과이다. 응답자 중 42.4%가 찬성하였고, 반대는 44.2%, 잘모르겠음이 13.4%로 나타났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님들이 매월 결제한 금액만큼(해당기관 이용 영유아 수만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급되고 있는 현재의 비용지원 제도에 대한 찬성 비율이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부모님 결제나 승인없이 곧바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지급되는 정책의 비율보다 다소 더 많았다.

〈표 IV-2-9〉 보육료·유아학비 가정 내 직접 지원 찬반여부

				단위: %(명)
구 분	찬성	반대	잘 모르겠음	수
전체	42.4	44.2	13.4	(500)

〈표 IV-2-10〉은 영유아 보육·교육을 수행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5점 척도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5점 중 평균 3점 미만으로 보통 미만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잘하고 있다(약 20%)라는 응답보다 못하고 있다(약 30%)라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표 IV-2-10〉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평가 : 5점 평균

							단위: %(명), 점
구 분	매우 잘하고 있음	잘하고 있음	보통	못하고 있음	전혀 못하고 있음	수	평균
어린이집	1.0	17.6	49.2	26.2	6.0	(500)	2.81
유치원	1.4	17.4	53.8	22.4	5.0	(500)	2.88

〈표 IV-2-11〉은 어린이집 적정 기본이용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9.23시간을 적정 기본이용시간으로 보았으며, 구간별로 살펴보면 10시간 이상이 46.2%로 가장 많았으며, 8시간이 26.4%, 6시간이 9.6%로 나타났다.

〈표 IV-2-11〉 어린이집 적절 기본이용시간 의견

									단위: %(명), 시간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이상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6	3.6	9.6	4.0	26.4	7.6	46.2	(500)	9.23	2.56

〈표 IV-2-12〉는 어린이집 기본이용시간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모 부담 의사를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자 중 73.2%는 기본 이용시간 이외에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할 의사가 있으며, 26.8%는 비용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가구인 경우 비용부담의사가 비맞벌이 가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2-12〉 기본이용 시간 이외 추가적 비용 납부 의사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수	
전체	73.2	26.8	(500)	
취업 여부				
취업	75.3	24.7	(434)	
미취업	59.1	40.9	(66)	
$X^2(df)$		7.72(1)**		
맞벌이 유무				
맞벌이	79.4	20.6	(296)	
맞벌이 아님	64.2	35.8	(204)	
$X^2(df)$		14.18(1)***		

** $p < .01$, *** $p < .001$

〈표 IV-2-13〉은 2013년부터 0-5세 전연령, 전계층에 지원하는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현재 지원수준보다 높여야 한다는 비율은 58.0%였으며, 현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3.2%, 현 수준보다 줄여야 한다는 비율이 3.4%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높았다.

〈표 IV-2-13〉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수준 의견

					단위: %(명)
구분	현재 지원수준보다 줄여야 함	현 수준이 적절	현재 지원수준보다 높여야 함	잘 모르겠음	수
전체	3.4	33.2	58.0	5.4	(500)

3. 가정 내 양육 및 일·가정 양립 정책

3절은 가정 내 양육 및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표 IV-3-1>은 배우자 이외 양육지원 중 자녀 돌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조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이 56.0%로 가장 높았으며, 없음 39.2%, 친인척 3.4%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조부모에게 맡기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취업한 경우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보다 맡기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맞벌이인 경우가 맞벌이 아닌 경우보다 조부모에 맡기는 비율이 약 2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배우자 이외 양육 지원자: 자녀 직접 돌보기

구분	조부모	친인척	이웃 친구	기타	없음	단위: %(명) 수
전체	56.0	3.4	0.8	0.6	39.2	(500)
응답자 구분						
어머니	62.7	1.1	-	0.5	35.7	(185)
아버지	52.1	4.8	1.3	0.6	41.3	(315)
X ² (df)			na			
응답자 연령						
20대	70.2	1.8	-	-	28.1	(57)
30대	56.1	3.0	0.6	0.6	39.6	(328)
40대 이상	48.7	5.2	1.7	0.9	43.5	(115)
X ² (df)			na			
취업 여부						
취업	57.4	3.7	0.9	0.5	37.6	(434)
미취업	47.0	1.5	-	1.5	50.0	(66)
X ² (df)			na			
맞벌이 유무						
맞벌이	68.9	2.0	0.7	0.7	27.7	(296)
맞벌이 아님	37.3	5.4	1.0	0.5	55.9	(204)
X ² (df)			na			

<표 IV-3-2>는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별도의 경제적 지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부모 28.6%, 친인척 2.6%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어

릴수록 조부모에게 경우가 많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으나 40대 이상의 경우 친인척으로부터 지원 받는다는 비율이 7.0%로 다른 연령대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3-2〉 배우자 이외 양육 지원자: 경제적인 지원

구 분	단위: %(명)				수
	조부모	친인척	이웃 친구	없음	
전체	28.6	2.6	0.6	68.2	(500)
응답자 구분					
어머니	24.3	2.2	-	73.5	(185)
아버지	31.1	2.9	1.0	65.1	(315)
X ² (df)	na				
응답자 연령					
20대	45.6	1.8	3.5	49.1	(57)
30대	28.7	1.2	0.3	69.8	(328)
40대 이상	20.0	7.0	-	73.0	(115)
X ² (df)	na				
취업 여부					
취업	28.8	2.3	0.5	68.4	(434)
미취업	27.3	4.5	1.5	66.7	(66)
X ² (df)	na				
맞벌이 유무					
맞벌이	27.0	2.7	0.7	69.6	(296)
맞벌이 아님	30.9	2.5	0.5	66.2	(204)
X ² (df)	na				

<표 IV-3-3>은 양육에 대한 가사 지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별도의 가사지원 인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9.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조부모 37.8, 친인척 1.8%, 이웃친구 0.8%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조부모로부터 가사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역시 연령이 어릴수록 조부모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맞벌이인 경우에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 비해 가사 지원을 받는다는 비율이 약 2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IV-3-3〉 배우자 이외 양육 지원자: 가사 지원 등

단위: %(명)

구 분	조부모	친인척	이웃 친구	기타	없음	수
전체	37.8	1.8	0.8	0.6	59.0	(500)
응답자 구분						
어머니	44.9	0.5	0.5	0.5	53.5	(185)
아버지	33.7	2.5	1.0	0.6	62.2	(315)
X ² (df)			na			
응답자 연령						
20대	43.9	0.0	0.0	-	56.1	(57)
30대	39.3	0.9	0.6	0.9	58.2	(328)
40대 이상	30.4	5.2	1.7	-	62.6	(115)
X ² (df)			na			
취업 여부						
취업	38.7	2.1	0.7	0.7	57.8	(434)
미취업	31.8	-	1.5	-	66.7	(66)
X ² (df)			na			
맞벌이 유무						
맞벌이	47.3	1.4	0.7	1.0	49.7	(296)
맞벌이 아님	24.0	2.5	1.0	-	72.5	(204)
X ² (df)			na			

〈표 IV-3-4〉는 부모교육 의무화 찬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부모교육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7.6%였으며 반대 11.6%, 잘모르겠음이 10.8%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20대의 경우 찬성 비율이 87%로 30-40대에 비해 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취업한 경우가 취업한 경우보다 찬성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V-3-4〉 부모교육 의무화 찬반여부

단위: %(명)

구 분	찬성	반대	잘 모르겠음	수
전체	77.6	11.6	10.8	(500)
응답자 구분				
어머니	81.6	8.6	9.7	(185)
아버지	75.2	13.3	11.4	(315)
X ² (df)		3.13(2)		
응답자 연령				
20대	87.7	8.8	3.5	(57)
30대	76.5	13.1	10.4	(328)
40대 이상	75.7	8.7	15.7	(115)

구 분	찬성	반대	잘 모르겠음	수
$X^2(df)$		8.10(4)		
취업 여부				
취업	76.7	12.0	11.3	(434)
미취업	83.3	9.1	7.6	(66)
$X^2(df)$		1.47(2)		
맞벌이 유무				
맞벌이	78.0	10.5	11.5	(296)
맞벌이 아님	77.0	13.2	9.8	(204)
$X^2(df)$		1.13(2)		

<표 IV-3-5>는 가정 내에서 양육지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단위로 양육지원센터 운영하는 정책에 대해서 찬반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찬성한다는 비율이 85.4%였으며 반대가 5.8%, 잘모르겠다는 응답이 8.8%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미취업인 경우가 취업한 경우보다 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3-5〉 양육지원센터 찬반여부

구 분	찬성	반대	잘 모르겠음	수
전체	85.4	5.8	8.8	(500)
응답자 구분				
어머니	89.2	3.8	7.0	(185)
아버지	83.2	7.0	9.8	(315)
$X^2(df)$		3.60(2)		
응답자 연령				
20대	87.7	7.0	5.3	(57)
30대	85.7	6.1	8.2	(328)
40대 이상	83.5	4.3	12.2	(115)
$X^2(df)$		3.12(4)		
취업 여부				
취업	84.6	5.5	9.9	(434)
미취업	90.9	7.6	1.5	(66)
$X^2(df)$		5.27(2)		
맞벌이 유무				
맞벌이	85.1	5.4	9.5	(296)
맞벌이 아님	85.8	6.4	7.8	(204)
$X^2(df)$		0.56(2)		

<표 IV-3-6>은 양육수당 지원 수준 의견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현재 지원수준보다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5.6%로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 현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25.6%, 잘모르겠다는 응답이 5.0%, 현재 지원수준보다 줄여한다는 응답이 3.8%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현재 지원수준보다 높아져야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미취업, 맞벌이가 아닌 경우가 취업한 경우, 맞벌이인 경우보다 현재 지원수준보다 높아져야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IV-3-6〉 양육수당 지원 수준 의견

구 분	단위: %(명)				수
	현재 지원수준보다 줄여야 함	현 수준이 적절	현재 지원수준보다 높여야 함	잘 모르겠음	
전체	3.8	25.6	65.6	5.0	(500)
응답자 구분					
어머니	4.9	28.6	62.2	4.3	(185)
아버지	3.2	23.8	67.6	5.4	(315)
X ² (df)		2.74(3)			
응답자 연령					
20대	-	24.6	75.4	-	(57)
30대	4.6	22.9	67.7	4.9	(328)
40대 이상	3.5	33.9	54.8	7.8	(115)
X ² (df)		na			
취업 여부					
취업	4.4	26.5	63.8	5.3	(434)
미취업	-	19.7	77.3	3.0	(66)
X ² (df)		na			
맞벌이 유무					
맞벌이	5.1	28.0	61.8	5.1	(296)
맞벌이 아님	2.0	22.1	71.1	4.9	(204)
X ² (df)		6.34(3)			

<표 IV-3-7>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우선 지원 사항 의견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활성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준높은 어린이집, 유치원 확충 19.2%, 국가차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18.6%, 유아교육·보육비 지원확대 15.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에 부모 육아 휴직 활성화, 유아교육·보육 지원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6.8%, 24.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수준높은 어린이집 확충이

27.0%, 국가차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가 22.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응답비율이 높았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규모에 부모육아휴직 활성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국가차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23.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군(읍면지역)은 수준높은 어린이집·유치원 확충과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23.5%로 다른 지역 규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나 미취업인 경우에 유아교육·보육비 지원확대에 대한 요구가 취업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7>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우선지원 의견

단위: %(명)

구 분	부모 육아 휴직 활성화	사설 베이비 시터의 질적 수준 관리	국가차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수준 높은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시간 확대	영유아 건강 관련 지원 확대	기타	없음	수
전체	30.2	2.6	18.6	19.2	15.8	9.0	2.2	1.6	0.8	(500)
응답자 연령										
20대	36.8	-	8.8	12.3	24.6	12.3	1.8	3.5	-	(57)
30대	31.7	2.4	18.9	17.7	15.5	8.8	2.4	1.2	1.2	(328)
40대 이상	22.6	4.3	22.6	27.0	12.2	7.8	1.7	1.7	-	(115)
$X^2(df)$				na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30.9	2.9	23.0	23.0	11.5	5.8	1.4	1.4	-	(139)
광역시	31.3	2.7	18.7	18.7	17.3	4.0	3.3	2.0	2.0	(150)
중소도시	29.4	2.6	16.0	16.5	18.0	13.9	2.1	1.0	0.5	(194)
군(읍면지역)	23.5	-	11.8	23.5	11.8	23.5	-	5.9	-	(17)
$X^2(df)$				na						
취업 여부										
취업	30.6	2.8	19.6	19.1	14.3	8.8	2.5	1.6	0.7	(434)
미취업	27.3	1.5	12.1	19.7	25.8	10.6	-	1.5	1.5	(66)
$X^2(df)$				na						

<표 IV-3-8>은 가정내 양육을 위한 정부의 우선지원 사항 의견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21.2%, 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 14.6%, 가정 내 놀이 방법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9.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20대인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56.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40대의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 등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다. 미취업인 경우, 맞벌이가 아닌 경우가 상대적으로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V-3-8〉 가정 내 양육을 위한 정부의 우선 지원사항 의견

단위: %(명)

구 분	양육 관련 정보 제공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	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	또래맘 네트 워크 구축	가정 내 놀이 방법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타	없음	수
전체	4.4	21.2	44.4	14.6	4.0	9.0	1.4	1.0	(500)
응답자 연령									
20대	3.5	17.5	56.1	7.0	10.5	5.3	-	-	(57)
30대	4.0	19.8	46.3	14.3	3.0	9.5	2.1	0.9	(328)
40대 이상	6.1	27.0	33.0	19.1	3.5	9.6	-	1.7	(115)
$X^2(df)$				na					
취업 여부									
취업	4.6	21.4	42.4	15.0	4.4	9.4	1.6	1.2	(434)
미취업	3.0	19.7	57.6	12.1	1.5	6.1	-	-	(66)
$X^2(df)$				na					
맞벌이 유무									
맞벌이	4.1	24.3	38.5	14.9	4.4	10.5	1.7	1.7	(296)
맞벌이 아님	4.9	16.7	52.9	14.2	3.4	6.9	1.0	-	(204)
$X^2(df)$				na					

〈표 IV-3-9〉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자녀를 키우기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8.2%, 대체로 그렇지 않다 22.6%, 보통이다 32.7% 대체로 그렇다 21.7%, 매우 그렇다 4.8%였다.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이 26.5%로 전혀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 40.8%에 비해 낮아 양육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양육지원이 적절하지 않

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에서는 30대가 양육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군(읍면지역)의 경우에 전혀 그렇지 않다 비율이 41.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맞벌이 아닌 경우도 맞벌이인 경우보다 양육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3-9〉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양육 지원 적절성 : 5점 평균

단위: %(명), 점

구 분	전혀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렇지 않음	보통	대체로 그려함	매우 그려함	수	평균
전체	18.2	22.6	32.7	21.7	4.8	(434)	2.72
응답자 구분							
어머니	14.6	22.3	34.6	21.5	6.9	(130)	2.84
아버지	19.7	22.7	31.9	21.7	3.9	(304)	2.67
$X^2(df)/t$			3.19(4)				1.38
응답자 연령							
20대	20.5	10.3	28.2	38.5	2.6	(39)	2.92
30대	19.1	25.0	29.2	21.2	5.6	(288)	2.69
40대 이상	15.0	20.6	43.9	16.8	3.7	(107)	2.74
$X^2(df)/F$			na				0.73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0.6	18.3	31.7	27.0	2.4	(126)	2.72
광역시	11.5	21.5	36.9	20.8	9.2	(130)	2.95
중소도시	19.9	27.1	30.7	18.7	3.6	(166)	2.59
군(읍면지역)	41.7	16.7	25.0	16.7	-	(12)	2.17
$X^2(df)/F$			na				3.44
맞벌이 유무							
맞벌이	15.3	21.6	34.1	23.0	5.9	(287)	2.83
맞벌이 아님	23.8	24.5	29.9	19.0	2.7	(147)	2.52
$X^2(df)/t$			7.49(4)				0.59

<표 IV-3-10>은 일·가정 양립정책의 보완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제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26.6%, 장시간 근로 및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강화 15.8%, 가족친화인증기준 개선 14.8%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육아휴직제도 개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고 응답한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어릴수록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취업한 경우에 요구도가 더 높았다. 미취업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

으로 취업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3-10〉 일·가정 양립정책 보완점

단위: %(명)

구 분	육아휴직 제도	육아기근 로시간단 축제도	가족친화 인증기준 개선	장시간 근로 및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새로운 일가정 양립 정책 도입	기타	수
전체	35.2	26.6	14.8	15.8	7.0	0.6	(500)
응답자 구분							
어머니	33.5	34.1	12.4	14.1	4.9	1.1	(185)
아버지	36.2	22.2	16.2	16.8	8.3	0.3	(315)
X ² (df)			11.10(5)*				
응답자 연령							
20대	35.1	31.6	12.3	12.3	7.0	1.8	(57)
30대	37.2	24.4	16.5	15.9	5.5	0.6	(328)
40대 이상	29.6	30.4	11.3	17.4	11.3	-	(115)
X ² (df)			na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35.3	25.9	17.3	15.8	5.8	-	(139)
광역시	36.0	25.3	16.0	18.0	4.0	0.7	(150)
중소도시	35.1	27.3	11.3	14.4	10.8	1.0	(194)
군(읍면지역)	29.4	35.3	23.5	11.8	-	-	(17)
X ² (df)			na				
취업 여부							
취업	37.1	24.7	14.3	16.1	7.1	0.7	(434)
미취업	22.7	39.4	18.2	13.6	6.1	-	(66)
X ² (df)			na				

* $p < .01$

<표 IV-3-11>은 일과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적절한 근무시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6~7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8~9시간 29.8%, 6시간까지가 18.4%였으며 평균 6.56시간이었다. 어머니의 평균이 6.29로 아버지의 평균 6.72보다 낮았으며, 응답자 연령에서는 20대가 평균 6.49시간으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다. 취업여부로 살펴보면 취업한 경우가 평균이 6.65시간으로 미취업 6.03보다 높았다.

〈표 IV-3-11〉 일과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적절 근무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6시간 까지	6~7 시간	8~9 시간	10~11 시간	12시간 이상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8.4	49.2	29.8	2.0	0.6	(500)	6.56	1.50
응답자 구분								
어머니	24.9	53.0	18.9	2.2	1.1	(185)	6.29	1.49
아버지	14.6	47.0	36.2	1.9	0.3	(315)	6.72	1.49
$X^2(df)/t$			na				-3.14**	
응답자 연령								
20대	17.5	50.9	26.3	5.3	-	(57)	6.49	1.63
30대	18.0	50.9	29.6	0.9	0.6	(328)	6.54	1.43
40대 이상	20.0	43.5	32.2	3.5	0.9	(115)	6.66	1.63
$X^2(df)/F$			na				0.34	
취업 여부								
취업	16.1	49.3	32.0	1.8	0.7	(434)	6.65	1.48
미취업	33.3	48.5	15.2	3.0	-	(66)	6.03	1.55
$X^2(df)/t$			na				3.13**	

** $p < .01$

4. 소결

가.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정책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정책과 관련한 수시 여론조사 결과, 우선 첫 기관 이용시기로 영유아 부모들은 대부분 만 2-3세로, 개월수로는 약 30개월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특히 맞벌이 가구일수록 적절한 기관 이용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점을 볼 때, 향후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기관 이용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향후에도 기관 이용 순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시간은 평균 8시간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유무에 따라 등하원시간과 적절이용시간에 대한 조사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향후 맞벌이 유무에 따른 이용방식 차별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어린이집의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에 대한 현행 기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많다는 응답이 높아, 향후 교사 1인당 영유아수를 낮추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반해 현행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 기준은 작다는 응답이 많아 향후 영유아당 보육실 면적 기준을 상향하는 것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확충 계획은 90% 가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의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다. 또한 보육료와 유아학비에 대한 부모 바우처방식과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서로 비슷하였으며, 현행방식 유지 의견이 약간 더 많았다.

영유아 부모들이 생각하는 어린이집의 적절 기본이용시간은 평균 9.23시간이었다. 10시간 이상으로 현행 어린이집 종일제 12시간 이용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46.2%로 상당하였으며, 8시간 이하에 대한 의견도 46.2%로 유사하게 나타나 향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탄력적 지원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본 이용시간 이외의 추가 이용에 대해 부모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73.2%가 찬성하는 입장인어서,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따른 부모 수익자 부담 도입도 논의가 필요하다.

나. 가정 내 양육 및 일·가정 양립 정책

가정 내 양육과 일·가정 양립 정책 관련 수시 여론조사 결과, 먼저 자녀 돌봄에 대해서 약 절반가량이 조부모에게 일정 부분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조부모에게 도움 받는 경우가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의 경우에는 조부모로 부터 경제적인 지원, 가사 지원을 받는 비율이 40%가 넘게 나타났다.

부모교육과 동단위로의 양육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특성별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부모교육의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직장업무 등으로 부모교육을 수강할 시간 부족하다는 우려로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따라서 취업한 경우라도 부모교육의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육수당 지원 수준이 현재지원수준보다 높아야한다는 의견이 65%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20대, 미취업, 비맞벌이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양육수당 지원 증액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양립의 우선사항으로는 부모 육아휴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20대 연령에서 육아휴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40대의 경우에는 수준높은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군(읍면지역)의 경우에 수준높은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상대적으로 보육수요가 취약한 곳에 우수한 보육기관에 대한 수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약 40%의 응답자들이 재직 중인 현 직장이 자녀를 키우기에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좋은 곳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5%로 나타나, 아직까지 많은 근로자들이 일과 양육의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보완책으로는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일과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적절한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의 평균은 6.56시간으로 나타나 육아기에는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짧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기업의 단축근무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정책 제언

1. 육아문화 개선 과제

가. 부모됨의 긍정적 가치 확산 노력 필요

저출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긍정적 가치를 전달하고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 본 조사에 따르면 젊은 연령층은 부모됨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며, 동시에 일반 국민들은 부모됨의 가치에 있어 경제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젊은 연령층의 가족 형성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이미지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젊은 층의 인식이 최근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문무경 외(2016)의 지적대로 경제력 이외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등 부모됨에 대한 긍정적 가치의 확산 노력이 요구된다.

나. 부모교육 의무화

출산 전 부모교육 의무화를 도입함과 동시에 교육 내용에 부모됨과 자녀 양육의 가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본 조사에서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응답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점 평균에 3.53점), 특히 10~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출산 전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본 조사에서 부모교육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77.6%로 높았다. 이는 이미화 외(2015)의 연구에서도 부모교육 제도화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이에 함께 최근 잠재적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군대 및 각종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부모교육에서 전반적인 콘텐츠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모들이 경제활동 등으로 부모교육을 수강할 시간이나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 등 상대적으로 부모교육의 적극적, 능동적 참여 여건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의 접근

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등의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다. 자녀양육 및 가사의 공평한 분담 의식 확산 필요

본 조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분담하는 적절한 비중이 6대 4 정도로 나타나,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수준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분담수준은 7대 3수준으로 인식에 비해 어머니의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은 여전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부부간 역할이 동등한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남녀간의 역할분화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근로 문화 개선과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늘어나며 가정 내 남성의 가사 및 자녀양육 참여 향상을 유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사와 자녀양육은 가족 내에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정 필요

남녀간 결혼에 의한 전통적 가족의 형성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본 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 전통적 가족 구성을 결혼이라는 법적틀 속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26.2%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혼인 경우나 연령대 낮을수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동의한 비율이 높고, 자녀출산을 위해 결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차츰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2. 육아정책 개선 과제

가. 영유아 보육·교육에 있어서의 국가의 책무성 강화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으로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확

충, 서비스 질 향상, 육아휴직제도나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한 우선순위(1+2+3순위) 비율이 높았다. 현 정부에서의 국가 책무성과 공공성 확대, 일·가정 양립정책 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해서는 도움정도와 향후 이용의향 수준이 매우 높아, 실질적 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갖추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육아정책 설계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남자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을, 여자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직까지 실제 자녀양육에 있어 모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질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나. 0-5세 전계층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에 대한 논의 필요

2013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0-5세 전계층 무상 보육·교육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본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육아지원 재정지원 우선순위에서는 차별적 지원(48.8%)이 전계층 무상지원(42.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낮은 연령대는 무상지원이, 40대 이상에서는 차별적 지원이 많아 세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낮은 연령대는 0-5세 영유아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20대와 30대, 그리고 예비부모로서 10대 등 보육·유아교육의 핵심수혜계층에서 보편적 무상지원 요구가 더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는 40대 이상의 비수혜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의 재정의 차별적 지원 수요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한정된 재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조사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육아 재정지원이 차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 일정부분 소득에 따른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시 차별적 비용지원도 국가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 보육료·유아학비 비용지원 방식의 재검토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부모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본 조사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님들이 매월 결제한 금액만큼(해당기관 이용 영유아수만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급되고 있는 현재의 비용지원 제도에 대한 찬성비율이(44.2%), 보육

료와 유아학비가 부모님 결제나 승인없이 곧바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지급되는 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42.4%)보다 다소 더 많았다.

그러나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료와 유아학비의 부모바우처 지원 방식과 부모 현금직접 지원 방식 간에 조사한 결과에서는 영유아 자녀의 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일정금액의 현금을 매월 지급하고, 부모는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현금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을 선택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42.2%)이 가장 많았다 이는 부모의 선택권과 어린이집·유치원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도입된 바우처 형태의 지원에 대한 정책적 효과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라.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 강화

현 정부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에서의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부모가 가까운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본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택시 고려사항에서는 집과의 거리, 즉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였다. 비용부담이나, 원장의 자질, 프로그램 등도 모두 기관 선택시 중요한 고려사항이겠지만, 접근성 자체가 떨어진다면 수요자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나 이용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수요자의 이용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저출산의 심화와 함께 2017년 신생아수가 4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갈수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영유아 모집이나 운영여건도 열악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심화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급체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용 수요와 공급에 대한 면밀할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정부의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지원 정책 홍보 강화

정부의 다양한 비용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요구된다. 본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비용지원 정책인 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60% 이상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시간연 장형 보육료 지원(시간연장, 야간보육, 휴일보육 등), 시간제 보육료 지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은 모른다는 비율이 더 많았다. 특히 직접적 수혜층인 영유아 부모인 경우에도 40% 이상이 이러한 제도를 모른다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국민 홍보와 적극적 이용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부모/교사 교육 확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모와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시로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이 심각성이 보도되고 있으며, 일련의 사건들로 하여금 아동학대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본 조사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서는 전체적으로 처벌강화와 교육,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등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연령대에서는 처벌강화 비율이 높고, 높은 연령대에서는 교육실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세대간 정책우선순위에 차이를 보였다.

사.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임신·출산 지원 정책, 자녀돌봄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등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5점중 4점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반면, 저출산 대응에 대한 실제 정책효과 측면에서는 보통수준(3점대 초반)으로 중요도에 비해 거는 기대치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책적 중요도에 불구하고 재정의 한계와 정책 혜택을 받는 집단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긍정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핵심수혜계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와 30대에서의 정책효과 기대치가 낮은 것은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 수립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이나 아동수당 도입은 추가 출산이나 출산 계획에 미친 영향은 보통수준이나 그 이하로 나타나, 저출산 문제를 비용지원 정책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

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아. 어린이집 기본이용시간 8시간 및 가구 특성별 비용지원 차별화

가구특성에 따른 어린이집 적정 등하원시간과 적정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기본이용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하고, 가구 특성에 맞게 비용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전체적으로는 평균 9.23시간을 적정 기본이용시간으로 보았으며, 구간별로 살펴보면 10시간 이상이 46.2%로 가장 많았으며, 8시간이 26.4%, 6시간이 9.6%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기본이용시간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모 부담 의사를 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73.2%)이 본인이 응답한 적정 기본이용시간 이외에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할 의사가 있으며, 26.8%는 비용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어린이집 기본이용시간을 8시간으로 조정하고, 4시간, 6시간 등만 이용하는 부모에게는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8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부모는 자부담 형식으로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자. 어린이집 교사배치 및 보육실 면적 기준 조정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영유아수를 줄이고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교사 1인당 영아수가 적절하다는 비율보다(33.2%), 교사당 영아 비율이 많다는 의견은 40.6%, 적다는 비율은 20.2%로 나타나 교사 1인당 영아수가 많다는 의견이 많았다. 유아의 경우에도 교사 1인당 유아 비율이 많다는 의견은 57.2%, 적다는 비율은 29.2%로 나타나, 영아와 마찬가지로 교사당 유아 비율이 많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영유아 1인당 보육실 확보기준은 2.64㎡(0.8평) 수준인 현재 어린이집 보육실 크기 기준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24.8%, 크다는 의견이 5.4%, 작다는 의견이 69.8%로 대부분이 보육실 크기가 작다고 응답하였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라도 향후 어린이집 교사1인당 영유아수와 보육실 면적 기준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차. 가정내 양육 지원 내실화를 위한 양육지원센터의 동 단위 확대 및 양육수당 인상

먼저 영아에 대한 가정 내 양육 지원 내실화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형식의 양육지원센터를 동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단위 양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 찬성이 85.4%, 반대가 5.8%였으며, 응답자 특성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미취업인 경우가 취업한 경우보다 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현행보다 인상될 필요가 있다. 양육을 위한 정부의 우선지원 사항에 대한 본 조사 결과,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21.2%, 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 14.6%, 가정 내 놀이 방법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9.0%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현재 지원수준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미취업, 맞벌이가 아닌 경우가 취업한 경우, 맞벌이인 경우보다 현재 지원수준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정책 실효성 제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 양질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돌봄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조사결과 일과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적절한 근무시간으로 6~7시간 가장 많았으며(49.2%), 다음으로 8~9시간(29.8%), 6시간까지가 18.4%였으며 평균 6.56시간이었다. 또한 일·가정 양립 보완책으로는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일과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적절한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의 평균은 6.56시간으로 나타나 육아기에는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짧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기업의 단축근무 등의 제도 정비와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 협조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4. 1. 14). 오늘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4. 9. 30). 오늘부터 아빠도 육아휴직 가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7. 4. 20). 아빠육아휴직, 전체 육아휴직자의 10% 돌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7. 8. 21). 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 교육부 보도자료(2015. 9. 2).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2세 유치원 취원, '16년 시범사업 후 단계적 실시.
- 교육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11. 25). 누리과정 관련 관계부처 공동 서한문 발표.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5. 9. 2).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2세 유치원 취원, '16년 시범사업 후 단계적 실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국회입법조사처(20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저출산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
-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a).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이정원·최효미·김혜진(2016b).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권미경·최은영·김나영·김혜진·임준범(2016c).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
- 김승권·김유경·김혜련·박중서·손창균·최영준·김연우 외(2012). 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운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 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박원순·이재희·이혜민(2016a).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 (II):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2016b).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II):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민·양승실·이선호·김일혁·이슬아(201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4).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이정아(2002). 유아의 방과후 활동 경험과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121-137.
-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문무경·김은설·최혜선(2007). 혁신적 육아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통합관리 체제 구축 방안 연구: KICCE i-POL 사업 결과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5. 1.).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안.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7). 2017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2. 12. 31).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9. 5). 「5세 누리과정」 고시 -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같이 배우게 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1. 18). 내년 만 3~4세아도 '누리과정(공통과정)' 도입 및 0~2세아에 대한 양육수당 대폭 확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1. 28).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2. 5).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4. 25).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7. 10). 맞춤형 보육 현장 정착을 위한 즉시 보완 조치 등 실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8. 24). 9월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 시급히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3. 6). 인구절벽 위기 속,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3.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개선기획단 출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4. 28).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등 130개 사업장 명단 공포.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8. 1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 주도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로 거듭난다.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신윤정(2015). 저출산 시대의 가사 노동 및 자녀 돌봄 시간 변화와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275호.
- 안희란(2015). 육아휴직제도의 부모권 보장성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사회복지정책, 42(3), 51-75 (재인용 자료 출처임).
- 여성가족부(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5. 12. 29).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우남희·백혜정·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 육아정책연구소(2017). 육아정책포럼 제53호(가을호).
- 육아정책연구소 전략기획센터(2015). 2015 KICCE i-POL 사업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김은설·이진화·김길숙·윤지연·김의향 외(2015).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미화·장명림·문무경·서문희·김은영·김은설 외(2013a). 한국형 유아교육·보육 발전 로드맵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최윤경·유해미·이혜민(2013b). 보육·유아교육 통합 관련 학부모 인식조사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삼식·박중서·이소영·오미애·최효진·송민영(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신인철·조남훈·김희경·정윤선·최은영 외(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윤홍식·장보현·박종서·최은영(2007)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출산 및 양육 친화적 가족문화 및 직장문화 조성 방안-(총괄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림·장명림·김문정·한영숙(2011). 2011 KICCE i-POL 사업보고서. 유아정책연구소.
- 임소현·김영혜·김홍주·조옥경·안영은(201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5). 한국교육개발원.
- 임소현·김홍주·한은정·황은희·정민지(201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6). 한국교육개발원.
- 최효미·유해미·김지현·김태우(2016).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유아정책연구소.
- 통계청(2014). 2014년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2016). 2016년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보도자료(2016. 11. 15). 2016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 통계청 보도자료(2017. 3. 23). 2016 한국의 사회지표.
- PDKPoll, (2017). about poll. <http://pdkpoll.org/about>(검색일: 2017.10.31.) 인출.
- Phi Delta Kappan (2017). The 49th annual PDK poll of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the public school.
- Zero to Three (2016). *Tuning in national parent survey report.*

<인터넷 자료>

- 고용노동부(2013). “고용보험 DB자료.” <http://www.moel.go.kr>. (재인용 자료 출처).
- 중앙일보(2017. 5. 26). 누리과정 예산 4조,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19984>에서 2017년 6월 2일 추출.

통계청(2017).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603&conn_path=I3에서 2017년 11월 29일 인출

한국언론진흥재단(2017).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 (https://www.bigkinds.or.kr/manual/빅카인즈_사용자매뉴얼.pdf).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Zero to Three (2017). National Parent Survey.

<https://www.zerotothree.org/parenting/national-parent-survey>(검색일: 2017.10.31.)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법률 제13259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9. 28. 시행]

Abstract

KICCE Poll for Establishing the Culture of Happy Child Care (I)

Donghoon Kim Jaehee Lee Hyemin Le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s KICCE POLL, which completes its first research in 2017, has surveyed the public perceptions and attitudes on the current Korean Childcare policy to grasp the changing modes and trends of the public opinions. The goals for this research are to collect basic data about the public opinions on present childcare issues and utilize the information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concerned policies.

The detailed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we investigated the public satisfaction, effectiveness,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public about current policies and values related to child - raising, and suggested policy tasks that meet the needs of policy consumers through the survey results.

Second, when major policy issues occur, we conduct public opinion polls, monitoring each policy, and suggesting the right policy direction through collecting opinions from consumers.

Third, through the survey for the next 5 years, we tried to give good implications to the childcare policy by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of the policy consumer according to the child care support policy.

The regular survey was conducted on 3,000 people sampled from 40,225,441 people between 15~74 in their ages. In the case of regular surveys, the items were composed mainly of becoming a parent, child-rearing, marriage, parenting happin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policy, policy satisfaction, and low birth rate policy.

Occasional surveys were conducted on 500 parents with infant children. In the case of occasional surveys, it consisted of ① ECEC service policy, ② nurturing within the family, and opinions about work-family compatibility.

In addition, this study newly constructed a parent monitoring unit (i-POLL). Also the KICCE POLL homepage was reorganized. Through this, we aimed to share the policy demanders' online policy suggestion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research outcomes as follows:

First, The subjects in this study responded that it was happy and expected to be a parent (3.53 points on average of 5 points). However, younger respondents aged 10 to 20 had significantly lower expectations for parenting than those aged 50 to 60 or older (3.45 points in the 60s, 3.37 points in the 50s, 3.03 points in the 20s, and 10 points in the 10s : 3.06 points).

Second, Many respondents agree that education is needed to be a parent before giving birth to a child (3.53 points on the 5-point average). In particular, In the younger age group of 10 ~ 20, the need for parent education before childbirth was highly recognized.

Third, as a result of asking the actual ratio of childcare and housekeeping, mother 6.86: father 3.14 in the case of child care. In the case of the housework, it was found that mother 6.81: father 3.19. However, the ideal ratio of child-rearing share for the same subjects with infant children was 5.83 for mothers and 4.17 for fathers. The share of housework was 5.84 for mother and 4.16 for father.

Fourth,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think that marriage is a prerequisite for the birth of children. However, in the case of the unmarried, the younger the younger, the higher the percentage agreed to be able to have children without marriage. The perception that marriage should be presupposed for childbirth is gradually changing.

Fifth, the difficulties of child rearing were mostly the burden of child care, job concurrence and child rearing cost.

Sixth,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the economic value of child rearing, the

highest percentage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were between KRW101,000 and KRW2,000,000, with an average of KRW235.20 million.

Seventh, Respondents recognized that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care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was the responsibility of their parents. However, the lower the age, the more the state wants to be responsible for the child rearing.

Eighth, in the government's priorities for financial support for child-care support, discrimination support (48.8%)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all-level support (42.1%).

Ninth, in relation to child abuse, there are many demands such as strengthening punishment, education, and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of teachers. In low age group, punishment reinforcement ratio is high, and in high age group, education ratio is relatively high. There was a difference in policy priority among generations.

Tenth, in the case of additional tax burden for infants and toddlers, the rate of additional burdens was higher in those under 40 years old, while those in their 40s or older had more. Also, when the children were infants and young children, the pros and cons were the opposite.

Eleventh, public support for childcare for the government was high in priority for expanding national and public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improving service quality, and increasing parental leave and flexible work arrangements. Particularly, the government's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needs to have a clos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enterprise so that the degree of assistance and intention to use it will be very high and the actual utilization possibility can be increased.

Twelf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mportance and policy effects of the government's low birth control polici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importance of youth employment residence measures, pregnancy and childbirth support policies, child care support policies and work-.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the actual policy effect on responding to the low birth rate, the expectation level compared to the importance level was low at

the normal level (early stage of 3 points).

Thirteenth, 45.5% agreed on the need to pay child allowances. However, 40.7%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do not know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discuss future payment methods, age, and amount of payment continuously.

Fourteenth, the government's policy on childcare support for infants and toddlers was generally moderate. In the twenties to thirties, the satisfaction level was lower than the other groups when the children were infants and dual - income families. Despite the various efforts of the government, the realistic perception of the citizens was rather low.

Fifteenth, parents with infants and toddlers are most likely to be 2-3 years old when they first use the institution, and about 30 months are appropriate. They found that an average of 8 hours was appropriate for the day care centers.

Sixteenth, parents perceived that the number of infants per teacher was high in the daycare center, and there were many responses that the standard of the nursery room per infant is small.

Seventeenth, survey results showed that More than half (56.0%) of the children were receiving some help from their grandparents.

Eighteenth, more than 65%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 support level should be higher than the current level of support. Especially, it was higher in the 20s, the unemployed, and the non-working households where the economic situation was relatively inadequate.

The followings are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research outcomes:

First, in order to cope with the deepening of low birthrate, there is a need to communicate and spread the positive value of parenting to young people. There is a need to incorporate the value of parenting and childrearing into educational content while introducing mandatory parental education before giving bir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licies such as parent education service to make parent education accessible to parents of blind people who

have difficulties in participating in parent education.

In addition to the efforts to spread the consciousness of equitable sharing of parenting, child rearing and housework, social and institutional recognition of various families is needed.

Third,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n infant child care and education. In addition to striving to strengthen the nation's accountability and publicity in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geographical accessibility of the parents in order to use the nearest institutions (nurseries, kindergartens).

Fourth, as changes in the supply system of day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re expected to change with the increase in low fertility rates,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utilization demand and supply in the national level.

Fifth,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various cost support policies such as government childcare support for 0-5 year olds, the 0-5 year old childcare allowance support policy, the extended time childcare fee support (time extension, night childcare, Part-time childcare support, kindergarten after-school courses, etc.

Six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nishment for child abuse, and to strengthen and expand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targeting both parents and teachers.

Seventh, it is necessary to set the basic hours of daycare to 8 hours and to differentiate cost support such as parental burde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oper time of daycare and the appropriate time of use.

Eighth,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number of infants per childcare teacher and to raise the standard of the nursery room per infant.

Ninth, it is necessary that the expansion and rearing allowance of the parenting support center for the improvement of the support for home care in the home should be increased.

Tenth,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by activating parental leave for the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expanding kindergartens and kindergartens of good quality, and expanding opportunities to use caring services.

부록

1. KICCE 육아정책 정기 여론조사 세부내용
2. KICCE 육아정책 정기 여론조사 응답자별 응답여부
3. KICCE 육아정책 정기 여론조사 설문지
4. KICCE 육아정책 수시 여론조사 설문지(Ⅰ)
5. KICCE 육아정책 수시 여론조사 설문지(Ⅱ)
6. KICCE i-POL 사업추진 결과

부록 1. KICCE 육아정책 정기 여론조사 세부내용

영역	문항내용	연번	번호	상세내용	문항 출처	
I. 기초 자료	성별	1	1	응답자 성별		
	거주지	2	2	지역 규모별 구분(서울시, 특별시, 중소도시, 읍면)		
	연령	3	3	응답자 출생년도		
	혼인 여부	4	4	혼인 여부(미혼,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자녀 일반 사항		5	5	자녀 여부	
			6	5-1	자녀 수 및 연령(영·유아, 유/초/중/고, 대학/대학원, 직장인(자영업 포함)/기타 구분)	임소현 외(2016)
			7	5-2	(미취학연령 자녀가 있는 경우만)자녀가 영·유아일 경우 재원하는 종일제 기관 종류(유치원/어린이집/반일제 학원)	김은설 외(2016)
II. 부모 됨	부모됨 인식 및 역할	8	1	부모됨에 대한 의견(하위 7개 문항)	문무경 외(2016), ZERO TO THREE(2016)	
		9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일반인식(하위 2개 문항)	문무경 외(2016)	
		10	3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기	문무경 외(2016)	
		11	4	부모 취업과 자녀양육(3개 하위문항)	문무경 외(2016)	
	부모역할의 실제	12	5	자녀양육 및 가사 분담정도 및 적절수준 의견	문무경 외(2016)	
		13	6	가사활동 및 양육활동별 실제 분담 정도	문무경 외(2016)	
		14	7	자녀양육시기별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문무경 외(2016)	
		15	8	좋은 부모 인식 여부	문무경 외(2016)	
		16	8-1	과거로 돌아간다면 자녀를 낳는 시기	ZERO TO THREE(2016)	
		17	9	좋은 부모 가능성 전망		
18	10	좋은 부모 필요요건	문무경 외(2016)			
III. 결혼 및 자녀 양육 관	결혼 가치관	19	1	결혼필요성	이삼식 외(2015)	
	결혼과 출산	20	2	결혼과 출산의 관계	이삼식 외(2015)	
	적정 자녀 수	21	3	일반적인 적정 자녀 수 및 자녀 성 선호도	이삼식 외(2015)	
	자녀에 대한 필요성	22	4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의견	이삼식 외(2015)	
		23	4-1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	이삼식 외(2015)	
		24	4-2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	이삼식 외(2015)	
	양육 태도	25	5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하위 6개 문항)	문무경 외(2016)	

영역	문항내용	연번	번호	상세내용	문항 출처
	자녀양육 어려움	26	6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	문무경 외(2016)
	자녀 교육관	27	7	자녀교육의 성공에 대한 관점	임소현 외(2016)
		28	8	자녀양육 선호도	ZERO TO THREE(2016)
IV. 육아 행복 감	육아행복감 및 가치	29	1	자녀양육 즐거움	문무경 외(2016)
		30	2	양육의 육아의 가치 및 자신감	권미경 외(2016b)
	양육의 경제적 가치	31	3	영유아 육아의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 하면?(월 평균)	권미경 외(2016c)
	양육의 책임	32	4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김은설 외(2016)
V. 육아 정책	보육·유아교 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33	1	정부의 육아정책 설계 우선순위	
		34	2	정부의 육아 재정지원 설계 우선순위	
		35	3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 능	김은설 외(2016)
		36	4	유치원·어린이집 선택시 고려사항	김은설 외(2016)
	교사	37	5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 한 신뢰 정도	임소현 외(2016)
		38	6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 한 능력	이미화 외(2013)
	비용지원 정책	39	7	보육료·유아학비 등 육아비용 지원정책 인 지 여부(하위 6개 문항)	김은설 외(2016)
	아동학대 관련 의견	40	8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방안	김은영 외(2016a)
	영유아 사교육 관련 의견	41	9	영유아 사교육 근본 원인	김은영 외(2016b)
		42	10	사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	김정민 외(2014)
	세금 추가 부담 의사	43	11	육아정책 관련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	김은설 외(2016)
		44	11-1	추가세금 부담에 대한 반대 이유	
	육아지원 정책 희망	45	12	현재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김은설 외(2016)
	일-가정 양립 의견	46	13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	이삼식 외(2015)
무상보육·교 육정책 만족도	47	14	무상보육·교육정책 만족도	김은설 외(2016)	
	48	14-1	보육료·유아학비 불만족시 불만족 이유	김은설 외(2016)	
	49	14-2	양육수당 불만족시 불만족 이유		

영역	문항내용	연번	번호	상세내용	문항 출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50	15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예상 정책효과(하위 4개 문항)	
	추가 출산	51	16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추가 출산 영향 여부	김은설 외(2016)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의견	52	17	아동수당 도입과 출산율과의 관계	
		53	18	아동수당 도입 적정 금액 및 적정 연령	
	보육료지불 방식	54	19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불하는 형태에 대한 인식	
	안전한 사회	55	20	영유아 자녀양육을 위한 안전한 사회 인식 정도	통계청(2016)
		56	20-1	영유아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 불안 요인	통계청(2016)
	전반적 만족도	57	21	육아지원정책의 전반적 만족도	
VI. 개인 배경	학력	58	1	본인 및 배우자 학력	임소현 외(2016)
	근로형태 및	59	2	본인 및 배우자 근로형태	김은설 외(2016)
	종사상 지위	60	3	본인 및 배우자 종사상 지위	김은설 외(2016)
	직업	61	4	본인 및 배우자 직업	김은설 외(2016)
	가구소득	62	5	한 달 평균 가구 총 소득	임소현 외(2016)

주: 일부 여론조사 문항의 경우, 원 출처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자료: 1) 문부경 외(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4) 임소현 외(201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6). 한국교육개발원.
 5) 김정민 외(201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4). 한국교육개발원.
 6) 권미경 외(2016b).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7) 권미경 외(2016c).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
 8) 이미화 외(2013b). 보육·유아교육 통합 관련 학부모 인식조사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9) 김은영 외(2016a).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 II-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10) 김은영 외(2016b).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II-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11) ZERO TO THREE(2016). Tuning In: Parents of Young Children Speak up about What They Think, Know and Need. ZERO TO THREE National Parent Survey Report.
 13) 통계청(2016). 2016년 사회조사보고서(보건·교육·안전·가족·환경). 통계청.

부록 2.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응답자별 응답여부

영역	문항내용	연번	번호	상세내용	해당 응답자				
					미혼	기혼			중고등 학생
						재무 자녀	학당기 이상 자녀	영유아 자녀	
I. 기초 자료	성별	1	1	응답자 성별	○	○	○	○	○
	거주지	2	2	지역 규모별 구분(서울시, 특별시, 중 소도시, 읍면)	○	○	○	○	○
	연령	3	3	응답자 출생년도	○	○	○	○	○
	혼인 여부	4	4	혼인 여부(미혼,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	○	○	○	○
	자녀 일반 사항	5	5	자녀 여부	-	○	○	○	-
		6	5-1	자녀 수 및 연령(영·유아, 유/초/중/ 고, 대학/대학원, 직장인(자영업 포 합)/기타 구분)	-	-	○	○	-
		7	5-2	(미취학연령 자녀가 있는 경우만)자 녀가 영·유아일 경우 재원하는 종일 제 기관 종류(유치원/어린이집/반일 제 학원)	-	-	-	○	-
II. 부모 됨	부모됨 인식 및 역할	8	1	부모됨에 대한 의견(하위 7개 문항)	○	○	○	○	○
		9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일반인식(하위 2개 문항)	○	○	○	○	○
		10	3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 기	○	○	○	○	○
		11	4	부모 취업과 자녀양육(3개 하위문항)	○	○	○	○	○
	부모역할 의 실제	12	5	자녀양육 및 가사 분담정도 및 적절 수준 의견	○	○	○	○	○
		13	6	가사활동 및 양육활동별 실제 분담 정도	-	-	-	○	-
		14	7	자녀양육시기별 바람직한 부모의 경 제활동 상태	○	○	○	○	○
		15	8	좋은 부모 인식 여부	-	-	○	○	-
		16	8-1	과거로 돌아간다면 자녀를 낳는 시기	-	-	○	○	-
		17	9	좋은 부모 가능성 전망	○	○	-	-	○
18		10	좋은 부모 필요요건	○	○	○	○	○	
III. 결혼 및 자녀	결혼 가치관	19	1	결혼필요성	○	○	○	○	○
	결혼과 출산	20	2	결혼과 출산의 관계	○	○	○	○	○

영역	문항내용	연번	번호	상세내용	해당 응답자				
					미혼	기혼			중고등 학생
						재류 자녀	학당기 이상 자녀	영유아 자녀	
양육 관	적정 자녀 수	21	3	일반적인 적정 자녀 수 및 자녀 성 선호도	○	○	○	○	○
	자녀에 대한 필요성	22	4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의견	○	○	○	○	○
		23	4-1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	○	○	○	○	○
		24	4-2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	○	○	○	○	○
	양육 태도	25	5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하위 6개 문항)	○	○	○	○	○
	자녀양육 어려움	26	6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	○	○	○	○	○
	자녀 교육관	27	7	자녀교육의 성공에 대한 관점	○	○	○	○	○
		28	8	자녀양육 선호도	○	○	○	○	○
IV. 육아 행복 감	육아행복 감 및 가치	29	1	자녀양육 즐거움	○	○	○	○	○
		30	2	양육의 육아의 가치 및 자신감	○	○	○	○	○
	양육의 경제적 가치	31	3	영유아 육아의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월 평균)	○	○	○	○	○
	양육의 책임	32	4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	○	○	○	○
	V. 육아 정책	보육·유아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33	1	정부의 육아정책 설계 우선순위	○	○	○	○
34			2	정부의 육아 재정지원 설계 우선순위	○	○	○	○	○
35			3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더 강조될 역할 과 기능	○	○	○	○	○
36			4	유치원·어린이집 선택시 고려사항	○	○	○	○	○
교사		37	5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능력과 자질 에 대한 신뢰 정도	○	○	○	○	○
		38	6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에게 우선적으 로 필요한 능력	○	○	○	○	○
비용지원 정책		39	7	보육료·유아학비 등 육아비용 지원정 책 인지 여부(하위 6개 문항)	○	○	○	○	○
아동학대 관련 의견		40	8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방안	○	○	○	○	○
영유아 사교육 관련 의견		41	9	영유아 사교육 근본 원인	○	○	○	○	○
		42	10	사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	○	○	○	○	○
세금 추가 부담 의사	43	11	육아정책 관련 재정 확보를 위한 세 금 추가 부담 의사	○	○	○	○	○	

영역	문항내용	연번	번호	상세내용	해당 응답자				
					미혼	기혼			중고등 학생
						재류 자녀	학령기 이상 자녀	영유아 자녀	
		44	11-1	추가세금 부담에 대한 반대 이유	○	○	○	○	○
	육아지원 정책 희망	45	12	현재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	○	○	○	○
	일-가정 양립 의견	46	13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	○	○	○	○	○
	무상보육· 교육정책 만족도	47	14	무상보육·교육정책 만족도	○	○	○	○	○
		48	14-1	보육료·유아학비 불만족시 불만족 이유	○	○	○	○	○
		49	14-2	양육수당 불만족시 불만족 이유	○	○	○	○	○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50	15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예상 정책효과(하위 4개 문항)	○	○	○	○	○
	추가 출산	51	16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추가 출 산 영향 여부	○	○	○	○	○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의견	52	17	아동수당 도입과 출산율과의 관계	○	○	○	○	○
		53	18	아동수당 도입 적정 금액 및 적정 연 령	○	○	○	○	○
	보육료지 불방식	54	19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불하는 형 태에 대한 인식	○	○	○	○	○
	안전한 사회	55	20	영유아 자녀양육을 위한 안전한 사회 인식정도	○	○	○	○	○
		56	20-1	영유아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 불안 요인	○	○	○	○	○
	전반적 만족도	57	21	육아지원정책의 전반적 만족도	○	○	○	○	○
VI. 개인 배경	학력	58	1	본인 및 배우자 학력	△	○	○	○	△
	근로형태	59	2	본인 및 배우자 근로형태	△	○	○	○	△
	및 종사상 지위	60	3	본인 및 배우자 종사상 지위	△	○	○	○	△
	직업	61	4	본인 및 배우자 직업	△	○	○	○	△
	가구소득	62	5	한 달 평균 가구 총 소득	△	○	○	○	△

주: △의 경우 일부만 응답

부록 3. KICCE 육아정책 정기 여론조사 설문지

2017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정책 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됨, 결혼, 양육관 및 각종 유아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향후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작성 및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내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 김동훈 부연구위원 02-398-7742 dhkim@kicce.re.kr
이혜민 연구원 02-398-7727 hmlee@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I. 기초 자료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③ 중소도시(특별·광역·특별자치시 이외 시 소재) ④ 군(읍·면 지역)

3. 귀하의 출생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 년

5.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부모라면 자녀 양육과 가사(집안 일 등)를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예: 어머니 8: 아버지 2, 어머니 5: 아버지 5, 어머니 2: 아버지 8)

자녀 양육	가사
어머니 vs 아버지 (:)	어머니 vs 아버지 (:)

6. (현재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만) 실제로 자녀양육과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계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예: 어머니 8: 아버지 2, 어머니 5: 아버지 5, 어머니 2: 아버지 8)

자녀 양육	가사
어머니 vs 아버지 (:)	어머니 vs 아버지 (:)

7. 귀하께서는 자녀 양육시기별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양육시기별로 아래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영유아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 ①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 ②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 ③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 ④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8. (자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임 ③ 보통
 ④ 그렇지 않은 편임 ⑤ 매우 그렇지 않음

- 8-1. (자녀가 있는 경우) 귀하는 다음의 진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자녀를 갖기까지 시간을 더 들 것이다.

- ① 매우 동의함 ② 약간 동의함 ③ 보통
 ④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⑤ 전혀 동의하지 않음

9. (자녀가 없는 경우) 귀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임 ③ 보통
 ④ 그렇지 않은 편임 ⑤ 매우 그렇지 않음

10.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번, 2순위 ()번

- ① 양육지식 ② 정서적 지원 ③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④ 학업지도 ⑤ 경제적 지원 ⑥ 기타()

IV. 육아 행복감

1. 다음 중 부모로서/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
 ②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 ③ 자녀 돌봄과 지도
 ④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⑤ 기타()

2. 귀하께서는 다음의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3.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 중위소득은 241만원이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영유아 자녀 양육을 경제적 가치로 측정한다면 월평균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만원

4. 귀하는 영유아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와 국가 중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 ②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
 ③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 ④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
 ⑤ 기타()

V. 육아정책

1. 귀하는 국가차원에서 육아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다음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부모의 일·가정 양립 ②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③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④ 아이의 행복
 ⑤ 기타()

※ 일·가정 양립: 일과 가정(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2. 귀하는 정부가 육아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설계에 있어, 다음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 ② 0-5세 무상 보육·유아교육 이행
 ③ 모르겠음 ④ 기타()

3. 다음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보육·교육에 있어서 가장 강조해야 할 점은 다음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유치원	어린이집
1순위 ()번	1순위 ()번
2순위 ()번	2순위 ()번

- ① 균형있는 발달 ② 인성지도(정서 및 사회성 발달)
 ③ 안전한 보호 ④ 자유놀이 중심 활동
 ⑤ 급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⑥ 쓰기·읽기를 강조한 인지교육
 ⑦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⑧ 특별활동
 ⑨ 충분한 휴식 ⑩ 기타() ⑪ 없음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는 기관. 주로 0세~만5세를 12시간(7:30~19:30) 이상 보육·교육하며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임.

※ 유치원: 「유아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기관. 주로 만3세~만5세 미취학 아동을 교육하며 교육부가 주무부처임.

4. 자녀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낸 경험이 있거나 향후에 보내신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을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1순위 ()번	1순위 ()번
2순위 ()번	2순위 ()번

- ① 운영 시간 ② 학부모 비용 부담 ③ 집과의 거리
 ④ 국공립 등 여부 ⑤ 주변의 평판 ⑥ 차량운행 여부
 ⑦ 형제 재원 여부 ⑧ 원장 및 교사 ⑨ 프로그램(특별/특성화/방과후 활동 포함)
 ⑩ 기타() ⑪ 모르겠음

5. 귀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기 관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

유치원	어린이집

-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신뢰한다 ③ 보통이다
 ④ 신뢰하지 못한다 ⑤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15. 귀하는 정부의 최근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중요도					정책효과				
	① 매우 중요함	② 중요함	③ 보통	④ 중요하지 않음	⑤ 매우 중요하지 않음	① 매우 효과 있음	② 효과 있음	③ 보통	④ 효과 없음	⑤ 전혀 효과 없음
01)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02) 임신·출산 지원 정책										
03) 자녀 돌봄 지원 정책										
04)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 참고

구분	내용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일자리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0.2→3.2만명)
		▶ 청년인턴채용 확대(1→5만명)
	주거	▶ 청년 창업촉진을 위한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신설(500팀 내외 지원)
		▶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한 대학창업펀드 신설(160억원 조성)
기타	▶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청년전세임대 공급 지원 확대(0.5→1만호)	
	▶ 신혼가구(혼인후 5년 이내) 비담목전세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한 대출조건 완화 등 혜택 부여(3.4만명 추가지원)	
임신·출산 지원 정책	임신·출산	▶ 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공공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 5년·10년 임대, 행복주택 등) 공급 지원 확대(1만호 추가지원)
		▶ 신혼부부·청년 기존 주택매입임대 공급 확대(2천호 추가지원)
		▶ 서민·중산층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에 대한 혼인세액 공제 도입 추진
		▶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20%p 일괄 인하(17.1)
		▶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17.10)
		▶ 난임 휴가제 도입 추진(17.7월 시행)
	가족 지원	▶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지원확대
		▶ 분만취약지 2개소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개소 추가 선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등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자녀 돌봄 지원 정책	맞춤형 보육지원	▶ 다문화 유치원·예비학교·중점학교 확대 운영 등 다문화 가족 지원 확대
		▶ 국공립 등 공공 어린이집 확충 및 전제 어린이집 대상 평가제 실시
	돌봄 사각지대해소	▶ 산업단지형, 지자체 협업형 등 다양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20개소 추가설치)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인상
		▶ 초등돌봄교실 지속 확충 및 내실화(4천명 추가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근로문화 개선	▶ 아이돌봄 이용연령 확대 및 아이돌봄비 양성 확대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시범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6월)
	출산휴가· 육아휴직 활성화	▶ 공공부문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시행(3월) 및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 유연근무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확산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2. 22). 정부, 저출산 대책 보다 강력히 추진!

16. 귀하는 그동안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이 추가 출산이나 출산 계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③ 보통 ④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17. 귀하는 아동수당 도입 시 출산율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아동수당은 2018년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고, 만0~5세(최대 72개월)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수당은 월 10만원임)

- ① 매우 그럴 것이다 ② 그럴 것이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을 것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18. 귀하는 적절한 아동수당 연령과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 _____세까지 1달 기준으로 _____만원 지급해야 한다.

-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잘 모르겠음

19. 정부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보육료·유아학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바우처: 정부가 부모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부모가 보육료·유아학비를 결제(바우처형태)하면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 ①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부모 보육료 결제없이,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비용을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
 ③ 정부는 영유아 자녀의 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일정금액의 현금을 매월 지급하고, 부모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현금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을 선택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기타()

20. 귀하는 우리 사회가 영유아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0-1.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개)

- ① 국가 안보(전쟁, 북핵 문제 등) ②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③ 환경오염(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등) ④ 인재(화재, 교통사고, 건물붕괴 등)
 ⑤ 경제적 위험(기업 파산, 실업 등) ⑥ 자원(에너지 고갈)
 ⑦ 도덕성 부족(부정부패 등) ⑧ 신종 질병(신종 바이러스 등)
 ⑨ 범죄 발생(유괴, 아동학대, 살인, 성폭력 등) ⑩ 빈부 격차로 인한 계층 간 갈등
 ⑪ 기타

부록 4. KICCE 육아정책 수시 여론조사 설문지(I)

2017 KICCE 육아정책 수시 여론조사(I)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정책 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향후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작성 및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내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 김동훈 부연구위원 02-398-7742 dhkim@kicce.re.kr
이혜민 연구원 02-398-7727 hmlee@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I. 개인 배경

1. 귀하는 영유아 자녀(0세-6세 미취학 영유아)가 1명 이상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설문종료)

2. 귀하의 영유아 자녀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시/도 ()구/군

4. 귀하는 현재 취업중이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휴직중인 경우는 취업 중임. 시간제 근무자 포함(최근 3개월 이상)

5.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 가정입니까?

- ① 그렇다 아니다

6. 현재 귀하의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가장 어린 자녀부터 최대 3명까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령	이용 및 자원 기관
자녀 1	만 ()세	<input type="checkbox"/> ①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②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③ 반일제이상 학원 <input type="checkbox"/> ④ 이용안함(가정보육)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자녀 2	만 ()세	<input type="checkbox"/> ①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②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③ 반일제이상 학원 <input type="checkbox"/> ④ 이용안함(가정보육)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자녀 3	만 ()세	<input type="checkbox"/> ①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②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③ 반일제이상 학원 <input type="checkbox"/> ④ 이용안함(가정보육)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II.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정책 관련

1. 귀하께서는 영유아가 언제부터 가정 이외의 기관(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학원 등 정기적으로 다니는 기관)을 다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후 개월)

2. 귀하 가정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귀하의 자녀가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해야 하는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등원 ()시 ()분 ~ 하원 ()시 ()분

3. 정부의 0-5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이 영유아 자녀를 더 빠른 시기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4. 자녀가 생활하는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영유아수와 보육실 면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더라도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① 매우 적다	② 약간 적다	③ 적절하다	④ 약간 많다/크다	⑤ 매우 많다/크다
1) 교사1인당 영아 담당 기준 ※ 현재 교사1명이 0세 아동은 3명, 1세 아동은 5명, 2세 아동은 7명을 담당					
2) 교사1인당 유아 담당 기준 ※ 현재 교사1명이 3세 아동은 15명, 4~5세 아동은 20명을 담당					
3) 현재 영유아 수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실 크기 ※ 현재 영유아 1인당 보육실 확보기준 2.64㎡(0.8평)					

5.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40%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6. 현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확충과 지원확대를 추진중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7. 현재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님들이 매월 결제한 금액만큼(해당기관 이용 영유아수만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부모님 결제나 승인없이 곧바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지급되는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8.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교육을 수행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유치원 ()		어린이집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하고 있다	⑤ 전혀 못하고 있다.

9.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12시간(07:30~19:30)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정 이용시간을 정하여 비용을 지원한다면, 귀하는 하루 몇 시간이 기본이용시간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시간

※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더라도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9번 문항에서 응답하신 기본이용시간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귀하께서는 추가적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정부는 2013년부터 0-5세 전연령, 전계층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 지원수준보다 줄여야 한다	② 현 수준이 적절하다	③ 현재 지원수준보다 높여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보육료(만 0~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월 단위로 지원되는 비용으로, 0세반 430,000원, 1세반 378,000원, 2세반 313,000원, 3-5세반 220,000원임

※유아학비: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를 대상으로 월 220,000원의 비용 지원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부록 5. KICCE 육아정책 수시 여론조사 설문지(II)

2017 KICCE 육아정책 수시 여론조사(II)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정책 연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가정 내 양육 및 일-가정 양립 관련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향후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작성 및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내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 김동훈 부연구위원 02-398-7742 dhkim@kicce.re.kr
이혜민 연구원 02-398-7727 hmlee@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I. 개인 배경

1. 귀하는 영유아 자녀(0세-6세 미취학 영유아)가 1명 이상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설문종료)
2. 귀하의 영유아 자녀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① 어머니 ② 아버지
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시/도 ()구/군

4. 귀하는 현재 취업중이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휴직중인 경우는 취업 중임. 시간제 근무자 포함(최근 3개월 이상)

5.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 가정이십니까?

- ① 그렇다 아니다

6. 현재 귀하의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가장 어린 자녀부터 최대 3명까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령	이용 및 자원 기관
자녀 1	만 ()세	<input type="checkbox"/> ①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②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③ 반일제이상 학원 <input type="checkbox"/> ④ 이용안함(가정보육)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자녀 2	만 ()세	<input type="checkbox"/> ①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②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③ 반일제이상 학원 <input type="checkbox"/> ④ 이용안함(가정보육)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자녀 3	만 ()세	<input type="checkbox"/> ①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②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③ 반일제이상 학원 <input type="checkbox"/> ④ 이용안함(가정보육)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II. 가정 내 양육 및 일·가정 양립 관련

1. 현재 배우자 이외에 자녀양육 등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 입니까? 보기에서 해당 번호를 골라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번호	【보기】
1) 아이 직접 돌보기		① 조부모 ② 친인척
2) 경제적인 지원		③ 이웃, 친구 ④ 기타()
3) 가사 지원 등		⑤ 없음

2. 아동학대 예방, 보호자 역할, 양육방법, 영유아 인권 등에 대한 부모교육이 의무화 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3. 가정 내에서의 양육지원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 단위로 양육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육지원 센터는 영유아기 자녀양육 및 보육 정보와 교육서비스 및 체험공간 등을 제공함.)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4. 정부는 2013년부터 0-5세 전연령, 전계층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 지원수준보다 줄여야 한다	② 현 수준이 적절하다	③ 현재 지원수준보다 높여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100~200천원의 비용 지원

5.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육아지원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부모육아휴직 활성화
 ② 사설 베이비시터의 질적 수준 관리
 ③ 국가차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④ 수준 높은 어린이집·유치원 기관 확충
 ⑤ 유아 교육·보육비(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지원 확대
 ⑥ 어린이집·유치원의 운영시간 확대
 ⑦ 영유아 건강관련 지원 확대
 ⑧ 기타()
 ⑨ 없음

6. 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육아지원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양육관련 정보제공
 ②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아이돌보미 포함)
 ③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
 ④ 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
 ⑤ 또래맘 네트워크 구축
 ⑥ 가정 내 놀이 방법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⑦ 기타()
 ⑧ 없음

7. 근로시간과 위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귀하가 재직 중인 직장은 자녀를 키우기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⑧ 비해당(미취업)

8. 일·가정 양립 정책 중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육아 휴직제도(급여 인상 및 분할 활용 횟수 증가)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단축 급여 및 기간 인상)
 ③ 가족친화 인증 기준 개선(유연근로제도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④ 장시간 근로 및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⑤ 새로운 일·가정 양립 정책 도입
 ⑥ 기타()

9.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일과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적절한 하루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부록 6. KICCE i-POL 사업추진 결과

1. i-POL 모니터링단 사업 운영

가. i-POL 모니터링단 신규위원 위촉

2017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i-POL 모니터링단을 신규 구성하였다. 2017년 사업의 경우 i-POL 모니터링단의 경우 현재 시점으로 미취학 시기의 영유아가 있는 부 또는 모를 모니터링단 대상으로 하였다. 위원 임기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로 두었고, 주요 활동은 1) 정기 또는 수시 설문조사 참여, 2) 정기 간담회 참여, 3) 육아(지원)정책 및 관련 연구에 대한 의견 제안이다. 위원 모집은 본 연구의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시에 조사 종료 시점에 본 모니터링단 모집에 대한 안내 팝업을 게시하여 모니터링단 신청을 받았으며, 아울러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팝업을 게시하여 신청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부록 표 6-1〉 2017 i-POL 모니터링단 구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지역규모			강원	7	3.5
서울특별시	55	27.5	세종	1	0.5
광역시	42	21.0	충북	8	4.0
중소도시	93	46.5	충남	4	2.0
군(읍면지역)	10	5.0	전북	8	4.0
지역			전남	3	1.5
서울	55	27.5	경북	3	1.5
부산	11	5.5	경남	14	7.0
대구	3	1.5	충남	4	2.0
대전	10	5.0	전북	8	4.0
광주	5	2.5	전남	3	1.5
울산	3	1.5	경북	3	1.5
인천	13	6.5	경남	14	7.0
경기	52	26.0			

KICCE 육아정책 POLL 부모모니터링단 “KICCE i-POL,,모집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관련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KICCE POLL 대국민 조사와 함께 KICCE 육아정책 POLL 부모모니터링단(KICCE i-POL)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KICCE i-POL은 '아이들 위한 정책(Policy)과 정보(Information)'를 의미하는 본 연구소의 육아정책 관련 온라인 의견수렴창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정부와 국민(정책수요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를 체계화하기 위해 KICCE i-POL을 모집합니다.

모집요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취학전 영유아 자녀(자녀연령 0세~만5세)의 부모(성별/연령/직업/학력 제한없음) 200명 - 유아교육 및 보육 등 육아정책에 관심있는 자 - 모니터링 위원 활동기간 동안 성실한 활동이 가능한 자
활동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기간 : 1년(2017년 11월~ 2018년 10월) •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또는 수시 설문조사 참여 - 정기 간담회 참여 - 육아(지원)정책 및 관련 연구에 대한 의견 제안
활동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강 수여 • 소정의 문화상품권 지급(30,000원 상당)
모집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기간 : 2017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및 홈페이지 공지 등 • 합격자발표 : 2017년 12월 초순(이메일/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링크에서 해당 내용(이름,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을 작성함으로써 신청
문의 및 Q&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정책연구소 i-POL 모니터링단 담당자(02-398-7727)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ICCE

신청하기

[부록 그림 6-1] 2017 i-POL 모니터링단 모집 공고

i-POL 모니터링단의 세부 특성은 다음 <부록 표 6-2>와 같다. 세부 특성 파악을 위한 추가 조사 응답은 전체 i-POL 모니터링단 200명 중 3명이 참여하지 않아 총 197명만 참여하였다. 응답자 성별은 여성의 경우 48.7%였으며, 남성의 경우 51.3%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0.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의 경우

34%, 20대의 경우 4.6%였다. 응답자의 영유아 자녀 수는 1명인 경우가 66%로 가장 높았고, 2명인 경우 33% 였으며, 3명인 경우는 1사례 밖에 없었다.

한편 응답자 197명의 영유아 자녀는 총 266명이었으며, 만5세 이상인 경우가 21.5%로 가장 많았으며, 만4세인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해당 영유아 자녀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기관은 어린이집이 절반 이상이었고, 특히 민간어린이집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을 많이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이용없이 가정에서 양육한다는 비율도 전체의 1/4 이상이었다.

〈부록 표 6-2〉 2017 i-POL 모니터링단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연령			응답자 성별		
20대	9	4.6	남성	101	51.3
30대	120	60.9	여성	96	48.7
40대 이상	67	34.0	영유아 자녀 이용 기관*		
무응답	1	0.5	어린이집	147	55.2
영유아 자녀 수			국공립어린이집	21	7.9
1명	130	66.0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7	2.6
2명	65	33.0	법인단체등어린이집	7	2.6
3명	2	1.0	민간어린이집	69	25.9
영유아 자녀 연령*			가정어린이집	27	10.2
만0세	31	11.7	직장어린이집	16	6.0
만1세	47	17.7	유치원	46	17.3
만2세	47	17.7	국공립유치원	12	4.5
만3세	47	17.7	사립유치원	34	12.8
만4세	37	13.9	가정양육	73	27.4
만5세 이상	57	21.5			

주: 응답자 197인의 영유아 자녀 수는 총 266으로, *는 영유아 266명에 대한 응답 내용임.

나. KICCE 육아정책 Daily 동향

육아정책연구소는 i-POL 홈페이지 내 육아정책동향 게시판에 i-POL 모니터링단이 가장 빠른 육아정책 동향을 접할 수 있도록 매일 오전에 KICCE 육아정책 Daily 동향을 탑재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KICCE 육아정책 Daily 동향은 2013년도에 처음 개설되어 운영되어온 제도로서, 육아정책연구소 관련 기사, 육아정책 관련 기사, 관련부처 보도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에는 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총 200회건이 연재되었다.

다. i-POL 우수제안 제도 운영

육아정책연구소는 i-POL 홈페이지에 과제제안/정책제안 게시판에서 상시 의견을 받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과제제안 게시판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연구과제로 수행하기 적합한 연구주제를 제안하는 곳이며, 2017년에는 12월 말까지 총 3개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제안된 의견은 내부 심의를 거쳐 2017년도 연구과제 선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정책제안 게시판은 유아교육,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건의사항, 새 정책에 관한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장으로써 제안된 의견은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해당 부처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전달하였다. 2017년 12월 말까지 총 11개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라. i-POL 홈페이지 개편

2017년에는 상기 KICCE 육아정책 Daily 동향을 업로드하고 i-POL 우수제안 제도에 대한 게시판이 탑재되어 있는 i-POL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아울러 i-POL 홈페이지의 경우 모바일 버전으로도 개발하여 i-POL 모니터링단 및 일반 국민들이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i-POL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개편된 i-POL 홈페이지에는 기존 KICCE 육아정책 Daily 동향과 i-POL 우수제안 제도 외에 본 과제인 육아정책 여론조사의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결과가 나타나는 화면을 구축하여 i-POL 모니터링단 및 일반 국민에게 보여질 수 있게 하였다.

연구보고 2017-33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정인애드 02-3486-679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50-3 93590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9791187952503
ISBN 979-11-87952-50-3